

1-17-2014

감성적인 설교 전달을 위한 설교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방법

Geun Ho Lee 이근호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s://digitalcommons.fuller.edu/kdmin>

 Part of the [Missions and World Christianity Commons](#)

Recommended Citation

이근호, "감성적인 설교 전달을 위한 설교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방법." 박사학위논문, 플러신학대학원, 2014.

This Project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the Korean Studies Center at Digital Commons @ Fuller. It has been accepted for inclusion in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by an authorized administrator of Digital Commons @ Fulle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rchives@fuller.edu.

Dissertation Approval Sheet

This Dissertation entitled

PREACHING METHODOLOGY AND NON-VERBAL COMMUNICATION FOR EFFECTIVE DELIVERY WITH EMOTION

written by

GEUN HO LEE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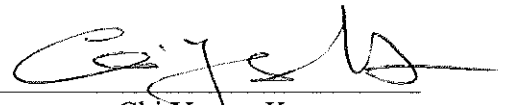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Eun Chul Kim



Chi Young Kay



Jin Ki Hwang

January 17, 2014

**PREACHING METHODOLOGY AND NON-VERBAL
COMMUNICATION FOR EFFECTIVE DELIVERY
WITH EMOTION**

DISSERTATION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GEUN HO LEE

JANUARY 2014

감성적인 설교 전달을 위한
설교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방법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김 은 철 교수

이 근 호

2014년 1월

Abstract
Preaching Methodology and Non-Verbal Communication for
Effective Delivery with Emotion
Geun Ho Lee
Doctor of Ministry
2014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A sermon is communication. Unfortunately, this simple truth is often ignored in the pulpit and many sermons fail to reach the audience. Poor sermon delivery makes it lose its impact on the lives of the congregation, ultimately producing numerous nominal believers whose credibility in society is low. The rapid drop of Korean churches' credibility in general mirrors this sad reality. Thus, preachers urgently need to change their sermon delivery from a unilateral proclamation to an audience-oriented communication that can be heard by them. It is the preacher's duty to improve his/her delivery in order for sermons to be heard by the audience in the postmodern culture. This study argues that preachers who adopt an audience-oriented paradigm and tap into the audience's five senses with nonverbal communication skills can deliver effective sermons that appeal to the emotional reservoir of the audience.

In the introductory chapter, I argue the necessity of changing sermon delivery methods today. Chapter 2 describes the conditions of sermon communication in the postmodern culture by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anged audience. In chapter 3 I discuss the audience's capacity to understand the message through their five senses that draw upon their emotional reservoir. This entails sermon delivery in the postmodern culture based on an emotionally sensitive audience-oriented paradigm. Chapter 4 proposes various nonverbal communication methods categorized into three areas: use of the environment, appearance of the communicator, and the communicator's actions. I compare the sermons of Jesus

and seven contemporary preachers in order to analyze how their nonverbal communicative actions make an impact on the audience's perception of their credibility. This analysis is based on eight categories: the communication environment, the distance between the preacher and the audience, the preacher's attractive appearance, gestures, the preacher's posture, facial expressions, eye contact, and voice. I also suggest eight practical techniques for better nonverbal communication.

Chapter 5 summarizes the following conclusions of this study and offers suggestions. First, the current generation requires a complete paradigm change in communication. Second, preachers must admit that a hostile mind to Christianity is natural in this cultural environment. Third, understanding of nonverbal communication is crucial for emotionally sensitive sermon delivery. Fourth, today's audience gives their ears to a preacher only when they perceive him/her to be credible. Fifth, the preacher can improve his/her sermon delivery by properly using nonverbal communication skills (e.g., tapping into the environment, use of appropriate distance, gestures, posture, facial expressions, eye contact, and voice), appealing to the audience's emotional reservoir.

This study seeks to improve approaches to the pulpit by adjusting to the audience and properly using nonverbal communication skills. This may help ultimately build healthy churches that can impact the lives of the believers, heal society, and serve the country in the church's endeavor to become a hope in this world.

Theological Mentors: Eun Chul Kim, PhD
Chi Young Kay, PhD
Jin Ki Hwang, PhD

감사의 글

부족한 자에게 논문을 마치며 학업의 결실을 맺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풀러 신학교를 통해 목회를 위한 재교육의 시간을 갖으며 설교전달이라는 주제로 연구와 실천을 하도록 인도하신 것은 부족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논문 지도뿐 아니라 라이프 코치로서 열정적으로 지도하시고 격려해주신 김은철 교수님, 부족한 연구에도 아낌없이 칭찬해주신 계지영 교수님, 바른 목회를 꿈꾸도록 가르쳐주신 김세윤 교수님, 엄예선 교수님, 황진기 교수님, 조의완 교수님, 다시 뵙고 싶은 잇을 수 없는 스승 성현경 목사님, 늘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시며 힘을 주시는 김승민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아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신 아버지, 어머니, 장인, 그리고 장모님께 존경과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들을 통해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배웠습니다.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하며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준 사랑하는 아내 홍수경에게 감사합니다. 난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에게 항상 기쁨을 주고 너무나 잘 자라주고 있는 사랑하는 두 아들 지환이, 세환이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으로 함께 공부했던 동료들, 부족한 중에도 나눔의 풍부함을 즐겼던 기숙사 가족들, 그리고 그동안 기도와 도움을 주셨던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14년 5월 이근호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1
제 2 절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5
제 2 장 포스트모더니즘과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7
제 1 절 포스트모더니즘의 일반적 이해	7
1. 모더니즘의 이해	8
가. 모더니즘의 영향	9
(1) 모더니즘의 시대정신	9
(가) 모더니즘의 인간이해	9
(나) 모더니즘의 자연이해	10
(다) 모더니즘의 철학이해	11
(2) 모더니즘의 절정인 계몽주의	12
나. 모더니즘의 위기	13
2. 포스트모더니즘의 사상적 배경과 등장	14
가. 진리 개념의 변화	15
나. 해석학의 발전	16
(1) 마틴 하이데거 (Martin Heidegger, 1884-1976)	16
(2) 한스-게오르그 가다머 (Hans-georg Gadamer, 1900-2002)	17
다. 언어의 도전	18
(1) 놀이로서의 언어	18
(2) 사회 관습으로서의 언어	19
(3) 구조로서의 언어	19
3.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	20
가. 포스트모던 의식	22

나. 문화적 현상	23
제 2 절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포스트모더니즘의 도전	24
1. 커뮤니케이션의 일반적인 이해	25
가. 커뮤니케이션의 정의	26
나. 커뮤니케이션의 목적	27
다. 커뮤니케이션 기능의 분류	28
(1) 전통적인 분류	28
(2) 현대 심리학적 분류	29
(3) 현대 사회학적 분류	29
라. 커뮤니케이션의 구성요소	31
2. 문화적 상황과 커뮤니케이션	33
가. 현대문화의 특징	34
나. 현대인의 변화된 특성	36
다.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패러다임	37
3. 수용자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39
가. 커뮤니케이션과 수용자	39
나. 커뮤니케이션 모델의 진화	40
제 3 절 포스트모더니즘과 설교 커뮤니케이션	42
1.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설교	44
가. 설교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44
(1) 역사적 이해	44
(2) 신학적 이해	45
(3) 교회 현장의 이해	46
나. 설교 커뮤니케이션의 구성요소	47
2. 감성적 설교전달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50
가. 전달 인식의 변화	50
나. 청중 지향적 설교	53
다. 땀 흘리는 커뮤니케이터	55

제 3 장 설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58
제 1 절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58
1.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정의	59
2.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및 기능	59
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59
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기능	60
3.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행위 유형	62
가.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주는 환경	62
나. 커뮤니케이터의 외형적 매력	62
다. 커뮤니케이션의 행위	63
제 2 절 예수님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64
1. 예수님의 커뮤니케이션	65
가. 언어적 특징	66
나. 비언어적 특징	72
2. 예수님의 말씀에서 본 구체적인 비언어적 특징들	75
가. 예수님의 가르침	76
(1) 반석위에 세운 집과 모래위에 세운 집	76
(2) 금식 논쟁	77
(3) 세례 요한의 물음과 예수의 답변	78
(4) 보복에 대하여	79
(5) 베드로의 고백	79
나. 예수님의 비유	80
(1) 씨 뿌리는 자의 비유	80
(2) 잃은 양 비유	81
(3) 큰 잔치의 비유	82
(4) 열 처녀의 비유	82
(5) 탕자의 비유	83
다. 예수님의 이적	84

(1) 나병환자 치유	84
(2) 가나안 여자의 딸 치유	85
(3) 소경의 치유	86
(4) 풍랑을 잔잔케 함	87
(5) 오병이어의 기적	88
라.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	89
(1) 성전을 정화	89
(2) 무화과나무 저주	90
(3) 예수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	90
(4) 마지막 만찬	92
(5) 예수께서 돌아가심	92
제 3 절 설교자들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94
1. 현대 설교자 7인의 비언어적 특징	94
가. 맥스 루케이도 (Max Lucado)	95
나. 티 디 제이크 (T. D. Jake)	96
다. 주드 윌하이트 (Jud Wilhite)	97
라. 마크 드리스콜 (Mark Driscoll)	99
마. 앤디 스탠리 (Andy Stanley)	100
바. 김승욱	101
사. 김병삼	102
2. 비언어적 행위가 청중에게 미치는 영향	104
제 4 장 감성적 설교전달을 위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방법 및 적용	108
제 1 절 설교전달을 위한 비언어적 행위	108
1. 설교전달에 있어 비언어적 행위의 실제	109
가. 환경의 이용	109
나. 대화거리	111
다. 외모	111

라. 제스처	112
마. 자세	112
바. 미소	112
사. 청중을 응시	113
아. 목소리	113
제 2 절 비언어적 행위를 활용한 설교	115
제 5 장 결론	129
제 1 절 요약	129
제 2 절 제언	131
참고 문헌	134
Vita	140

표 목 차

<표 1>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간단한 비교	20
<표 2> 커뮤니케이션 기능의 전통적인 분류	28
<표 3> 밀러의 커뮤니케이션 유형분류	29
<표 4> 라이트의 커뮤니케이션 기능분류	30
<표 5> 에크만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기능	60
<표 6> 예수님의 비유들	70
<표 7> 현대 설교자 7인의 비언어적 특징이 청중에게 미치는 영향	107
<표 8> 감정상태에 따른 목소리의 특징	113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설교는 소통이다: 들리는 그리고 보이는 소통이다. 하나님은 인간과의 소통을 위한 여러 방법 중 언어적이며 비언어적인 설교를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하신다. 그래서 교회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소통의 다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1세기에 들어 애플의 아이팟 (I-Pod), 아이폰 (I-Phone), 아이패드 (I-Pad)가 끌고 온 이 시대의 풍경은 저마다 자신만의 고유한 단말기를 가지고 자신만의 세계 안에서 즐기는 모습으로 비쳐지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개인화된 사람들이라 하여도 여전히 끊임없이 소통의 자리를 찾아 나서고 있음을 보게 된다. 예를 들면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인간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온라인 사회 안에는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가 발달하고 있고 오프라인에서는 각종 집회나 새로운 형식의 토크 콘서트, 또는 동호회 모임을 통해 더 깊은 소통의 필요를 충족하고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통을 바라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는 것을 외치고 있는 교회는 멀리하고 있다. 2010년 12월 15일에 기독교윤리실천운동에서 발표한 “2010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한국교회를 신뢰하는가의 질문에 응답자의 17.6퍼센트가 그렇다고 답하고, 33.8퍼센트는 보통, 48.4퍼센트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다. 그리고 신뢰도의 수치는 매년 떨어지고 있다.¹⁾

1)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10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발표 세미나,” (2010), 11.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강단의 문제와 그 맥을 같이하면서 강단의 위기가 교회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²⁾ 문제는 강단의 설교가 성도들의 귀에 들리지 않고 그들의 행동의 변화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데서 사회 속에 신뢰를 주지 못하는 성도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럼 설교는 왜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설교가 소통의 채널³⁾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통은 함께 주고받는 교감이다. 그러나 한국 교회의 강단은 아직도 대부분 일방적인 선포를 하고 있다. 물론 설교에는 선포적 요소가 있지만, 성경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씀 드리고 하나님이 그에 반응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 많다는 것에서 대화적 요소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두 사람 간에 쌍방이 서로 주고받을 때 소통이 일어나고, 청중이 메시지를 수용할 때에만 메시지가 된다는 것은 이미 사회 속에서 인식하고 있는 당연한 이치이다. 이 사실은 이제 설교가 설교자의 입장에서 하는 일방적인 선포가 아니라, 청중의 입장에서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전달방법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설교자와 청중이 소통될 때 청중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이중계명⁴⁾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며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곧 교회의 신뢰도가 될 것이다.

이 시대는 과거의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시대이다. 이 시대의 문화는 절대적인 진리의 유일성을 부정하고, 해석에 따른 진리의 다양성에 관대하고, 거대한 집단의 지배의 논리를 거부하고 작은 것에 의미와 가치를 두고자 하며 오관의 감각으로 메시지를 체험하길 원한다. 그래서 새로워진 시대에 과거의 가치관이 만나면 충돌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방식으로 교회의 커뮤니케이션 방법도 변해야 한다. 먼저 경험하여 인식하고 행동하는 이 시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교회와 설교에 큰 도전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성보다는 감성, 글보다는 이미지, 논리와 명

2) 김철영, “한국교회, 성경적 설교 회복해야”, 뉴스파워 (2013년 4월 28일자), Online: <http://www.newspower.co.kr>, 한국복음주의신학회의 61차 정기논문발표회에서 합동신학대학원의 정창균 박사가 ‘한국교회 설교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이라는 기조 발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힘 있게 선포되면 교회는 흥했고, 그렇지 않을때는 교회가 병들었으며, 병든 교회는 그 사회가 암흑의 시대로 접어드는 요인이 되었다.”고 함.

3) 김덕수, “소통 채널로서의 설교”, 목회와 신학 (2010년 6월호), Online: <http://www.qt1000.duranno.com/moksin>.

4)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 2003), 108.

제보다는 느낌과 경험으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그에 맞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현대인들은 그동안 걸어두었던 교회에 가졌던 부정적인 마음의 빗장을 풀고 복음 앞에 한 걸음 더 나오게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교회와 설교자들의 언어가 과거 모던 시대의 논리와 명제로 가득 차있다.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명제들, 해야만 한다는 강요적 가르침들, 모노톤의 단순하고 지루한 설교전달은 점점 성도들을 복음의 삶에서 멀어지게 한다. 이러한 현실의 대안으로 계지영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설교자는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말씀을 상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옛 이미지와 은유를 새 것으로 바꾸어 줄 때 회중들의 삶이 변화될 것이다. 멀티미디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설교자들은 성서의 저자들처럼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이미지, 은유, 이야기들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청중들의 삶 속에 성서적인 삶의 대안을 보여주는 시인이 될 때, 그의 설교사역이 더욱 효과적이 될 것이다.⁵⁾

역사상 정치토론회에서 설교전달에 있어 변화의 중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 1960년 9월 26일에 미국의 대통령 후보자간의 토론회가 TV와 라디오에서 동시에 생방송되었다. 대통령 후보는 케네디 (John F. Kennedy)와 닉슨 (Richard M. Nixon)이었다. 이날 케네디는 짙은 색 양복에, 얼굴에 분장을 하여 젊고 자신감 넘치는 인상을 보여주고 토론하는 동안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와 반대로 닉슨은 분장을 하지 않아서 조명에 비친 모습이 마친 아픈 사람처럼 보였다. 이 방송 토론회 전까지만 해도 경험 많고 노련한 닉슨이 정치 신인이었던 케네디에게 질 것이란 예상은 아무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다. 라디오로 토론을 들었던 사람들은 닉슨에게 손을 들어 주었지만, TV로 토론회를 시청했던 사람들에게는 케네디의 지지도가 상승했고 결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⁶⁾ 이 사건은 전달의 중요성 중에서도 특히 비언어적 행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이제 새로운 시대의 설교는 그 내용이 아니라 전달의 방법에 대한 변화가 시급하다. 그동안 많은 설교자들은 설교의 내용에는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였으나 그것이

5) 계지영, *현대설교학개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20.

6) David Hoffeld, *Delivery Matters* (Brooklyn Park, MN: Hoffeld Group, 2011), 13-14.

청중들에게는 전달되지 못하고 설득되지 못했던 안타까운 경험을 가지고 있다. 설교자와 청중 사이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이요, 소통을 경험하지 못한 청중들이 세상과도 불통하여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다. 그러나 청중들을 설득시키지 못하고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도 많은 설교자들은 시대와 세대의 악함만을 탓했고 메시지가 그들에게 들리도록 하는 일에는 안이했다.

이제 설교자들은 솔직하고 겸손하게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 말씀만 선포하면 그 다음은 성령의 영역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진실한 말씀의 종다운 면모를 보여주는 것 같으나, 실상은 하나님 말씀의 전달자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직무유기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에 설교자들은 설교의 전달을 위해 포스트모던 사회를 이해하고, 그 사회를 살고 있는 청중들을 이해하며, 오관의 감각으로 체험하는 청중들에게 효과적으로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한 설교 전달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설교는 청중의 마음과 귀에 들리게 되고, 설교가 들릴 때 비로소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의 사건이 되어 청중의 삶을 변화시키며, 그들의 삶의 변화를 시작으로 이 사회도 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청중의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오관으로 메시지를 인식하는 능력을 감성(sensibility)이라고 하는 정의 하에서 “감성적인 설교전달을 위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라는 본 논문을 통하여 설교자들이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설교자 중심이 아닌 청중 중심의 설교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포스트모던 시대에 살고 있는 감각적인 청중들을 설득하기 위한 효과적인 설교 전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예수님과 현대의 유능한 설교자들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비언어적 행위의 특징과 그 영향력의 관계를 밝히며, 현대의 설교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비언어적 행위의 전달방법을 제안하고, 그 실제적인 예로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활용한 설교문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소통에 실패하며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한국교회의 강단에 새로운 도전과 희망을 주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본 논문은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포스트모더니즘의 도전을 현재 한국교회와 설교자들에게 주어진 위기로 규정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설교자의 비언어적 행위를 제시하고자 한다. 메라비안 (Mehrabian)의 연구에 따르면 의사소통에서 비언어의 사용이 93퍼센트이고, 버드휘스텔 (Birdwhistell)의 연구에 의하면 비언어적 수단이 65퍼센트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비언어적 특징과 현대의 설교자들의 비언어적 특징을 분석하여 현대의 청중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설교자의 비언어적 방법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논문의 전체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 서론에서는 설교의 불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화된 시대의 새로운 청중들을 위해 설교전달의 변화가 필요함을 제기한다.

2장에서는 이론적인 배경으로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일반적인 이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포스트모더니즘의 도전,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에서의 설교 커뮤니케이션의 관계를 변화된 청중들의 특징이라는 관점에서 연관하여 이해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분석적인 부분으로서 포스트모던 청중들의 오관으로 인식하는 감성적인 설교전달을 위해 먼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하고 비언어적 행위의 유형을 분류하여 예수님과 현대의 설교자들에게서 비언어적 행위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으로서 감성적인 설교전달을 위해 설교자가 활용할 수 있는 비언어적 행위방법을 제시하고, 비언어적 행위를 첨가한 설교문을 보여주고자 한다.

끝으로 5장은 본 논문의 결론으로 전체 내용의 요약 및 제언으로서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문헌연구 방법을 1차적으로 택하고자 한다. 포스트모더니즘, 커뮤니케이션,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설교의 이해를 새로운 시대와 변화된 청중들의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파악하고 그들에게 적합할 수 있는 설교 전달 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2차적으로는 대한성서공회의 한글개역개정판 성서를 사용하여 예수님의 가르침, 비유, 이적, 그리고 수난과 죽음이라는 부분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비언어적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3차적으로는 현대의 설교자 7인의 비언어적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인터넷 자료에서 각 교회의 홈페이지, 비평, 보도기사, 그리고 설교 동영상을 사용하고자 한다.

제 2 장

포스트모더니즘과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이 존중되는 이 시대엔 누구도 절대적으로 틀렸거나 무가치하게 여겨질 수 없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의 주장이 존중받기를 원하는 이 시대는 영향력 있는 특정한 집단과 사회가 생성하는 거대한 담론을 무조건 숭상하기보다는 개인의 작은 소리에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고 귀 기울이려고 한다. 그래서 작은 것과 한 사람을 존중하는 이 시대는 일방통행에서 쌍방향, 전달자에서 수용자에게로 커뮤니케이션의 주도권이 변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치인, 방송인, 컨설턴트, 교사, 그리고 설교자와 같은 대중 연설인들은 시대에 발맞춰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포스트모던 시대와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을 고찰함으로써, 포스트모던 환경 아래에서 효과적인 설교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선 어떠한 변화가 필요인지 살펴보려고 한다.

제 1 절 포스트모더니즘의 일반적 이해

포스트모더니즘은 이 시대의 옷이다. 옷이 누구에게는 잘 어울리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잘 안 어울리기도 하지만, 옷은 반드시 입어야만 한다. 옷이 안 어울린다고 벗어 던질 수는 없다. 만약 옷이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고 개성을 살리는 다른 옷으로 골라 입을 수 있다면 옷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포스트모던 시대를 좀더 이해할 수 있다면 이 시대는 나랑 어울리지 않는 옷이 아니라, 나의 개성을 더욱 살려주는 기회의 옷이 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새로운 시대가 주는 새로운 풍성함과 즐거움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므로 제 1 절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일반적인 이해를 갖고자 하며, 그에 앞서 모더니즘을 이해하여 포스트모더니즘 등장의 당위성을 인식하고자 한다.

1. 모더니즘의 이해

시간의 강물이 쉽 없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모던 시대로부터 흘러온 것이다. 포스트(post)란 말엔 연속성의 “후기”라는 의미와 분리의 “탈”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이 연결된 모더니즘인지, 벗어난 모더니즘인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모더니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모더니즘은 모던(modern)이라는 근대시대의 사상적 경향이다. 근대는 약 16세기 이후의 과학 기술과 계몽사상에 근거한 인본적이고 이성적인 삶의 양식이 지배하는 시대를 일컫는다.⁷⁾ 최동식은 모더니즘을 요약해서 “이성의 절대성과 과학적 합리주의”라고 한다.⁸⁾ 그러므로 이 시대는 과학과 이성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시기였다. 기독교 문화 사역자인 신상언은 그의 책에서 모던 시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이 시대는 이성이 신뢰받는 시기였다. 중세와 기독교 신비주의적 세계관이 과학적·합리주의적 세계관으로 대체되어 모든 것을 이성의 지배하에 두고자 하였다.

둘째, 무한한 진보의 꿈을 가진 시대였다. 과학문명이 발전하면 할수록 미래는 점점 살기 좋은 곳, 즉 낙원이 되어간다고 믿었던 것이다.

셋째, 이 시대는 질서성과 필연성, 통일성이 추구되고 이상화되던 시기였다. 모든 것이 합리주의의 모델을 따라야 했고, 학문이나 문화에 있어 우연의 결과란 인정받지 못했던 시기였다.

그리고 이 시대는 과학적 정신이 절대시되어 과학적 실험과 관찰의 결과만이 객관적 사실로써 받아들여졌던 것이다.⁹⁾

모더니즘은 이성을 신뢰하고 인간이 꿈꾸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

7) 신국원,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IVP, 1999), 13.

8) 최동식, “포스트모던 시대에서의 강단사역을 위한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연구,” (Ph.D. diss., 장로회신학대학교대학원, 2009), 10.

9) 신상언, *대중문화 최후의 유희* (서울: 낮은울타리, 1993), 46.

과 과학의 발달과 함께 미래는 낙원이 된다는 낙관주의가 특징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예술, 건축 등의 모든 분야에서 나타났다.

가. 모더니즘의 영향

모더니즘은 신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시대정신이다. '근대(modern)'라는 말은 새로운 시대를 의미하는 로마자 'modernus · moderna'에서 유래했다.¹⁰⁾ 이 용어는 15세기 이래 계속 발전하며 이루어진 르네상스의 문화, 예술의 변화, 그리고 중세를 주도했던 스콜라 철학이 붕괴하며 생겨난 새로운 철학적 조류, 산업혁명과 과학과 기술의 혁명 등이 곳곳에서 동시에 일어나며 발생한 완전히 새로운 변화를 복합적으로 담고 있다.¹¹⁾ 또한 모더니즘은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18세기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문 등 인간 삶의 전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꽃피웠다.

(1) 모더니즘의 시대정신

모더니즘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주도권이 신에서 인간으로 바뀌는 시대이다. 모더니즘은 인간의 자존감을 자기 안에서 발견하고 추구하도록 하여 이기적인 자기중심주의를 모든 사람들의 의식 속에 심겨 놓았다. 그래서 인간이 모든 자연 만물의 통치자가 되고 인간의 이성이 모든 행동의 원리요 도덕의 잣대가 되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인간의 이성이 결정하게 되었다.

(가) 모더니즘의 인간 이해

모던 시대의 인간은 과거와는 달리 자신을 타자와 구별된 자아요 나누어질 수 없는 독립된 개체로 이해했다. 즉 인간을 공동체를 위한 구성원이 아닌 근원적으로 구별되는 단독자로 인식하여 인간이 사유와 인식의 주체이며 판단의 주체이고, 행위의 주체가 되었다.¹²⁾ 또한 인간은 자신이 도덕적인 주체¹³⁾이므로 자신의 행위 판단의

10) 신승환,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성찰* (경기: 살림, 2003), 21.

11) 신승환,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성찰*, 21.

12) 신승환,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성찰*, 23.

기준을 공동체의 원리가 아닌 자율성에서 찾아 도덕이란 것도 결국 자기의 판단에 의한 것이 되었다. 그리고 근대 후기에 이르러서는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과학, 기술이 모든 진리의 기준이 되었다. 따라서 인간은 과학, 기술, 자본주의의 원리를 실현하고 그 혜택을 누리는 주체, 즉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나) 모더니즘의 자연 이해

모더니즘은 자연을 인간의 통제 아래 두었다.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창세기 1장28절¹⁴⁾의 자율적인 해석으로 인간을 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주체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모더니즘은 인간중심주의를 형성하되 자신이 아닌 타인과 자연세계를 타자로 설정하는 배타적 중심주의로 흘러갔다.¹⁵⁾ 그러므로 자연 자체로서의 목적과 가치는 없고 인간 중심의 목적으로 자연을 사용하기 위해 이성적인 인간은 야만적인 자연을 문화의 힘과 이성의 힘으로 개발하고 길들이고 인간의 필요에 따라 조작 가능하다고 합리화하였다. 이렇게 인간중심주의가 인간을 중심으로 놓다보니 그 외의 것은 주변부가 되고, 이것은 인간과 자연, 유럽과 제3세계, 계몽된 문명과 야만, 이성과 감정,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라는 대치로 모든 실재하는 것을 이분법적으로 구별하게 되었다.¹⁶⁾ 결국 이러한 이분법은 영혼과 육체, 주체와 객체, 정신과 물질을 구분하여 중심부가 되는 것 외의 것은 타자가 되고, 중심부의 보편성이 진리가 되어 타자와 주변부, 약하고 아름답지 못한 것은 배제되는 차별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더욱 중심에 속하기를 선호하게 되며 중심부 안에 거하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중심부로 가는 성취를 통해 삶의 만족도를 가늠하게 되었다.

13) 신승환,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성찰*, 23.

14)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15) 신승환,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성찰*, 23.

16) 신승환,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성찰*, 25.

(다) 모더니즘의 철학 이해

모더니즘은 이성의 근거를 바꾸었다. 과거의 이성은 신적 본성을 말하는 것이었으나 인간 중심적인 모더니즘은 이성의 이해를 인간의 이성에서 찾았다. 그러므로 초기 모던 시대의 이성은 인식론적 이성이고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후기에는 실천적 이성이라 할 수 있으며¹⁷⁾ 도덕성 역시 이성의 원리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모던 시대의 대표적인 철학자 데카르트 (Rene Descartes, 1596-1650)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명제로 자율적으로 생각하는 주체로서의 자아를 강조하였다. 이 자아는 하나님의 근거까지도 결정하는 존재로 자아를 제외한 모든 사물은 이성적 사유의 대상이 되었다.¹⁸⁾ 그래서 당시 인식론의 중요한 원칙은 인간이 자신의 이성을 올바르게 사용하기만 하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데카르트는 진리를 발견하고자 할 때는 감각과 감정, 의지 같은 비이성적 요소와 경향에서 분리해야 한다고 믿었다. 따라서 “냉정한 마음으로 조급함 없이 공정하게, 분명하고 명확한 판단 외에는 판단을 내리지 않고 이성을 사용하는 방법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했다.”¹⁹⁾ 이처럼 데카르트는 모든 이론과 행동 위에 인간의 이성을 궁극적인 권위로 두었다. 그래서 그의 책 *방법서설*에서는 주체의 본성으로서의 이성이며, 도구적인 이성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규칙을 알려준다.²⁰⁾

따라서 모더니즘의 철학은 “인식 주체에 의한 의식의 철학이며 주체성 (subjectivity)의 철학이다.”²¹⁾ 즉, 인식론의 철학은 인식의 주체와 객체라는 이분법적 철학이며, 인식의 주체 또는 중심부에 보편성을 주며, 보편성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주체 또는 중심부에 치중되는 보편성의 원리는 주체와 강자가 그들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내는 거대담론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였다.

17) 신승환,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성찰*, 26.

18) 신국원, *포스트모더니즘*, 54.

19) 신국원, *포스트모더니즘*, 57.

20) 신승환,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성찰*, 26.

21) 신승환,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성찰*, 27.

(2) 모더니즘의 절정인 계몽주의

모더니즘의 후기를 이끈 계몽주의(enlightenment)는 인간의 이성을 인식론적 이성에서 실천적인 합리성으로 바꾸었다. 계몽주의는 합리성을 이성의 원리로 삼고 사회·문화적인 체계 안에서 합리적인 것을 모든 행위의 표준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계몽주의의 특징이 프랑스 혁명²²⁾(1789)을 통해 유럽에 퍼져가면서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내게 되었다.²³⁾

생각하는 주체로서의 자아와 과학 기술을 통해 우주의 질서를 통제할 수 있다는 기계론적 우주의 원리는 인간 지식의 폭발이 일어나는 활로를 열었고, 후에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는 이를 가리켜 “계몽주의 프로젝트”(enlightenment project)라고 불렀다.²⁴⁾ 이처럼 계몽주의의 목표는 인간의 이익을 위해 자연을 정복하고 유토피아를 건설하고자 인간의 지적탐구를 더욱 활성화하는데 있었다.

18세기에 계몽주의 철학자들에 의해 공식화된 모더니티 프로젝트는 객관적인 과학의 끊임없는 개발, 도덕과 법의 보편적인 토대 마련, 내면의 논리와 일치하면서도 동시에 인식의 잠재 능력을 해방시키면서 그들의 고매한 비전의 형식의 축적인 자율적 예술 형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삶의 환경과 사회적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직함으로 가능해진다. 계몽주의 옹호자들은 여전히 예술과 과학이 자연의 힘뿐만이 아니라 인간 자아와 세상, 도덕적 진보, 우리 사회의 모든 조직 안에 정의 수립, 인간의 행복을 증진할 것이라는 과도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²⁵⁾

22) 절대왕정의 불평등한 사회체제에 대해 일어난 평민들의 폭력양상을 띤 혁명. 당시에는 2퍼센트의 고위 성직자와 귀족들이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를 독점했고, 98퍼센트에 이르는 평민들은 무거운 세금을 부담해야만 했다. 평민 중에서 의사, 변호사, 사업가 등 전문지식을 통해 부를 축적한 일명 부르조아 계급들이 사회의 주도층이 되길 원하고 있었고 육체 노동자, 노숙인, 소상인 등의 프롤레타리아 계급들도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 혁명에 참여했는데, 이들은 장자크 루소의 공화주의 이념의 영향으로 “모든 사람은 평등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사회체제에 항거해야 한다”는 사상에 기초하여 혁명에 가담하였다. 혁명후 국가 체제가 바뀌며 굴곡된 정치 상황이 지속되었으나 역사상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23) 신승환,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성찰*, 28.

24) Stanley J. Grenz,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 (A Primer on Postmodernism)*, 김운용 역 (서울: WPA, 2010), 29.

25) Jürgen Habermas, “Modernity: An Unfinished Project,” in Charles Jencks, ed., *The Post-Modern Reader*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2), 162-63, Stanley J. Grenz,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 30. 재인용.

계몽주의는 모던 시대를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었다. 그 결과 첫째는 사회문화체계를 형성했다. 과학·기술주의, 자본주의, 그리고 인간중심의 계몽주의적 이념이 정치적 민주주의라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었다. 둘째는 인간의 역사와 문화를 진보의 개념으로 파악했다.²⁶⁾ 그리고 이 진보개념이 자본주의와 결합하여 이기적인 성장제일주의란 괴물을 낳게 되었다. 결국 서구 열강의 성장제일주의는 19-20세기에 모든 인류에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와 상흔을 남기게 되었다.

나. 모더니즘의 위기

모더니즘은 폭발을 향해 달려갔다. 마치 에너지의 부피가 최고조로 갑작스럽게 증가하면서 높은 온도와 기체를 방출하며 충격파를 만들어내며 폭발²⁷⁾하는 것처럼, 모더니즘의 양분을 먹고 생성된 과학기술과 합리성이라는 에너지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인간의 무한욕심이 빚어낸 성장제일주의라는 괴물이 닥치는 대로 먹잇감을 사냥하면서 모더니즘을 더욱 팽창시키게 되었다.

지상에 유토피아를 건설하며 인간을 무한행복으로 이끌 수 있을 것만 같았던 모더니즘에 대한 믿음은 모던 시대가 만든 문명에서 드러난 모순된 모습에 의해 깨어지게 되었다. 낙관적인 미래를 가져다줄 것이라 믿었던 계몽의 이성(나치²⁸⁾의 아우슈

26) 신승환,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성찰*, 29.

27) “폭발”, *위키피디아 사전*, Online: <http://ko.wikipedia.org/wiki/폭발>

28) Emil Brunner, and Karl Barth, *자연신학 (Natural Theology)*, 김동건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7). 독일교회인 루터파 개신교는 종교개혁자 루터에 대해 가톨릭으로부터 알프스 북부지역을 해방시킨 해방자로서의 시각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치 해방도 일종의 종교해방으로 보게 되어 히틀러의 민족주의와 루터파 기독교인들의 민족주의가 합하여 새로운 민족주의의 신화가 만들어졌다. 그러다보니 누구나 독일의 통합을 방해하는 이는 제거할 대상으로 보게 되었고, 신학적으로 유대인은 구원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자들이고, 신앙이 없는 이들의 입장에서 봐도 독일 사회에서 통합을 거부하고 자기만의 문화와 민족을 주장하는 이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이었으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회 각층, 미디어, 언론, 학문계 등 상류사회에서 중요한 요직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축출의 대상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이유로 나치의 민족주의는 시작되었고 에밀 부르너의 자연신학은 나치의 정당성에 영향을 주었다. 에밀 부르너는 기독교 신앙의 일반계시적 측면을 인정했다. 그래서 예수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지 않고서도 인간이 태어나면서 본성적으로 인간으로서의 특징적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거나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하나님은 실로 믿는 자들의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세상은 비록 죄악에 의해 더럽혀졌을지라도 그 자체로써 무의미한 것일 수가 없다고 한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타락한 피조물에게 가까이 계시면서 그의 보존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며 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창조은혜를 죄에 빠진 피조물로부터 완전히 거두어 가지지 않으시고 죄가 가져오는

비치 강제 수용소, 역사상 최대의 죽음의 공장이라 불리던 구소련의 강제 수용소 굴락(Gulag), 그리고 홀로코스트의 비극을 초래하였다. 또한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적 식민주의, 노예제도와 아메리카 인디오에 대한 폭력과 1, 2차 세계대전은 지상낙원을 꿈꾸는 계몽의 원리를 비웃는 사건들이었다.²⁹⁾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로 인해 결국 사람들은 모더니즘의 합리적 이성이 이끌어온 낙관적인 성공담론을 의심하게 되었다. 그리고 모던의 사상과 가치를 비판하고 반성하며 탈근대(post-modern)를 논의하게 되었다.

2. 포스트모더니즘의 사상적 배경과 등장

후기 모던인들은 그 시대의 끝자락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을 그려왔던 그들의 소망은 이를 수 없는 꿈이었음을 자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 안에 흉측하게 변해버린 모더니즘을 일으켰던 계몽주의 사고방식에 대한 거부와 탈피의 의식이 생겨났다. 그들은 과거의 지배적이었던 주장들에게서 근본적으로 단절시키는 분위기를 형성해 갔다.³⁰⁾ 그들은 모던 시대의 낙관주의를 거부하고 오히려 비판주의와 허무주의의 경향을 갖는다거나, 마치 부모에 의해서 받았던 세례를 거부하며 헤어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는 의식으로 탈세례식(debaptism)을 하는 것처럼, 많은 자녀 세대들은 부모들이 가졌던 확신을 더 이상 전수받기 꺼리기도 한다. 그리고 자연 정복의 태도를 자연과의 협력의 태도로 바꾸어야만 인류가 생존을 유지할 수 있으며, 유일한 진리가

무서운 결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수단을 사용하는데, 그 예가 국가와 결혼(가정)이다. 에밀 부르네의 자연신학은 선교적 입장에서 복음의 접촉점을 강조한 신학이었으나 나치의 민족주의를 옹호할 수 있는 신학으로 오용되었다.

29) 신승환,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성찰*, 30. 나치에 의한 아우슈비치 강제 수용소는 1945년 기준 약 600만명 (유럽 전체 유대인의 80퍼센트)이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굴락 수용소는 정치범이나 강력범죄자들이 수용되었으나 무단 결근이나 줌도독질, 정부에 대한 농담으로도 수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1929년부터 1953년까지 1800만명 정도가 수용되었다. 홀로코스트는 2차 세계대전동안 나치가 유대인을 전멸시키려는 목적으로 행했던 유대인 대학살이다. 또 다른 비극으로서 제국적 식민주의는 유럽, 미국, 일본 등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아시아에 대해 식민지를 만들고 자원과 노동력을 약탈했던 18세기 이후부터 시작된 식민지 쟁탈전이다. 노예제도는 18세기 말에 정점에 이렀던 대서양 노예 무역을 말함. 아메리카 인디오에 대한 폭력은 미국의 정착과정에서 6천에서 1억명 정도도 추산되는 토착민 인디오를 학살함. 그러나 아직 공식적인 사과는 없다.

30) Stanley Grenz,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 47.

아닌 진리의 다원성을 취하는 것으로 의식이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 논의는 1960년대에 들어서서 건축, 무용, 연극, 회화, 영화 및 음악 분야에서 나타나다가³¹⁾ 1970년대에 이르러 문화 전반에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³²⁾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포스트모던 풍조는 문예와 철학을 넘어 대중문화에 까지 깊이 침투되었다.³³⁾ 그러므로 이제는 포스트모던적 삶의 방식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세계 전체를 망라하는 시대의 흐름이다. 곧 포스트모더니즘은 이 시대의 습관이요 정신이며 삶이 되었다.

가. 진리 개념의 변화

포스트모던 시대는 마치 인 앤 아웃 (In-N-Out Burger)³⁴⁾같이 진리를 선택할 수 있다. 햄버거 하나를 먹으려 해도 양파를 넣을지 말지, 구울지 말지, 치즈를 넣을지 말지, 피클을 넣을지 말지, 일반적인 스타일인지 야채와 고기와 소스가 혼합된 ‘에니멀 스타일’인지를 선택해야 하고, 게다가 메뉴에 없는 히든(hidden) 메뉴까지 안다면 더 많은 선택을 하여 만족한 식사를 할 수 있으므로 사람들은 기꺼이 자기의 기호와 취향대로 선택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모두 햄버거를 먹지만 사실은 모두 다른 햄버거를 먹고 있는 것이다.

진리는 언제나 변함없는 정확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 표현에 있어서 모더니즘은 오직 한가지로 진리를 표현하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은 다양하게 진리를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니체(Friedrich Nietzsche, 1844-1900)는 계몽주의의 원리를 거부함으로써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 놓은 선구자이다. 계몽주의는 진리를 보편적이고 통일되고 일관된 것으로 본다. 반면 니체는 세상은 완전히 서로 다른 파편들이 한데 모여져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³⁵⁾ 세상에는 어떤 것도 서로 정확히 같은 것이 없고 진리를 표현하는 방

31) Stanley Grenz,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 27.

32) 이문균, *포스트모더니즘과 기독교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23.

33) 이문균, *포스트모더니즘과 기독교 신학*, 24.

34) 미국 서부의 햄버거 프랜차이즈. 캘리포니아 외에 네바다, 애리조나, 유타주에 2010년 12월 현재 약 250개 지점들이 있다.

35) Stanley Grenz,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 169.

법도 정해진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전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계몽주의는 진정한 지식을 전달하지 못하고 개념화로 인해 실재의 다양성을 보지 못하게 하며 인간 경험의 본래적인 부요함과 생명력을 파괴한다³⁶⁾고 니체는 말했다. 또한 그는 '진정한 세상'은 없는 것이며, 모든 것이 '관점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했다.³⁷⁾

결국 그의 철학은 그를 허무주의자로 만들었다. 그는 우리를 어떠한 실재에도 다가갈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이끌고 간다.³⁸⁾ 이렇게 볼 때 절대적인 진리, 보편적인 진리는 없는 것이고, 관점에 따른 상대적인 진리만 있다는 결론에 이르러 진리는 취사선택할 수 있는 것이 된다. 결국 모든 지식은 관점의 문제요, 모든 지식은 하나의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해석 또한 '권력에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해석은 객관적 '정확성'이 아니라 그 해석이 주는 '아름다운 가능성'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하며 니체는 포스트모던 해체주의의 선구자가 되었다.³⁹⁾

나. 해석학의 발전

포스트모던 시대는 진리의 해석은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고 그 다양함은 융합될 수 있는 다원주의로 흘러간다.

(1) 마틴 하이데거 (Martin Heidegger, 1884-1976)

마틴 하이데거는 니체의 해석의 관점을 받아들이고 계승한 독일 실존주의의 아버지이다. 그는 데카르트와 계몽주의의 존재론에 대해 부정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이성적 자아에게만 실존을 부여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실존이란 단순히 ‘거기에 존재하는 것’ (being there)이라고 선언했다.⁴⁰⁾ 그러므로 인간은 이 세계 안에서의 삶을 통해 자기 자신을 실현한다.⁴¹⁾ 이러한 세상에서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36) Stanley Grenz,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 169.

37) Stanley Grenz,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 172.

38) 이문균, *포스트모더니즘과 기독교 신학*, 27.

39) Stanley Grenz,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 182.

40) Stanley Grenz,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 195.

41) 이문균, *포스트모더니즘과 기독교 신학*, 28.

인간 존재의 특성을 하이데거는 “현 존재는 명확한 인격(a definite character)을 갖고 ‘세상에 존재하는 것’(being-in-the-world)이다”⁴²⁾라고 했다. 이로써 하이데거는 인간의 실존을 세계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세계는 주체와 객체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함으로 계몽주의의 주체와 객체의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하고 이러한 실존론에 근거하여 진리는 절대적이고 독립적이지 않고 오히려 관계적이라고 말했다.⁴³⁾ 즉, “우리는 어떤 것 ‘안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만 진리에 대해서 말할 수 있으며 경험 밖에서는 그것을 찾을 수 없다.”⁴⁴⁾ 이리므로 모더니즘의 이성의 절대성에 대한 확신은 무너지게 된다.

이름을 부여하는 것을 통해 명명된 사물은 그들의 존재 가운데 나아가도록 부름받는다. 사물이 사물 자체가 되면서 그것은 세상을 펼쳐 보이게 되는데, 그 세계 가운데 거하게 되며, 그렇게 하면서 하나로 거하게 된다.⁴⁵⁾

이렇게 이름을 부여한다는 실제의 관계성 안에서 비로소 의미가 일어난다는 하이데거의 주장처럼, 의미는 경험 안의 해석에서 일어나고 모든 실재의 양상이 다르므로 해석 또한 다르다. 그러므로 진리는 상황 안에서의 해석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2) 한스-게오르크 가다머 (Hans-georg Gadamer, 1900-2002)

하이데거의 뒤를 이어 가다머는 해석학을 새롭게 발전시켰다. 그는 계몽주의자들의 객관적인 해석학을 배격하면서 니체처럼 진리의 상대주의도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인간은 이 세계 안의 존재이며, 역사 안의 존재라는 하이데거의 관점을 받아들인다.⁴⁶⁾ 인간은 세계와 역사 안에서 존재하고 사고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서로가 살고 있는 세계가 다르므로 해석자에 따라 세계에 대한 다른 관점과 해석은 자연스러운 것

42) Martin Heidegger, *Being and Time*, trans. by John Macquarrie & Edward Robinson (New York: Harper & Row, 1962), 78.

43) 이문균, *포스트모더니즘과 기독교 신학*, 30.

44) Stanley Granz,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 198.

45) Martin Heidegger, *Poetry, Language, Thought*, 199-200, Stanley Granz,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 200에서 재인용.

46) 이문균, *포스트모더니즘과 기독교 신학*, 31.

이다.⁴⁷⁾ 그러나 그는 다양한 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자가 함께 경험하고 있는 공통된 실재인 언어와 전통, 그리고 세계가 존재한다면 그 안에서 ‘지평의 융합’(fusion of horizons)⁴⁸⁾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의미는 실제의 만남 안에서 이루어지듯이 텍스트를 보면서도 텍스트와 해석자 사이의 대화인 해석을 통해 의미가 발견된다. 그러나 어떤 하나의 해석이 기본이 되고 정확한 것이라고 할 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텍스트는 해석자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갖게 된 아직 조직화되지 않고 과편화된 채 존재하는 사고 체계를 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해석자의 다양한 해석이 서로 교류하면 다양한 지평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대의 설교자에게는 진리는 관계적이고 다양할 수 있다는 이 시대의 청중들에게 기독교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 효과적인 전달방법을 연구해야만 하는 새로운 상황이 놓여있다.

다. 언어의 도전

언어 문제는 진리와 지식의 가능성과 표현, 그리고 해석과 관련하여 포스트모던 사상의 핵심에 도전한다.⁴⁹⁾ 철학자들의 언어의 관점이 어떻게 포스트모더니즘의 사상적 배경이 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놀이로서의 언어

오스트리아 출신의 철학자 루드비그 비트겐슈타인(Ludwig Wittgenstein, 1889-1951)은 그의 책 *언어철학(Tractatus Logico-Philosophicus)*에서 언어는 세계를 ‘묘사한다’(picture)고 했다.⁵⁰⁾ 언어는 사실들에 대해 진술하는 것 뿐 아니라 기도를 드리기 위해, 요구를 하기 위해, 예배 의식에서 인사를 교환하기 위해서 등등 다양하게

47) Stanley Granz,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 김운용 역, 204.

48) Gadamer, *Truth and Method*, 273, Ibid., 재인용.

49) 이문균, *포스트모더니즘과 기독교 신학*, 33.

50) Stanley Granz,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 209.

사용된다.⁵¹⁾ 이런 점에서 그는 우리의 언어 사용은 상황에 따라 규칙과 그에 맞는 용어가 필요한 게임을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⁵²⁾ 그래서 언어는 상황 안에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하나의 진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므로 비트겐슈타인은 진리에 대한 계몽주의의 이해를 거부하고 언어는 관계성 안에서 사회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그 의미를 획득한다는 사상적 배경을 놓았다.

(2) 사회 관습으로서의 언어

스위스의 언어학자 페르디낭 드 소쉬르 (Ferdinand de Saussure, 1857-1913)는 그의 책 *일반 언어학 강의*(*Course in General Linguistics*)를 통해 언어의 발달과 표현을 시간에 따라 연구하며, 지리, 이동, 인구변화, 그리고 언어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외부 특성들에 대해 밝히고, 언어를 일관된 내적 시스템으로서 ‘구조주의’(structuralism)라는 언어 이론을 제시했다.⁵³⁾ 또한 그는 언어는 사회적 현상으로서 각 언어 시스템 및 각 언어적 표시의 시스템은 오직 사회적 관습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다고 함으로 계몽주의 인식론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였다.⁵⁴⁾ 더 나아가 언어가 사회적 현상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단어 또는 언어적 표현들이 왜 그런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논리적 이유를 설명할 수 없고 단지 그것들이 어떻게 사회 속에서 기능하는가에 대해서만 설명할 뿐이라고 한다.⁵⁵⁾ 소쉬르도 언어의 시스템을 관계성의 관점에서 정의했다.

(3) 구조로서의 언어

문학 비평 분야에서 텍스트의 해석을 위해 객관적, 보편적 문화 시스템은 우리의 정신 과정을 ‘구조화’하며, 이러한 구조는 인간의 언어와 사회 체제에서 공통적으로 분명이 나타난다⁵⁶⁾는 소쉬르의 ‘구조주의’ 개념에 많은 관심을 갖는다. 문학 비평은

51) Stanley Granz,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 210.

52) 이문균, *포스트모더니즘과 기독교 신학*, 34.

53) 이문균, *포스트모더니즘과 기독교 신학*, 212.

54) 이문균, *포스트모더니즘과 기독교 신학*, 214.

55) Stanley Granz,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 214.

작품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구조를 발견하기 위해서, 텍스트와 특별한 언어적, 심리 분석적, 형이상학적, 논리적, 사회학적, 또는 수사학적 구조와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⁵⁷⁾ 이것은 텍스트 안에서 문법만이 모든 중요한 의미의 체계를 알려준다는 모던적 인식론을 뒤집는 사상이다. 나아가 텍스트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보다 그 구조를 더 중요시 한다는 것은 텍스트의 문법을 사용한 저자가 텍스트의 구조의 뒤에 가려져 사고의 주체인 자아의 해체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조주의의 등장은 계몽주의가 세워준 주체적 자아의 해체를 가져오는 신호탄이 되었다.

이러한 진리 개념의 변화, 해석학의 발전, 그리고 언어의 도전이라는 사상적 배경과 함께한 포스트모더니즘은 이 사회는 진리의 절대성이 부정되고 상대적 진리의 가능성에서 온 진리의 다양성이 통용되고, 모든 의미는 사회 안의 관계성 안에서 형성되어 주체적 자아의 해체와 함께 1인 독재 또는 거대 집단의 횡포를 배경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를 갈망하게 된다.

그러므로 포스트모던 시대의 설교자는 이 시대의 청중은 모던시대의 청중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과 생활방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들의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고, 그들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아야 한다.

3.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

포스트모더니즘은 딱 잘라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아직도 변화 중에 있는 이 시대의 사상적 경향이지 완성된 사고 체계도 아니고 사회를 구성하는 시스템도 아니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에서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가 이용한 이합 핫산(I. Hassan)의 도표가 모더니즘과 비교하여 포스트모더니즘을 잘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56) 이문균, *포스트모더니즘과 기독교 신학*, 38.

57) Stanley Granz,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 217.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낭만주의/상징주의	심령 물리학 / 전위주의 (Dadaism)
형식 (담힌)	반 (anti) 형식 (열린)
목적	놀이
계획	우연 (chance)
계급질서 (hierachy)	무질서 (anarchy)
숙달/논리	소모/침묵
예술 작품/완성된 작업	과정/수행/즉흥
간격	참여
창조/총화/종합	파괴/해체/반립 (反立)
현존	부재
중양 집중	분산
장르/구획	본문/본문간의 관련성
의미론 (semantics)	수사학
모형	신태그머 (syntagma)
종속 구문	병렬 구문
은유 (metaphor)	환유 (metonymy)
선정	결합
뿌리/깊이	땅속줄기 (rhizome)/표면
해석/읽기	해석에 대항/오독
기호의 대상이 된 것	기호
읽기	써나가기
이야기/웅대한 역사	이야기에 저항/작은 역사
부호 지배	개인언어 (idiolect)
증상	욕구
유형	들연변이체
생식기/남근 숭배	다형태 (polymorphous)/남녀 양성
편집증	정신 분열증
기원/원인	차이/추적
성부	성령
형이상학	풍자
확정	불확정
초월	내재

출처: I. Hassan, 'The Culture of Postmodernism' Theory, Culture and Society (1985, 123-4)

〈표1〉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간단한 비교⁵⁸⁾

58) David Harvey,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Cambridge, MA: Blackwell, 1990), 43.

위의 표가 보여주듯이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사이에는 비슷한 차이가 아닌 완전한 변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된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을 제시하는 것도 학자들마다 관점이 차이가 있다. 스탠리 그랜츠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을 지적 풍조(intellectual mood)나 문화적 표현(cultural expressions)이 과거의 지배적이었던 주장들에서 근본적으로 단절시키는 분위기를 형성한다고 한다.⁵⁹⁾ 그레함 존스톤(Graham Johnston)도 탈근대적인 의미에서 포스트모던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 10가지를 이렇게 제시한다.

첫째, 근대성과 그 모든 신조들에 반동한다. 둘째, 객관적 진리를 거부한다. 셋째, 권위에 대하여 회의적이고 의심한다. 넷째, 자아와 정체성을 찾고 있는, 길 잃어버린 사람과 같다. 다섯째, 도덕성이 선명하지 않고 무엇이든 편리한 것에 관심갖고 몰두한다. 여섯째, 초월적인 것을 계속 탐구한다. 일곱째, 미디어의 세계에 빠져 있다. 여덟째, 아는 체하는 능글맞은 웃음을 웃으려든다. 아홉째, 공동체를 찾고 있다. 열 번째, 상당히 물질적인 세계에 살고 있다.⁶⁰⁾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모던 시대에 가졌던 확신을 포스트모더니즘은 거부하고 파괴한다는 관점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가. 포스트모던 의식

첫째, 포스트모던 의식은 인간이 반드시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신화를 거부한다⁶¹⁾. 인간은 절대적 이성을 갖고 있으며 모든 것의 주체이므로 상상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낙관주의를 지양하고 비관주의의 경향을 갖는다. 둘째, 지식중심적인 개인보다는 통전적 차원(holistic dimension)의 ‘전체적인’(whole) 사람이 되는 것을 추구한다.⁶²⁾ 이는 삶의 모든 차원을 지적, 정서적, 의지적인 것들의 통합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셋째, 포스트모더니즘은 공동체의 중요성과 인간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강

59) Stanley Granz,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 46.

60) Graham Johnstone, *포스트모던 시대의 설교전략 (Preaching to a Postmodern World)*, 최중수 역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2006), 44-45.

61) 이문균, *포스트모더니즘과 기독교 신학*, 77.

62) Stanley Granz,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 48.

하게 인식한다. 이 공동체는 ‘자연계’(생태계)까지도 포함하여 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넷째, 포스트모던 의식은 상대주의와 다원론의 특성을 갖고 있다.⁶³⁾ 이는 지구 위에 거하는 많은 사람들의 각 상황 안에서 갖고 있는 진리의 기준과 가치가 다르므로, 진리의 다원성을 인정해야 나와 다른 사람들과 공존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포스트모던인들은 자신은 ‘옳고’ 남은 ‘틀렸다’라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고, ‘나에게 옳은 것이 당신에게는 옳지 않을 수 있다’는 의식을 갖고 살고 있다. 이 현상은 진리의 객관성을 부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진리 자체를 부정하기에 이른다. 다섯째, 포스트모더니즘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이 될 중심이 없다. “포스트모던 상황에서는 자신마다 권력과 행동을 키워하면서 그 자신을 중심으로 나타내고, 사회를 통제하는 보편적인 거대 담론을 용해시킨다.”⁶⁴⁾ 모든 이가 중심이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중심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점점 다양한 공동체가 많아지는 복합적이고 복잡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여섯 번째, 모던 시대에는 과학과 합리성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거대한 이야기를 만들었으나, 포스트모더니즘은 거대한 이야기는 힘 있는 자의 정당성을 지탱해 주는 것이란 인식이 팽배하여 거절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운동, 동성연애자들의 투쟁, 종교다원주의, 뉴에이지 운동, 환경운동 등은 거대한 이야기를 거부하며 소수자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의식적인 특징이다.

나. 문화적 현상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화적 특징의 가장 중심은 다원론이다.⁶⁵⁾ 문화적 작품들은 종종 콜라주(collage) 기법과 같이 이중적인 재료나 기법으로 독특하고 모호하게 주제를 표현한다.⁶⁶⁾ 이러한 현상은 합리성이 아닌 다양성과 그 속에서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63) Stanley Granz,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 49.

64) Steven Connor, *Postmodernist Culture: An Introduction to Theories of the Contemporary*, 2nd ed. (Oxford, UK: Blackwell, 1997), 8.

65) Stanley Granz,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 59.

66) “콜라주”, Online: <http://ko.wikipedia.org/> 콜라주 (collage)는 질 (質)이 다른 여러 가지 형질, 비닐, 타일, 나뭇조각, 종이, 상표 등을 붙여 화면을 구성하는 기법이다. 콜라주 기법은 보는 이들에게 별난 느낌을 심어준다. 콜라주 작품을 제작하는 기본 양식으로 두 가지 인상주의 스타일과 내러티브 스타일을 꼽을 수 있다.

사회적 특징에서 기인된 것이다. 첫째, 건축에서는 모던 시대의 이상인 동일한 특징을 갖는 기능성을 추구하는 가치의 일면성(univalence)을 거절하고 건물의 상징을 중시하는 '가치의 다면성'(multivalence)을 즐겨 추구한다.⁶⁷⁾ 둘째, 예술에서는 양식의 다양성 또는 '가치의 다면성'을 받아들여 모더니즘의 '순수성'(purity)보다는 '혼합성'(impurity)이 특징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고자 한다.⁶⁸⁾ 셋째, 모더니즘의 이성 중심의 사고가 변화하여 포스트모더니즘은 감각중심의 문화를 추구한다. 감각의 중심에는 '느낌'과 '이미지'가 있다. '느낌'과 '이미지'를 잘 표현하는 것이 영상문화이다. 신국원은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시와 건축, 회화와 조각이 주도했던 근대와 달리 포스트모던 문화는 영상이 주도한다"⁶⁹⁾고 한다. 레너드 스위트(Leonard I. Sweet)은 포스트모던 문화에서 "이미지는 힘의 언어"⁷⁰⁾로 작용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포스트모던 시대에 감각세대를 이해하고 그들의 문화코드를 활용할 줄 아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을 요약해보면 이 시대는 절대성이 아닌 상대성, 유일성이 아닌 다차원의 통진성, 거대함이 아닌 작은 것의 정당성, 그리고 이성중심이 아닌 감각중심의 영상문화를 추구한다.

이러한 사실은 목회와 설교의 전달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나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제 2 절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포스트모더니즘의 도전

현대인들의 삶에 변화의 가속을 더하는 것은 정보화이다. 컴퓨터와 통신기기의 비약적인 발전은 세상을 내 손 안에 갖다 준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기술의 혜택 덕분에 과거보다 많고 다양한 경험을 하며, 이미지를 사용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그룹 속에 참여하게 되어 거미줄(web)로 얽힌 세상 안에서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를 지향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러한 삶의 변화는 현대인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포스트모더니즘의 도전을 낳았다.

67) Stanley Granz,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 63-64.

68) Stanley Granz,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 67-68.

69) 신국원, *포스트모더니즘*, 139.

70) Leonard I. Sweet,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Postmodern Pilgrims)*, 김영래 역 (서울: 좋은씨앗, 2002), 141.

니케이션에 도전을 주고 있다. 삶의 변화는 사람들의 욕구를 변화시킨다. 사람들의 변화된 욕구, 이것을 아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가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본 절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의 전반적인 이해의 바탕 위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이 주는 도전을 살펴보고, 그 도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커뮤니케이션의 일반적인 이해

우리는 최고 속도의 빠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메가 데이터 문화(mega data culture)에 살고 있다.

2011년, 전 세계에서 생성되는 디지털 정보량은 1.8 제타바이트. 1.8 제타바이트 (1.8ZB = 1,800,000,000,000,000,000 bytes)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 (약 4875만 명, 2010년 기준)이 18만 년 동안 쉬지 않고 1분마다 트위터에 3개의 글을 게시하는 양과 같다. 또 2시간짜리 HD 영화 2천억 개와 맞먹는 정보의 양이다. 전 세계 디지털 정보량은 2년 마다 2배씩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유니버스 보고서)⁷¹⁾

엄청나게 쌓여가는 데이터 홍수 속에서 어떻게 우리 삶과 사회, 인류에게 의미 있는 정보와 가치들을 얻어내 미래 사회로 나아갈 것인가는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다. 홍수에 마실 물이 없듯이 오히려 엄청난 정보 속에서도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수많은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가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단지 일방적인 정보에 그치는데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끊임없이 쌍방향의 소통을 찾아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중요한 쌍방향 소통의 필요 앞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정의와 목적, 분류와 요소 등 커뮤니케이션의 일반적인 이해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71) “빅 데이터” KBS 뉴스 시사기획 창 (2012년 1월 31일 방송).

가. 커뮤니케이션의 정의

커뮤니케이션은 상호작용이다. 둘이 있어도 상호 교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상호적인 측면에 따라 이곳에서는 김만경과 황인찬의 연구에 인용된 학자들의 정의를 통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의 정의를 살펴보고자 한다.⁷²⁾

① 배럴슨(Berelson)과 스타이너(Steiner): 커뮤니케이션은 기호 (언어, 그림, 도표 등)를 사용하여 정보, 사상, 감정, 기술 등을 전달하는 행위나 과정이다.

② 체리(Cherry): 커뮤니케이션은 한 유기체가 다른 유기체의 행동에 기호라는 수단을 통하여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다.

③ 포더링햄(Fotheringham): 커뮤니케이션은 수용자가 커뮤니케이터와 비슷한 뜻을 갖도록 기호를 선택, 제작, 전달하는데 관련된 과정이다.

④ 새논(Shannon)과 위버(Weaver): 커뮤니케이션은 하나의 마음이 다른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과정이다.

⑤ 웹스터 사전: 커뮤니케이션은 사상이나 의견의 상호교환, 효과적으로 사상 표현을 다루는 예술, 전달행위, 전달된 사실이나 정보이다.

⑥ 어빙 로저(Irving Lorge): 커뮤니케이션은 기호를 받고 보내는 것과 메시지의 구성과 이해, 아이디어를 나누며 즐기는 것에 따르는 상호작용이다.

⑦ 플랭클린 피어링(Franklin Peering): 커뮤니케이션은 기호를 통해 개인의 아이디어와 경험을 나누는 활력적 과정이다.

⑧ 제임스 엔젤(James F. Engel): 커뮤니케이션은 양측의 사람이 모두 그 메시지를 이해하고 의도한 그대로 수신자가 행동으로 옮길 때 일어나는 쌍방향로의 과정이다.

⑨ 김남식: 커뮤니케이션은 유기체들이 기호를 통하여 서로 정보나 메시지를 전달하고 수신하여 서로 공통된 의미를 수립하고 나아가서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및 행동으로 정의한다.

72) ①~⑤은 김만경, "설득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효과적인 설교전달에 대한 연구," (Ph.D, diss., 총신대학교 목회신학 전문대학원, 2010), 28-29. ⑥~⑨은 황인찬, "효과적인 설교를 위한 예수의 설교 커뮤니케이션 연구," (Ph.D. diss.,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2010), 17.

그러므로 커뮤니케이션은 전달자와 수신자의 쌍방 간에 언어적,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메시지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행동이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의 연구는 다른 학문적 분야에서 다른 관심을 가지고 연구되어 왔다. 인류학은 특정한 문화 안에서 의사소통을 위해 하는 몸짓과 자세에 관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Nonverbal Communication)에 관심이 있고, 심리학은 설득, 또는 사회적 영향력과 태도의 변화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해왔다.⁷³⁾ 또한 사회학과 정치학에서는 정치적 행위, 투표행위, 사회 속에서의 대중 매체의 기능과 본성에 대해 연구해왔고, 언어학자나 기호학자들은 언어의 본성과 언어의 역할에 관심을 두며, 수사학 분야에서는 목소리, 어법, 해석, 논쟁, 연극, 연설 등에 관심을 갖고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해왔다.⁷⁴⁾

나. 커뮤니케이션의 목적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은 설득에 있다.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전달자와 수신자 간의 이해⁷⁵⁾를 도모하는 것이 핵심인 것처럼, 전달자인 A의 말하려는 의도와 수신자인 B의 들으려는 주의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A의 의도를 전하는 노력과 B의 수용하고자 하는 주의력이 잘 이루어질 때 설득이 일어난다.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커뮤니케이션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적 합의를 얻는 데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대중들에게 진실을 변호하거나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또는 사물이나 인물을 찬양하거나 비난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⁷⁶⁾

17세기에 들어서서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캠프(Campbell)은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을 이전보다 구체화시켰는데, 지성에 호소하여 이해시키고, 의지에 영향을 미치고, 감성에 호소하여 상상을 즐겁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했다.⁷⁷⁾

73) 정병관, *크리스천 커뮤니케이션*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9), 28.

74) 김만경, "설득 커뮤니케이션으로써의 효과적인 설교전달에 대한 연구," 27.

75) 김만경, "설득 커뮤니케이션으로써의 효과적인 설교전달에 대한 연구," 4.

76) Aristotle, *Rhetoric*, translated by W. Rhys Roberts (New York: the Modern Library, 1954), 차배근, *커뮤니케이션학 개론 (상)* (서울: 세영사, 1976), 199에서 재인용.

77) George. Campbell, *The Philosophy of Rhetoric* (n.c: n.p, 1776), 차배근, *커뮤니케이션학*

현대에 이르러서 발전된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to inform), 상대방의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to influence), 즐거움을 주기 위한 것(to entertain), 광고를 하기 위한 것(to advertise) 등으로 나누어졌다.⁷⁸⁾

그러므로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은 쌍방 간에 언어적, 비언어적 기호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메시지의 의도대로 상대방의 태도나 행동에 변화가 있도록 지성, 감성, 의지에 설득하는 것이다.

다. 커뮤니케이션 기능의 분류

(1) 전통적인 분류

차배근은 신문은 현대 커뮤니케이션학의 모체가 되어 왔으므로 신문이 커뮤니케이션의 대명사처럼 취급되어 커뮤니케이션학을 광의의 신문학이라고 부른다고 한다⁷⁹⁾. 그래서 신문의 기능은 커뮤니케이션의 일반적 기능과 다를 바가 없는데, 크게 보도기능, 지도기능, 오락기능, 광고기능으로 나뉘며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로 일간신문은 보도기능이 35퍼센트, 지도기능이 4퍼센트, 오락기능이 21퍼센트, 그리고 광고기능이 40퍼센트 정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⁸⁰⁾고 차배근은 말한다. 그는 자신이 정의한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에 근거하여 신문의 4가지 기능을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으로 보고 전달자와 수용자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유형	전달자의 목적	수용자의 목적
정보적 커뮤니케이션	정보 제공	정보 이해
교육적 커뮤니케이션	교육, 지도	학습
오락적 커뮤니케이션	오락 제공	오락 즐김
광고적 커뮤니케이션	제안, 설득	수용, 결정

〈표2〉 커뮤니케이션 기능의 전통적인 분류⁸¹⁾

개론 (상), 199에서 재인용.

78) 차배근, *커뮤니케이션학 개론 (상)*, 199.

79) 차배근, *커뮤니케이션학 개론 (하)* (서울: 세영사, 1976), 29.

80) 차배근, *커뮤니케이션학 개론 (하)* (서울: 세영사, 1976), 32-33.

81) 차배근, *커뮤니케이션학 개론 (상)*, 44, 김만경, "설득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효과적인 설교

그러나 이런 분류는 수용자의 입장에서 커뮤니케이션의 목적대로 낸 효과를 측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새로운 분류작업이 대두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현대 심리학적 접근방법과 현대 사회학적 접근방법이다.⁸²⁾

(2) 현대 심리학적 분류

현대의 커뮤니케이션은 수용자 중심으로 변화되었다. 이에 밀러(Miller)는 수용자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자신에게 이질적인 것라도 소통하게 되는 것을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유형	내용	목적
제1유형	수용자로 하여금 비가치적인 반응을 얻게 하기 위한 것	정보학습
제2유형	수용자로 하여금 새로운 가치적 반응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	새로운 태도의 형성
	수용자가 이미 갖고 있는 가치적 반응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	기존 태도의 강화
	수용자로 하여금 다른 가치적 반응을 습득하게 하여 기존의 신념을 바꾸기 위한 것	기존 태도의 변화

〈표3〉 밀러 (Miller)의 커뮤니케이션 유형 분류⁸³⁾

(3) 현대 사회학적 분류

앞의 밀러의 커뮤니케이션 유형 분류가 수신자의 개인적 기능에 중점을 둔 것이 라면, 현대 사회학에 근거한 분류는 커뮤니케이션의 사회적 기능에 주안점을 둔다.

사회적 기능의 대표적인 학자는 라스웰(Lasswell)이다. 그는 커뮤니케이션의 기

전달에 대한 연구," 35에서 재인용.

82) 차배근, *커뮤니케이션학 개론 (상)*, 200-201.

83) Gerald. R. Miller, *Speech Communication: A Behavioral Approach* (New York: the Bobbs Merrill Co. 1966), 17-19, 김만경, "설득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효과적인 설교전달에 대한 연구," 36에서 재인용.

능을 사회적으로 환경감시 기능, 상관조정 기능, 사회유산 전수 기능으로 분류했다.⁸⁴⁾

여기에 라이트 (Wright)는 오락기능을 추가시키며 개인과 사회에 커뮤니케이션 기능이 끼치는 정기능과 역기능을 4대 기능의 유형으로 분류했다.⁸⁵⁾

기능의 유형	대상	정기능	역기능
환경감시	사회	① 위험에 대한 경고 ② 사회기구 활동 수단이 됨	① 사회구조의 안정을 위협 ② 설명 없는 경고는 사회적 공포를 야기
	개인	① 개인의 사회 복지 증진 ② 생활정보 제공 ③ 지위 부여 ④ 사회규범 강화	① 긴장, 우매함 조장 ② 자기중심적 경향 조성 ③ 사회에 대한 무관심 조성 ④ 개인을 무기력화 함
상관조정	사회	① 인구의과밀 자극과 유동을 예방	① 사회변화 저해 ② 획일화 조장
	개인		① 개인의 비판능력 약화
문화전달	사회	① 사회와의 수단이 됨	① 문화의 다양성 소멸
	개인	① 사회의 공통규범, 가치관 등을 공유시킴	① 개성을 상실시킴
오락제공	공통	① 여가 선용, 긴장감 해소, 문화 발전을 촉진	① 범죄의식 조장, 대중 취향을 저속화, ② 개인적, 가족적 오락을 저해

〈표4〉 라이트 (Wright)의 커뮤니케이션 기능 분류

그리고 김정현은 4대 기능을 방송의 프로그램과 현대사회에 접목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환경 감시 기능은 뉴스나 현장 고발 프로그램으로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리하여 알려주는 기능이다. 둘째, 상관조정 기능은 시사 프로그램으로

84) Harold D. Lasswell,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Communication in Society," in L. Brayson, ed., *The Communication of Ideas*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948), 37-51, 김만경, "설득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효과적인 설교전달에 대한 연구," 37에서 재인용.

85) Charles R. Wright, "Functional Analysis and Communication," *Public Opinion Quarterly* (1960), 612-620; 김만경, "설득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효과적인 설교전달에 대한 연구," 37에서 재인용. 라이트의 분류를 김만경이 정리하여 도표화한 것임.

서 환경에 관한 정보의 의미를 해석하고 대응책을 주어 사회 구성원의 태도에 영향을 주는 기능이다. 셋째, 사회유산 전수 기능은 미디어의 사회적 역할로써 사회의 가치와 규범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또는 새로 편입된 사회 구성원들에게 전수되는 기능이다. 넷째, 오락기능은 방송의 연예, 오락프로그램으로써 사람들의 기분전환 및 휴식을 돕는 기능이다.⁸⁶⁾

라. 커뮤니케이션의 구성요소

커뮤니케이션을 간단히 정리하면, 커뮤니케이션이란 전달자가 그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인 메시지를 수신자에게 어떠한 매체들을 통하여 전달하는 것이다. 마이론 차티어(Myron R. Chartier)는 이것을 “궁수-과녁”⁸⁷⁾의 비유로 표현한다. 궁수인 전달자의 메시지가 화살인 전달매체를 통해 과녁인 수신자에게 나아가고 그 결과, 수신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또한 정장복은 커뮤니케이션을 과정으로서 “A가 B라는 내용을 C라는 채널을 통하여 D라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거기서 E라는 효과를 얻는 과정”⁸⁸⁾이라고 한다.

라스웰(Lasswell)은 커뮤니케이션에서 누가 (전달자), 무엇을 (메시지), 어떤 경로로 (채널), 누구에게 (수신자), 어떤 효과로 전달할 것인가 (효과)가 필수적인 요소라 한다.⁸⁹⁾ 따라서 본 연구자는 여러 학자 중 라스웰의 정의에 따라 커뮤니케이션의 구성요소를 전달자, 메시지, 매체, 수신자, 효과로 보고 수신자의 피드백과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덧붙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전달자는 커뮤니케이터로서 자기의 생각이나 정보를 수신자에게 전하는 주체로서 의도성을 가진 개인이나 조직이다. 의도성이란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을 말한다. 전달자는 목적에 따라 매체 또는 채널을 선택하거나 수신자를 결정하고, 언어와 환경

86) 김정현, *설득커뮤니케이션의 이해와 활용*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10-11.

87) Myron R. Chartier, *말씀의 커뮤니케이션 (God Has a Communication Problem)*, 정장복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163.

88) 정장복, *한국교회의 설교학 개론* (서울: 예배와설교아카데미, 2001), 230.

89) Lasswell,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Communication in Society Bryson: The Communication of Ideas* (New York: Harper & Row, 1948), 234-38; 김만경, “설득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효과적인 설교전달에 대한 연구,” 59에서 재인용.

을 선택한다.⁹⁰⁾

둘째, 메시지는 전달자의 생각이 기호로 바뀌어 나오는 것이다. 차배근은 메시지를 정의할 때, 메시지란 전달자가 수용자와 어떤 정보, 경험, 감정, 의견, 의미 등을 공유하거나 수용자의 태도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전달자의 생각을 언어나 그림 등의 기호로 기호화하여 표출하는 것이라고 한다.⁹¹⁾

셋째, 매체는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채널이라고도 한다. 여기에는 신문과 잡지 등의 인쇄매체, 라디오나 TV 등의 전파매체, 그리고 인터넷 매체 등이 포함된다.⁹²⁾ 또한 동일한 메시지라도 전달매체에 따라 전달의 효과가 달라진다. 설득효과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파매체와 인쇄매체 사이에는 메시지의 내용이 반박하기 어려울 때는 전파매체가 사고나 인지반응을 제한하여 설득효과가 감소되나 메시지의 내용이 반박하기 쉬울 경우에는 전파매체가 설득효과가 높다. 그리고 구어매체가 문어매체보다 친근감을 주고 수용자들이 반박적 사고를 할 여유가 적기 때문에 설득효과가 높다고 한다.⁹³⁾ 이러한 추세는 현대의 젊은이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어디서 얻고 있는지 살펴보면 알 수 있는 입증된 사실이다.

넷째, 수신자는 전달자가 보내는 메시지를 받는 개인이나 집단을 말한다. 이때 수신자는 전달자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전달자의 인격이나 태도와 같은 속성이나 사용된 매체의 특성도 함께 받아들이게 된다.⁹⁴⁾ 또한 김만경은 바우어 (Bauer)가 수신자의 피동성이라는 전통적 개념을 비판하며 강조한 수신자의 능동성을 주장한 것에 동의하며 수신자는 전달자의 메시지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취사선택한다고 한다.⁹⁵⁾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은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선 수신자를 이해하고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지지한다.

다섯째, 효과관 커뮤니케이션의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전달자의 의도대로 수신자에게 나타나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외부적이며 내부적인 반응과 변화이다. 이때 수신자에게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커뮤니케이션은 효과 없는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

90) 황인찬, "효과적인 설교를 위한 예수의 설교 커뮤니케이션 연구," 20.

91) 차배근 외, *설득 커뮤니케이션 개론* (과주: 나남출판사, 2005), 78.

92) 김만식, *기독교커뮤니케이션학* (서울: 배다니, 1999), 179

93) 차배근 외, *설득 커뮤니케이션 개론*, 104-106.

94) 김만식, *기독교커뮤니케이션학*, 179.

95) 김만경, "설득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효과적인 설교전달에 대한 연구," 65.

여섯째, 피드백은 전달자에게 돌아오는 수신자의 반응이다. 이 반응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피드백은 그 자리에서 수신자의 대답과 태도를 통해 받거나 TV나 라디오 등의 모니터링, 시청률, 청취율 조사, 설문조사, 기업의 시장조사, 고객의 소리나 게시판 등을 통해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전달자는 그 결과를 그의 메시지에 다시 반영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드백은 더 낮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효율적인 요소이다.

일곱째, 환경은 작게는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분위기, 시간, 장소 등이고, 크게는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문화적, 국제적인 배경까지 포함하는데⁹⁶⁾ 같은 메시지라도 그 환경에 따라 메시지의 의미가 다를 수 있고, 수신자의 반응과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매일 모든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가 전달자, 메시지, 매체, 수신자, 효과, 그리고 피드백과 환경의 7가지나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달자의 의도가 수신자에게 얼마든지 왜곡되고 차단되어 뜻하지 않은 결과를 맞게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커뮤니케이션에서 그 구성요소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전달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를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2. 문화적 상황과 커뮤니케이션

포스트모더니즘은 나(I)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을 추구한다. 이제는 공공장소이든 사적 장소이든 상관없이 개인 단말기인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심지어는 저녁의 가족 시간에도 모든 가족들이 한 공간 안에서 각자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 각각 웹 서핑을 하거나, SNS에 참여하거나, 통화를 하거나 문자로 채팅을 하면서 말이다. CBS News의 보도에 따르면 2015년까지 전 세계의 스마트폰 사용자는 10억 명이 될 것이라고 추정한다.⁹⁷⁾ 이는 전 세계 인구 70억 중에 1/7

96) 황인찬, "효과적인 설교를 위한 예수의 설교 커뮤니케이션 연구," 21.

97) Sara Dover, "Study: Number of Smartphone Users tops 1 Billion," CBS News (aired on Oct 17, 2012).

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권위의 표준과 중심성 상실의 경향은 다원성과 다양성의 추구로 표출되어 현대의 문화는 파편화와 지역화의 현상으로 나타난다. 결국 현대의 사회는 권위 체계가 무너진 대중적인 사회가 된다.⁹⁸⁾ 이러한 현대의 대중적인 문화의 특징을 가리켜 레너드 스위트(Leonard Sweet)은 EPIC 문화⁹⁹⁾로 규정한다. EPIC이란 경험(Experience), 참여(Participation), 의미가 살아 숨쉬는 이미지(Images), 관계(Connection)로서 포스트모던적인 현대사회의 핵심 요소이다.¹⁰⁰⁾ 본 연구자는 레너드 스위트의 EPIC 문화에 따라 현대 문화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현대문화의 특징

첫 번째는 경험중심의 문화이다. 현대의 문화는 경험을 높이 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와 안정된 직장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인생의 다양한 경험을 갖기 위해 그 일에 모든 것을 투자하기도 한다.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느낀 것을 신뢰하며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현대인들의 특징이다. 그래서 대형마트의 시식코너는 물론이고 기업의 직원채용에 있어서도 지원자가 했던 다양한 경험을 중시하며, 물건을 미리 사용해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체험 마케팅 또한 유행이다. 온라인 쇼핑몰도 구매자의 결정을 돕기 위해 물건의 실물 사진과 동영상, 구매자들의 체험 후기를 생생하게 올려놓아 구매자가 상품을 경험해보고 물건을 선택하는 것 같은 신뢰를 갖도록 홍보한다.

두 번째는 참여적인 문화이다. 1990년대 초, 우리 사회에 들어오기 시작한 노래방 문화는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여전히 유행이다. 그동안 라디오나 TV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따라 부르는 것에서 자기가 직접 노래를 선택하여 가수처럼 노래를 한다는 것이 수동성에 갇혔던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주며 자기를 자기 인생에 능동적인 참여자로 바꾸게 되었다. 이뿐 아니라 이제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98) 김운용,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설교*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7), 114.

99) Leonard Sweet,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The Gospel According to Starbucks)*, 이지혜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36.

100) Leonard Sweet,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36.

어디서든 문화의 직접적 참여자가 되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시청자에 의해 드라마의 내용이 바뀌어 지기도 하고, 가수 오디션 (audition) 프로그램에서 청중 평가단에 의해 가수들의 당락이 결정되기도 하며, 일반인들의 시민운동이나 정치적 참여가 활발해진 것은 모두 인터넷과 디지털 혁명이 가져온 현대 사회의 특징이다.

세 번째는 의미가 담겨있는 이미지를 추구하는 문화이다. 근대의 문화는 언어와 문자가 중요한 매체였으나, 현대의 문화는 상징과 은유, 그리고 이미지가 중요한 매체로 등장한다.¹⁰¹⁾ 이미지가 가장 잘 활용되는 것이 광고이다. 이제 기업은 이미지를 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래학자인 레너드 스윗은 이렇게 말한다.

은유와 이미지는 새로 출현하는 문화 안에서 포스트모던을 위해 있다. 요즘 시대에서 이미지란 이야기이며 말은 그저 선언적 표현 (“이것을 보라!”,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라!”)이다. 이제 는 말이 이미지를 보충한다. 즉 말은 스스로 이미지를 만들지 않는다. 글보다는 시각적 아이디어들이 오늘날 이야기의 주를 이룬다.¹⁰²⁾

웹상에서 자신을 표현할 때도 아바타를 즐겨 사용하고, 문자를 전송할 때도 길고 지루한 문장 대신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표현하는 이모티콘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은 이 시대가 문자 기반에서 이미지 중심의 문화와 시대로 바뀌고 있음을 말해준다.

네 번째는 상호 관계를 중시하는 공동체성을 추구하는 문화이다. 현대인들은 개인주의를 선호하면서도 자신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때 안정감을 느낀다.¹⁰³⁾

현대인은 “영적으로 중요한 삶의 질적인 향상, 더 깊은 유대감, 공동체적인 삶에 굶주려 있다.”¹⁰⁴⁾ 그래서 현대인은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또는 SNS나 이메일을 통해 자신을 알리고 상대방의 삶을 들여다보며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다.

이제 EPIC의 문화는 어느새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삶의 자연스러운 방식이 되고

101) 김운용,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설교*, 124.

102) Leonard Sweet, *미래교회 성공 키워드 A to Z (A Is for Abductive)*, 김영래 역 (서울: 땅에 쓰신글씨, 2007), 186.

103) 김운용,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설교*, 127.

104) Daniel Yankelovich, *The Magic of Dialogue: Transforming Conflict into Cooperation* (New York: Simon & Schuster, 1999), 217; 김운용,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설교*, 127에서 재인용.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대 문화의 특징을 이해하고 그 방식 속에 능동적으로 들어가 살아갈 때 이 시대의 사람들과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나. 현대인의 변화된 특성

혁명적인 정보화의 영향 아래 현대인은 변화되고 있다. 김운용 박사는 정보화 사회란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사회 전체의 구조 및 인간의 사고, 행동 및 생활양식이 변화된 사회라고 규정한다.¹⁰⁵⁾ 메가 데이터의 정보화 시대는 현대인들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변화를 이끌고 있다.

첫째, 현대인은 동등한 커뮤니케이션을 원한다. 현대는 근대의 수직적인 의사소통에서 탈피하여 수평적 구조의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인은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전달자의 정보 전달을 수동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그 정보를 자신의 선호에 따라 취사선택하며, 자신의 의견을 능동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정보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수평적 구조의 환경을 추구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변화는 기성 세대들의 전유물이었던 정치계에서도 불고 있어 젊은 세대와 소통하기 위해 정치 콘서트를 하는가 하면 과감하게 그들을 정치의 쇄신을 위해 비상대책위원으로 영입하며 젊은이들의 소리를 수용하고 있다.

둘째, 현대인은 가상현실(virtual reality)에서 살아간다. 이미 보편화되고 일상화된 가상의 현실인 온라인상의 트위터, 페이스북, 또는 각종 동호회에서는 개인적인 사생활이나 정보의 교류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구매를 하고 불매를 하는 공동사회를 이루고 있으며, 각종 캠페인이나 시민운동 등이 이루어지는 총체적인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점점 개인화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상대적으로 이곳은 관계적인 욕구, 기능적인 욕구, 공리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장이 되며, 매일 반복되는 흥미 없는 일상생활에 활력이 된다는 면에서 사람들의 참여가 늘고 있다.¹⁰⁶⁾ 그러나 반면에 가상현실에서 이뤄지는 활동들은 독일의 사회학자 니클라스 루만(N. Luhmann)의 지적대로 “중심 없는 사회”로 가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¹⁰⁷⁾ 가상과 현실의 혼동, 인격적

105) 김운용,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설교*, 133.

106) 김운용, *다음세대를 세우는 설교*, 134.

인 면대면 교류의 단절, 사회적인 윤리성, 자살 사이트나 성적 만남을 갖는 곳과 같은 음성적이고 위험한 사이트의 생성은 사회와 인간의 삶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¹⁰⁸⁾

셋째, 현대인은 감동을 원한다. 이 시대는 기술이 감동을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통해 인간 삶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시대에¹⁰⁹⁾ 융합과학의 발달로 모든 멀티미디어의 복합적인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고도의 기술이 사람들의 오감에 만족을 주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마력에 취하여 만족을 누리는데 그치지 않고, 결국 그 기술이 인간을 더욱 외롭게 하고 따뜻한 심성의 인간미를 빼앗아 가고 있다. 기술문명이 발달할수록 현대인들은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보다는 삶에 대한 불안과 많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 심리학자 칼 융(Carl G. Jung)은 현대인들은 불안, 슬픔, 미움, 질투로 말미암은 고통이 수반된 삶 속에서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¹¹⁰⁾고 한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근대의 이성적인 사고방식과는 반대로 다시 영성의 세계와 초월적이며 신비로움을 더욱 추구하며 그것으로 감동과 위로받기를 바라고 있다.¹¹¹⁾

그러면 이러한 현대인의 변화에 맞춰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 것일까?

다.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패러다임

현대인의 생활방식과 가치관, 사회의 환경 구조가 변화되고 있다면, 사람들의 의사소통 방식도 변화되어야 한다.

첫째, 커뮤니케이션은 쌍방향적이다. 이제는 전달자만이 주체가 아니라 수신자도

107) 김운용, *다음세대를 세우는 설교*, 135.

108) 김운용, *새롭게 설교하기*, 66-67.

109) Ibid., 68. 유비쿼터스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정보통신망에 접속을 하여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예를들면,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집 밖에서도 집안을 들여다 보며 집안 일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모든 분야에서 적용하여 인간을 편리하게 할 수 있으나 반대로 전자 감시 시스템으로 심각한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존재한다는 우려가 있다.

110) 황인찬, "효과적인 설교를 위한 예수의 설교 커뮤니케이션 연구," 106.

111) 김운용, *새롭게 설교하기*, 68.

주체로서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여 메시지의 내용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생성시킬 수도 있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므로 대중연설이나 설교와 같은 일방적인 전달 형식의 커뮤니케이션이라 할지라도 수신자인 청중을 고려한 청중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둘째,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는 명확한 전달에 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 명확함이란 잘 들리는 것이다. 지난날의 명확함이란 명제적이고 개념의 전달을 위해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며 짜임새 있는 구조를 갖는 것이었다. 하지만 전자·영상 문화가 발달한 요즘은 현대인들의 듣는 스타일이 바뀌었다. 이제는 이미지와 은유, 이야기, 그리고 영상을 통해 전달자의 내용과 의도를 확실히 인식하게 된다. 그러므로 명확한 전달을 위해서는 언어가 수신자의 수준에 적합하며, 설명이 간단하고, 이야기와 이미지와 은유를 통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말하며, 중요한 부분은 반복하며 강조해야 한다.¹¹²⁾

셋째,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해야 한다. 현대인은 감성과 느낌을 신뢰한다. 그래서 의사소통에서도 말로 듣는 것보다도 전달자의 제스처, 음성적 특징, 침묵,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 등을 통해 전달자의 내용을 이해한다. 데이빗 호필드(David Hoffeld)는 *Delivery Matters*에서 미국 UCLA 교수였던 알버트 메라비안(Albert Mehrabian)의 연구를 인용하여 의사소통에서 말이 차지하는 비중이 7퍼센트, 목소리(음정, 억양, 크기 등)가 38퍼센트, 그리고 얼굴표현이 55퍼센트라고 한다.¹¹³⁾ 즉 의사소통의 가장 큰 비중은 순수한 언어 7퍼센트를 뺀 93퍼센트의 비언어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커뮤니케이션의 변화를 겪고 있는 현대인들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선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은 수신자에게 명확한 전달을 하기 위해 비언어적 요소를 적극 활용하여 전달자와 수신자 사이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다.

112) 황인찬, "효과적인 설교를 위한 예수의 설교 커뮤니케이션 연구," 109.

113) David Hoffeld, *Delivery Matters*, 12.

3. 수용자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의 최종 결정은 수용자의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혹은 그 결과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의 결정은 수용자가 한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선 수용자를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

가. 커뮤니케이션과 수용자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수용자는 단순하거나 수동적이지 않다. 그들은 쉬지 않고 그 과정을 해석하면서 즉석에서 전달자의 메시지에 대해 상호 작용을 하고 있다.¹¹⁴⁾ 그러므로 전달자에게는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수용자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첫째, 수용자들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드러내고 싶은 각자의 욕구가 있다.¹¹⁵⁾ 어떤 이는 위로를 원하고, 어떤 이는 물질적 도움이 필요하고, 어떤 이는 친구와 교제하고 싶어 하고, 어떤 이는 선택과 결정을 도움 받고 싶은 다양한 욕구가 있다. 그러므로 전달자가 수용자의 욕구를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 상호 의사소통할 때, 수용자로부터 삶의 변화가 성취되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된다.

둘째, 수용자들은 하나 이상의 집단과 관계를 맺고 있다.¹¹⁶⁾ 사람들은 모두 친척, 친구, 이웃, 동료 등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그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수용자가 전달자의 정보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이해하거나 결정하고, 결정을 다시 부인할 수도 있는 것은 집단에서 얻은 경험에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현명한 전달자들은 수용자의 배경이 되는 집단을 고려하여 개인과 집단의 상호 관계를 의식하고 개인과 집단 모두에게 호소한다.¹¹⁷⁾

셋째, 수용자들은 능동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의 과정 안에서 수용자들은 전달자가 보내는 기호와 커뮤니케이션의 환경을 통해 메시지를 해석하고, 전

114) Charles H. Kraft, *기독교 커뮤니케이션론 (Communication Theory for Christian Witness)*,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1), 129.

115) Charles H. Kraft, *기독교 커뮤니케이션론*, 131-132.

116) Charles H. Kraft, *기독교 커뮤니케이션론*, 134.

117) Charles H. Kraft, *기독교 커뮤니케이션론*, 135.

달자가 커뮤니케이션 안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하거나 보류하며, 전달자에게 피드백을 주어 전달자의 메시지 형성에 상호적인 역할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을 때 무슨 활동을 할지 결정한다.¹¹⁸⁾

이러한 이유로 유능한 전달자들은 수용자들에 대해 인식하고 충분히 그들의 입장을 파악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항상 간직하고 있다.

나. 커뮤니케이션 모델의 진화

커뮤니케이션 과정은 오랜 역사를 거치며 발전되고 있다. 최초의 커뮤니케이션의 주된 관심은 전달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수의 청중들에게 대중연설(public address)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관심은 점점 변화되어 전달자의 메시지를 듣는 수용자에게 이동되어 전달자 메시지 중심 개념(sender and message centered concept)으로부터 수용자 의미 중심 개념(receiver and meaning centered view)으로 바뀌었다.¹¹⁹⁾

본 연구자는 정병관의 *크리스천 커뮤니케이션*에서 소개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모델의 진화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샤논(Shannon)과 위버(Weaver)의 모델이다. 이들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하는 것이란 의미의 소음으로 인해 내용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전달자의 메시지는 수신자의 메시지와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를 발표함으로써 전통적인 개념 - 전달하는 메시지의 내용과 수신자가 받아들인 메시지의 내용이 같다 - 에 변화의 시작을 알렸다.¹²⁰⁾

둘째, 슈람(Schramm)의 모델이다. 그의 첫 번째 모델은 '경험의 장'(field of experience)의 개념을 도입하여, 전달자가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호는 전달자와 수신자가 공통된 경험의 장 - 공통언어, 공통배경, 공통문화, 기타 등등 - 이 많을수록 옹기 전달될 수 있다고 하며, 두 번째의 모델은 수신자의 피드백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전달자는 수신자가 되고, 수신자는 전달자가 된다고 생각하여 커뮤니

118) Charles H. Kraft, *기독교 커뮤니케이션론*, 138-146.

119) 정병관, *크리스천 커뮤니케이션*, 76.

120) 정병관, *크리스천 커뮤니케이션*, 77.

케이션은 일방적이 아니라 상호 순환적이라는 것과 전달자와 수신자의 메시지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였다.¹²¹⁾

셋째, 인코딩-디코딩 모델이다. 인코딩이란 전달자의 내용이 매체의 언어에 맞도록 재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¹²²⁾ 매체가 라디오라면 언어로, TV라면 영상으로, 광고라면 짧고 명확하게, 강단이라면 전달자의 몸과 언어, 표정 등으로 메시지가 적절히 변화되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또한 디코딩이란 인코딩된 메시지가 수용자의 선택적인 여과과정을 거쳐 수용자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 여과과정은 수용자가 메시지에 노출, 주목, 이해, 기억의 네 단계에 처한다는 것이며, 각 단계마다 수용자는 선택적으로 반응하게 된다.¹²³⁾

넷째, 메이어스(Mayers) 모델이다. 그는 '전달자를 수용하는가?'를 물으며 커뮤니케이션은 상호 신뢰 위에 구축되어야 하므로 전달자의 자격(competence), 신용(trustworthiness), 활력(dynamism)을 전달자의 신뢰성 결정요소라고 규정한다.¹²⁴⁾ 그러므로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의 관심이 그 모델의 진화를 통해 전달자에서 수용자로 관심의 초점이 옮겨지며, 덧붙여 전달자의 진정성을 찾는 데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변화되고 있는 크리스찬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포괄적으로 제시한 소가드(Sogaard)의 모델¹²⁵⁾은 성령을 의존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수신자에게 맞추어야 하며, 과정을 중요시해야 하고, 교회 중심이며, 근거 있는 정보를 나누어야 하고, 상호적인 관점이 고려되어야 하는 등의 7가지 내용을 통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임스 앵겔은 수용자 각자는 마음에 필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필터 속에는 개인의 세계관, 학력, 경력, 신조, 태도, 개성 등이 잠재해 있고, 이를 통해 수신자는 선택적 노출, 선택적 경청, 선택적 기억, 선택적 반응을 하며 메시지를 받아들인다고 한다.¹²⁶⁾ 임동욱은 "선택에 있어서 수용자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송신자가 아무리 설

121) 정병관, *크리스천 커뮤니케이션*, 78-79.

122) 정병관, *크리스천 커뮤니케이션*, 80.

123) 정병관, *크리스천 커뮤니케이션*, 81-82.

124) 정병관, *크리스천 커뮤니케이션*, 82-83.

125) Sogaard Viggo, *Media in Church and Mission: Communicating the Gospel*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1993), 105-106.

126) Engel, James F. *Getting Your Message Across* (Bloomington, IL: Media Associates International, Inc. 1989), 43-45.

득을 잘 할 수 있는 방법과 능력으로 메시지를 전하더라도 이를 수용자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수용은 잘 이루어질 수 없다.”¹²⁷⁾한다. 그러므로 포스트모던 시대의 커뮤니케이션의 주권은 수용자, 즉 청중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청중이 수용하고 청중이 변화되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변해야 한다. 청중 지향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의 변화, 이것은 포스트모더니즘이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도전이다.

제 3 절 포스트모더니즘과 설교 커뮤니케이션

설교는 상대와 함께하는 테니스와 같다. 마치 라켓을 들고 벽을 치며 혼자 하는 긴 연습에 불과한 것처럼, 두 사람이 서브(serve)와 리시브(receive)를 번갈아 주고받을 때 게임의 흥미가 더해지듯이, 설교도 전달자와 청중이 커뮤니케이션 되어야 효과적인 메시지의 전달이 이루어진다. 이제 성서와 강단의 권위 자체만으로 청중들에게 설교를 들어야 한다고 강요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성서와 강단이 권위 있는 것과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틀림없고 변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것이 곧 청중들이 무조건 설교를 수용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갖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기에 설교는 자연스럽게 청중에게 들려야 하는데 설교가 청중에게 커뮤니케이션 되지 않아 들리지 않는다면 청중들이 어찌 내용을 이해하고 삶의 변화의 동력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설교는 들려야 한다. 설교가 들리려면 일차적으로 설교는 전달자와 청중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 되어야 한다. 청중에게 설교가 들릴 때 그들이 설교를 해석하게 되고 비로소 설교는 완성된다. 또한 설교는 눈앞에 들려져야 한다. 김은철 교수는 “설교는 귀에 들리는 성만찬이고 성만찬은 눈에 보이는 설교이다”¹²⁸⁾라고 한다. 곧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가 들려져서 성도들을 초청하는 것처럼, 설교도 눈에 보이도록 들려져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초청하는 것이다. 이처럼 설교의 언어가 눈에 보이는 그림처럼 청중의 눈앞에 들려지려면 그 설교는 마땅히 청중과 커뮤니케이션 되어야 한다.

새로운 설교학 운동(the New Homiletics)을 이끌며 설교학의 혁명을 일으킨 크

127) 임동욱, *설득커뮤니케이션의 이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 104.

128) 김은철, *가슴 시원한 설교* (서울: 콤팩출판사, 2010), 137.

래독(Craddock)은 이미 1970년대에,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당시의 청중들에게 어떻게 복음의 말씀을 새롭게 듣게 할 것인가에 가장 큰 관심을 가졌다.¹²⁹⁾

설교를 어떻게 청중들에게 들리도록 할 것인가라는 쉽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는 이 시대의 설교자들 역시 포스트모더니즘의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첫째는 해체주의의 도전이다. 이로 인해 현대의 사람들은 절대 진리를 거부하려고 한다. 그래서 성경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한다.¹³⁰⁾ 둘째는 다원주의의 도전이다. 그래서 종교를 진리와 거짓의 차원이 아닌 다양한 인식의 차이로 믿게 한다. 그러므로 복음의 절대성을 외치는 기독교는 사람들의 눈에 아집과 독선의 종교로 비춰지고 있다. 셋째는 “감성 문화”¹³¹⁾의 도전이다. 현대는 필(Feel)과 감성지수라고 하는 EQ(Emotional Quotient)를 중요시한다. 그러므로 현대인들은 합리적이고 논리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을 지루하게 여기고 느낌과 이미지를 좋아한다. 넷째는 정보화의 도전이다.¹³²⁾ 사람들은 몸은 지역 교회에 출석하고 있어도 그의 믿음과 사상의 영향은 인터넷을 통해 다른 교회의 목사에게서 받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설교에서 사용되는 정보나 예화를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자리에서 검색할 수 있으므로 설교자는 정확한 정보를 사용해야만 한다. 게다가 현대의 많은 사람들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엔 나가지 않으면서도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예배나 설교를 경험하며 자신의 신앙을 나름대로 유지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청중에게 설교가 쌍방향으로 소통되며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은 설교자에게 주어진 크나큰 도전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설교가 커뮤니케이션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한다.

129) Fred B. Craddock, *권위 없는 자처럼 (As One without Authority)*, 김운용 역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3), 21.

130) 이몽용,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감동적인 설교를 위한 파토스 연구,” (Th.D. diss., 총신대학교 목회신학 전문대학원, 2011), 44.

131) 김운용, *새롭게 설교하기*, 88.

132) 김운용, *새롭게 설교하기*, 90.

1.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설교

설교 커뮤니케이션의 목표는 청중을 사로잡는 것이다. 청중이 설득되어 삶의 변화가 시작되려면 무엇보다 먼저 말씀에 사로잡혀야 하듯이, 포스트모던 시대에 살고 있는 청중들의 마음이 열리고 자연스럽게 설득되려면 명제나 합리적인 주장이 아니라 가슴을 시원케 하는 감동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청중을 사로잡는 설교 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설교 커뮤니케이션의 이해와 설교 커뮤니케이션의 구성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가. 설교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설교가 머무르는 곳은 청중의 삶의 자리이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청중이 대화하는 것이 설교 커뮤니케이션이다. 본 연구자는 설교의 이해를 위해 황인찬의 연구에서 역사적, 신학적 이해 부분을 인용¹³³⁾하여 정리하고, 다음으로 교회현장의 이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역사적 이해

역사적으로 설교는 20세기 중반에 들어 눈에 띄게 청중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으로 변화되었다. 기독교 수사학은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 등의 수사학자의 영향을 받은 어거스틴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는 성경적 사교의 바탕 위에서 웅변술을 활용한 설교자였다. 이어 계몽주의 아래 설교는 명제를 제시하고 그것을 서너 개의 대지와 예화를 곁들여 구성하여 설명하는 설교자 중심의 일방향성 커뮤니케이션의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포스트모던 시대로 접어들면서 설교는 차츰 청중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1950년대 데이비스(H. Grady Davis)는 설교는 유기체이며 청중을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설교 전달에 있어 이야기가 중요함을 주장했다. 데이비스의 주장은 설교

133) 황인찬, "효과적인 설교를 위한 예수의 설교 커뮤니케이션 연구," 43-51.

형식의 중요한 전환을 가져왔고, 이어 70년대 프래드 크래독은 설교의 방법론에 있어 청중 중심의 방법으로 귀납법적 전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80년대 이후 데이비드 버트릭(David Buttrick)은 언어가 마음속에서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지 그 현상을 보는 제3의 방법인 현상학적인 전개식 설교 형태를 제시했다.

1990년대에는 청중이 메시지를 받는 방식을 고려하는 설교가 제시되었는데, 루키 오르즈(Rookie Orz)는 에피소드로 연결되는 대화적 설교를 제시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 한국의 신학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의존하면서, 정장복 교수처럼 당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설교하되 반드시 성령님의 감화하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한다.¹³⁴⁾ 또한 김은철 교수는 설교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감동적인 영적 음식으로서 이 감동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라 말한다.¹³⁵⁾

그러므로 설교 커뮤니케이션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청중을 중심으로 변화되어 오고 있다.

(2) 신학적 이해

설교가 청중이 수용하는 커뮤니케이션임을 이해하려면, 첫째,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커뮤니케이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하나님을 일컫는 삼위일체라는 표현 속에서 삼위 하나님은 서로 관계하시며,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¹³⁶⁾ 또한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커뮤니케이션 하실 뿐만 아니라 청중인 인간이 수용할 수 있도록 그들과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간의 수용을 위해서 여러 가지 통로로 커뮤니케이션 하신다.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꿈과 환상으로 보여주시며,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인간

134) 정장복, *한국교회의 설교학 개론*, 70.

135) 김은철, *가슴 시원한 설교*, 30-31.

136) 성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구절이 많이 있다. 창 1:26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 마 17:5의 “…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 요 3:35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요 16:7의 “…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 등은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이 서로 관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 소통해 오셨다. 그중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의 최고 절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요한복음 1:1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선포한 후 1:14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말씀한다. 이는 결국 “성육신이 인간이 사는 곳에 의사 전달하는 최종적 통로”¹³⁷⁾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간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친히 고통을 당하시며 죽으심으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보여주셨다. 그리하여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중재하셨으며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셨다.

둘째, 설교는 ‘하나님 - 설교자’, 그리고 ‘설교자 - 청중’의 이중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설교자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 말씀의 깊은 이해를 다시 청중들의 언어로 전하게 된다. 이때 설교자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커뮤니케이터인 것처럼, 설교자 또한 청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도록 전달하는 커뮤니케이터이다.

마지막으로 성례전은 김은철 교수의 표현처럼 눈에 보이는 설교로서 커뮤니케이션이다. 설교가 언어의 커뮤니케이션이라면 성례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먹고 마시며, 가슴으로 느끼는 종합적인 가시적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러므로 그동안 목회자 중심으로 행했던 성례전의 횡수와 예식의 의미와 내용을 청중을 지향하여 변화를 준다면 그들이 조금 더 깊이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교회 현장의 이해

설교가 청중과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다는 것은 청중들이 설교를 자신의 이야기로 듣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해해야 할 것은 먼저 현대 교회의 청중들은 메시지를 온 몸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멀티미디어에 노출된 청중들은 집중하여 듣고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설교보다는 눈으로 그려지는 설교를 선호한다. 그래서 지성이 작동하는 논리적인 명제보다는 말씀에 따라 사람이 실제로 변화된 이야기체의

¹³⁷⁾ Charles H. Kraft, *복음과 커뮤니케이션 (Jesus, God's Model for Christian Communication)*, 김동화 역 (서울: IVP, 1991), 21.

설교를 좋아한다. 그것은 귀로 들리는 동시에 눈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떠올라 더 깊은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¹³⁸⁾

또한 현대인들은 참을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TV를 시청하면서도 지루하다 싶으면 한 손에 쥐어진 리모콘으로 다른 채널을 선택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자신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강단에서 울려 나올 때 귀를 닫고 공상을 하거나 눈을 감아 버린다.

그러므로 현대의 청중들에겐 무엇보다도 설교 안에 자신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접점과 그들이 머물 수 있는 방이 필요하다. 청중들은 그들의 삶이 설교 안에서 고려되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가 이미지와 은유로 표현되어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예수님의 이야기 안에서 들려지길 원한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보고 싶어한다. 그때 감동을 갖게 되면 예수님 안에 머무르게 된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어라'의 시대가 아니라 '경험하고 예수를 믿어라'라의 시대이다. 그러기에 더욱 청중이 설교 안에 머물러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 설교는 청중들과 커뮤니케이션 되어야 한다.

나. 설교 커뮤니케이션의 구성요소

하나님은 항상 신부 곁에 있고 싶은 어제 결혼한 신랑 같다. 하나님은 매순간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의 목표는 “자신에 대한 응답자들과의 인격적인 관계이다.”¹³⁹⁾ 결국 설교 커뮤니케이션은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 목표를 이루는 도구이다. 그러므로 설교 커뮤니케이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본 연구자는 라스웰이 정의한 커뮤니케이션 구성요소에 따라 설교 커뮤니케이션의 구성요소를 규정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전달자이다. 그는 곧 설교자이다. 포스트모던 시대에 효과적인 설교를 전달하는 설교자에게는 메시지의 수용자인 청중을 이해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그의 메시지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도록 윤리와 도덕적으로 정직과 투명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 외에도 청중들의 눈에 메시지가 그려지도록 은유와 이미지

138) 계지영, *현대설교학개론* (서울: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161.

139) Charles H. Kraft, *기독교 커뮤니케이션론*, 87.

가 풍성한 이야기체로 풀어낼 수 있는 창의성을 갖는 것은 청중들에게 마치 맛있는 음식을 맛본 후 뒤에 나올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설교를 기대하는 즐거움에 빠지게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메시지이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금과 옥과 같은 말씀이라도 이것이 청중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그들의 입장에선 단지 울리는 팽과리의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메시지는 철저하게 청중의 삶과 관련 있어야 한다. 따라서 청중 지향적인 효과적인 설교는 성경 텍스트에서 보여주는 고대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죄의 문제와 고통과 갈등이 현대의 청중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깊은 주해를 통해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보여주며 희망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때 더욱더 선한 사람이 되라 또는 영적훈련을 실천하라는 식의 메시지는 성도들의 신앙을 손상시킬 위험이 크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내는데 초점을 맞추어 행위로서 의로워질 수 있다고 가르치는 설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¹⁴⁰⁾ 그러므로 효과적인 설교 커뮤니케이션의 메시지는 죄인인 나, 늘 실패하는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초점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희망을 선포하며 청중을 그리스도께 초청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메시지의 전달 수단인 매체이다. 청중은 매체를 통해 메시지를 수용한다. 대개 설교자는 언어라는 매체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러나 청중의 입장에선 비언어적인 매체에 의해 전달받은 것을 더 크게 이해한다. 그러므로 설교자의 언어뿐 아니라 음성의 다양한 변화, 제스처, 침묵, 복장, 미디어의 활용, 그리고 설교를 듣는 환경 등의 비언어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포스트모던 시대에 영양가 있는 설교를 더욱 맛있게 하는 필수 양념이다.

네 번째는 청중이다. 포스트모던 시대에는 청중이 주권자이다. 사회는 이미 오래 전에 손님이 왕인 시절이 도래했는데, 아직도 교회만은 설교자가 왕인 시대를 살고 있다. 설교 커뮤니케이션에서 청중을 고려하는 것은 설교자가 변해야 할 가장 크고 중요한 패러다임이다. 설교의 해석은 청중의 몫이므로 자신이 수용한 메시지가 그의 삶의 변화에 영향력을 주는지 못 주는지는 청중의 수용 여부에 달려 있다. 그래서 청

140) Bryan Chapell,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Christ Centered Preaching)*, 김기제 역 (서울: 은성, 2007), 360-365.

중에 의해 비로소 설교가 완성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이제 ‘청중이 왕’인 자세로 권좌에서 내려와 청중의 삶의 자리와 그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청중 지향의 설교로 변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효과적인 성령의 역사이다. 설교는 매체라는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는 성령의 역사이다. 설교는 수용자를 설득하는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목적보다 더 높은 청중의 변화를 목적으로 삼고 있다. 청중의 지성, 감정, 의지와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설교 커뮤니케이션은 성령의 역사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해돈 로빈슨(Haddon W. Robinson)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령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실 수 있다. 여러분은 설교를 그에게 맡겨야 한다.”¹⁴¹⁾라고 하며, 정장복 교수는 설교에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잠자는 영혼과 죽어가는 영혼을 수없이 깨우쳐 온 것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의 신비적인 역사 (mystical work)로서 지금까지 존재해 오고 있다. 이것은 유능한 설교자 때문이거나 또는 성실한 회중 때문이 아니다. 설교란 성령님의 역동적인 사역 아래서 (under the dynamic of the Holy Spirit) 이룩된다.¹⁴²⁾

김은철 교수는 “설교하는 자는 인간이지만 나타나시는 분은 성령님이다.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설교를 온전히 사용하실 때 설교자의 모습과 언어는 점점 사라지고 오직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이다.”¹⁴³⁾라고 한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설교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설교자가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사용하는 것에 앞서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 이것이 일반 커뮤니케이션과 구별되는 설교 커뮤니케이션만의 독특한 차이이다.

설교를 통해 청중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 커뮤니케이션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설교는 각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전달자, 메시지, 전달매체, 청중, 그리고 이 모

141) Haddon W. Robinson, *강해설교 (Biblical Preaching)*, 박영호 역 (서울: CLC, 2007), 280.

142) 정장복, *한국교회의 설교학 개론*, 338-339.

143) 김은철, *가슴시원한 설교*, 26.

든 것을 가장 효과 있게 다루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다섯 가지 구성요소는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래서 설교는 종합 예술 작품이다.

2. 감성적 설교전달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설교는 오관으로 전달된다. 인간은 오관을 통해 정보를 흡수하는데, 시각 83퍼센트, 청각 11퍼센트, 후각 3.5퍼센트, 미각 1.0퍼센트, 촉각 1.5퍼센트의 흡수 능력이 있다.¹⁴⁴⁾ 그래서 유통업계에서도 소비자의 눈, 코, 입을 사로잡는 오감 마케팅¹⁴⁵⁾이 활발하여 매장에서 향기가 나거나 제품에서 소리가 나도록 고안하여 효과를 보고 있다.

설교가 오관을 통해 전달된다는 면에서 먼저 감성과 감정이란 단어는 비슷하게 사용되기도 하나 그 의미는 아주 다르다는 것을 밝히고 싶다. 감정(feeling)이란 주관적인 것으로서 어떤 현상이나 사건을 접했을 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이나 기분을 말한다.¹⁴⁶⁾ 우리의 선조들은 이것을 희(喜), 노(怒), 애(哀), 락(樂)이라는 말로 기쁨, 슬픔, 화남, 즐거움을 감정이라 표현했다. 하지만 감성(sensibility)은 오관으로 체험하는 인간의 인식능력¹⁴⁷⁾이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사람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시대와는 다르게 정보를 느끼고 경험하여 인식하는 경향이 크다. 그러므로 포스트모던 시대의 설교는 청중의 오관에 효과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전달되어야 한다. 본 연구자는 이것을 감성적인 설교 전달이라 부르하고자 한다. 이 부분에서는 감성적인 설교전달을 위해 설교 커뮤니케이션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을 밝히고자 한다.

가. 전달 인식의 변화

커뮤니케이션은 전달되어야만 커뮤니케이션이다. 나의 말하는 것, 행하는 것, 나의 가지고 있는 오래된 습관, 얼굴의 표정, 말할 때 나는 소리, 패션의 취향 등, 나의 모든 모습이 상대방에게 전달되고, 상대방은 그것들을 통해 나를 해석하며 나와 소통

144) “기독교와 과학”, Online: <http://cfile230.uf.daum.net/attach/17260A044BD7CDBA6D0ADF>

145) “유통업계 오감마케팅,” 경향신문 (2011년 3월19일자). Online: <http://news.khan.co.kr/>

146) “감정”, 두산백과사전, Online: <http://www.naver.com>

147) “감성”, 두산백과사전, Online: [hppt://www.naver.com](http://www.naver.com)

한다. 그러므로 나와 타인 사이에 올바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나의 의도가 삶 전체를 통해 잘 전달되어야 한다.

그런데 수많은 교회 강단의 전달력에 문제가 있다. 한국 교회는 교회의 사회적 이미지가 추락하고 성도의 수적 감소를 보며 교회의 위기를 논하고 있는데 그 위기의 원인은 1인칭의 신앙을 추구하는데 있다. 1인칭의 신앙은 나, 나의 자녀, 나(우리)의 집, 그리고 나(우리)의 교회의 성공을 부추긴다. 그 결과 성숙이 아닌 성장을 축복의 열매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성장이 축복이라는 개념이 확산되어 현세 기복적이며 더 나아가 황금만능주의가 교회 안에 용인되었고, 경제개발의 붐과 같이 성도도, 교회도 모두 성장제일주의가 삶의 척도가 되었다.¹⁴⁸⁾ 이로 인해 한국교회는 대사회적인 공적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 배만 채우는 욕심쟁이로 비춰진다. 이 위기가 어디에서 온 것일까? 그것은 설교 강단에서 올바르게 전하지 않았거나, 또는 올바르게 듣지 못한 데 있다. 따라서 교회의 위기 중심에는 설교가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왜곡된 신앙의 정체성을 바로잡고 스스로의 자정을 위해 설교의 내용과 전달방법에 있어 동시적인 변화가 시급하다. 그 중 본 연구의 주제인 설교의 전달 측면에서 볼 때 설교 전달 방법의 변화는 청중을 변화로 이끄는 마중물과 같다. 설교전달방법의 변화의 필요성을 쟈센(Richard Jensen)은 이렇게 말하였다.

교회 안의 위기는 신속하게 다가오는 전자통신의 세계를 인식하고 적응하지 못한 데 있다. 사람들은 미디어에 의하여 변화되었다. 변화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기 위하여, 교회는 변화된 방법으로 말씀을 전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너무나 늦게 교회에 오고 있다. …… 사람들이 미디어에 의하여 변화되었으므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설교는 중대한 변화를 거쳐야 할 것이다.¹⁴⁹⁾

설교를 통해 청중들이 원하는 것은 치유¹⁵⁰⁾이다. 김은철 교수가 설교의 최고의

148) 이학준, *한국교회 패러다임을 바꿔야 산다*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1), 40-41.

149) Richard Jensen, *Thinking in Story* (Lima, OH: C.S.S, 1993), 45-46.

150) 김은철,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적 설교” (강의,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pring 2011). 김은철 교수는 그의 강의에서 설교의 치유적 기능에 대해,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 (Blessing)하고 지혜 (Wisdom)를 주며 자신의 악함과 연약함을 인정 (Recognition)하게 하여 교만과 열등감에서 벗어나 겸손과 자신감을 갖게 하며 무너진 곳에서 희망 (Hope)을 바라보게 하고 삶의 이유 (Reason for living)을 발견하여 더 가치있는 삶을 살도록 전인적인

목적은 “깨어진 인간의 감성과 영혼을 치유”¹⁵¹⁾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듯이, 주일 아침 교회에 나온 청중들은 삶에서 일어나는 원치 않는 상황과 문제, 그로 인한 염려와 두려움, 그리고 영혼의 고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치유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까지 변화되고 싶어한다. 그러나 강단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맘뭉이즘에 물든 세상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며 상처 속에서 위로와 힘을 바라는 청중들에게 가슴을 시원케 하기는커녕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머릿속에 그려지지도 않는 지루하고 따분한 설교를 하고 있다. 제 아무리 설교자가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주해하여 진한다 하여도 청중이 듣지 않으면 설교는 커뮤니케이션 되지 않은 것이다. 그때 청중들은 또다시 마음에 해갈을 느끼지 못한 채 육중한 예배당의 문을 힘겹게 밀고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세상 속으로 끌려 들어간다.

많은 설교자들의 문제는 설교는 커뮤니케이션이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야하는 커뮤니케이터란 사실 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체계의 중요성을 간과하여 그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하려고도 배우려고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설교자는 설교가 청중에게 들리고 청중의 삶을 치유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설교 전달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전달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설교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이었던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청중은 거룩한 말씀을 들어야만 하고, 듣고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의식을 고집하는 것은 포스트모던 시대의 변화된 청중에게 설교자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스스로 위로하는 자기 합리화이며 책임회피이다.

한편, 정장복 교수는 한국 교회 설교의 위기는 설교를 경청하지 않는 청중에게 2차적인 책임¹⁵²⁾이 있다고 한다.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마음은 교회 밖에 있음을 지적하고, 아픈 설교를 외면하고 있으며, 설교자에게 말씀을 준비할 시간과 여건은 주지 않으면서 말씀이 빈약한 것만을 지적하는 모순¹⁵³⁾을 갖고 있는 것이 청중들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청중들이 설교에 집중을 못하

치유로 이끈다고 한다.

151) 김은철, *가슴 시원한 설교*, 12.

152) 정장복, *한국교회의 설교학 개론*, 327.

153) 정장복, *한국교회의 설교학 개론*, 328.

고 설교를 아프게만 느끼고 회개와 변화의 기회로 살리지 못하는 것 역시 설교자의 전달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포스트모던 시대의 설교자는 설교의 전달을 위해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야 한다. 예수님은 언어적으로 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방법으로도 메시지를 전달 하셨다. 그는 침묵하기도 하고, 소리를 높이거나 낮추며, 웃거나 울기도 하고, 비유와 이미지를 사용하고, 청중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나 창조적인 언어의 이야기로 설교 하셨다. 이러한 예수님의 설교 전달 방법은 이 시대의 청중들이 정보를 수용하는 방식과 일치하므로 설교자들이 예수님에게서 그 방법을 배우는 것은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설교자는 그동안 해왔던 자신의 전달 방법에 대해 성찰하고 시대정신에 맞는 전달방법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것이 불통과 독선의 설교자를 지금까지 참아주며 언젠가는 나아질 것이라고 기다려주고 있는 관대한 청중들에 대한 예의이다.

나. 청중 지향적 설교

설교를 갖는 이는 청중이다. 허공에 대고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자는 아무도 없듯이 이사야서 55장 1절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라고 말씀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는 인간의 삶과 사회 구조 속에 변화(transformation)을 가져온다.¹⁵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청중에게 치유와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그 능력이 설교자의 능력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설교자들이 이것을 혼동하여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자가 곧 거룩하고,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곧 능력 있는 줄 착각한다. 그래서 설교자의 권위를 스스로 세우고자 하나, 청중의 정서를 배려하지 않으면서 인위적으로 설교자의 권위를 드러내려는 것의 역효과 대해 크레독은 우려했다.

강단의 구조가 설교자는 내려다보게 되어 있고, 청중은 올려다보

154) Fred B. Craddock, *권위 없는 자처럼*, 62.

게 되어 있다. 설교가 시작될 때 예배당 안의 불빛은 약해지는 반면 강단에는 설교자를 강하게 부각시키는 조명이 밝혀진다. 청중은 자신의 정체성을 감추는 어두움 속으로 사라진다. 강단이 높이 올려지는 것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것일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 들어와 성육신하시는 개념과는 반대되는 모습으로 부각되고 있다. 더군다나 말씀의 배열은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의 관계성의 전형적인 모습을 확증하는데,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로부터 제거되고 오직 설교자의 배타적인 책임 영역만 만들어 내고 있다.¹⁵⁵⁾

포스트모던 시대의 청중은 설교를 들으면서 동등한 대접을 받기 원하고 설교 속에 참여하길 원한다. 설교자가 청중인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있고, 자신을 위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느낄 때 청중은 그 설교를 자신 안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것은 설교가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인지, 삶을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마지막 결정권¹⁵⁶⁾을 설교의 수령자인 청중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설교자에게는 청중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필요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 전략의 기초는 지금보다 더 청중 지향적이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설교자는 권위적인 강단에서 내려와야 한다. 그것은 강단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가 청중을 바라볼 때 부족하고 무지한 청중들에게 가르치는 입장을 갖지 말라는 것이다. 설교자가 청중들에 대하여 제 3 자의 입장을 취한 채, 그들을 나의 형제요 자매가 아닌 단순히 내가 가르치고 지도하는 자들로 생각한다면 그들의 눈에 설교자는 권위자의 모습으로 비춰질 것이다.

따라서 설교를 두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라 하는 것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설교자의 책임뿐만 아니라 청중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는 더욱더 청중을 고려하고 청중들은 더욱 적극적인 피드백을 통한 참여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설교가 청중들의 오감에 수용되어 그들이 설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먼저 설교자가 청중 지향적인 설교를 해야 한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을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셨다.

155) Reuel Howe, *Partners in Preaching* (New York: Seabury Press, 1968), 35, Fred B. Craddock, *권위 없는 자처럼*, 52-53에서 재인용.

156) Charles H. Kraft, *기독교 커뮤니케이션론*, 129

사람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시며 그들의 시장언어를 사용하시고 그들의 가장 취약한 것 뿐 아니라 강점까지도 아실만큼 그들의 습관과 문화를 이해하셨다. 그들과 더불어 먹고 그들보다 높이 서 있는 선생이 아닌 그들의 친구로서 부풀려 말하지도 않으셨고 그들이 알아듣지도, 감당하지도 못할 말씀을 하지 않으시며 친구들인 그들이 참 잘 되기를 바라며 말씀하셨다.

이렇듯 설교자가 설교자의 이름을 벗고 친구란 이름으로 웃 입을 때 진정한 청중 지향적 설교를 할 수 있다.

다. 땀 흘리는 커뮤니케이터

‘No Sweat, No Sweet,’ 노력 없이는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말은 모든 분야에 해당되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이다.

설교엔 왕이 없다. 특히 포스트모던 시대에는 유명한 설교자는 있어도 모든 사람에게 수용되고 영향을 주는 설교자는 없다. 설교를 위해 더 성실히 땀 흘리는 것이 청중의 귀에 들려지고, 청중의 눈앞에 들려져서 청중을 사로잡는 설교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 땀 흘려야 하는 것인가?

첫째는 주해를 위한 땀이다.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내용이다. 고대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발견하는 것은 본문에 대한 주해의 땀을 흘리는 것과 비례한다. 본문에서 나타나는 삶의 갈등을 오늘날에도 볼 수 있으며, 그 갈등이 나의 삶과 연관지어질 때, 그리고 그 갈등이 해결되는 것을 볼 때, 청중은 나의 삶에서도 그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말씀 속에서 빠져 나가지 못하게 된다.

둘째는 세상 이해를 위한 땀이다. 이 시대의 사람들 중 누구도 세상에 나타나는 문제와 상관없는 사람이 없다. 현대의 사람들은 모두 관계성 안에서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각종 질병, 정신적인 스트레스, 죽음, 경제적 파탄, 불평등, 비인권, 무정의, 전쟁, 폭력 등은 내가 겪고 있는지 나의 가족 또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중 누구는 꼭 겪고 있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청중들이 설교를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공부하는데 땀을 흘려야하고, 이 모든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철학적인 사고 위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노력을 쉬지 않아야 한다. 동시에 정직함과 투명함을 기대하는 청중들에게 설교자가 아는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도 신뢰와 진정성을 주는 좋은 방편이다. 현대의 청중들은 누구도 이 세상의 현상을 다 알고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는 다리를 놓기 위해 흘리는 땀이다. 현대의 설교자는 고대와 현대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간격에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고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을 사는 청중들에게 전달하는 커뮤니케이터이다. 청중들은 설교자가 놓은 다리를 건너 고대와 현대를 여행하는데, 튼튼한 다리일수록 청중들의 정확하고 안전한 왕복여행을 도와준다. 그러므로 튼튼한 다리를 만들기 위해선 반드시 땀이 필요하다. 가장 좋은 재료를 구하고 함량을 속이지 않은 정직한 시멘트를 만들며, 바람과 수압과 유속의 환경을 계산하여 균형 있는 다리를 세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설교전달을 위해 연구와 반복된 훈련이 필요하다. 그때 비로소 설교자의 땀으로 만들어진 좋은 다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청중에게 건너가 역사한다.

넷째는 기도의 땀이다. 설교는 청중을 위한 일이지만 영적인 일이다. 영적인 일은 설교자의 노력과 계산을 뛰어넘는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이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아니면 그 내용을 깨달을 수도 없고 말씀의 생명력을 경험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한 편의 설교가 준비되기 시작할 때부터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설교문을 완성한 후에도 그것을 제단의 제물로 드리며 기도하며 설교를 시작할 때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설교가 끝난 후에도 말씀의 생명력의 지속됨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이렇듯 설교는 그 시작부터 끝까지 기도의 땀을 흘려야만 하는 고된 사역이다. 마치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 전날에 겻세마네 동산에서 땀과 피를 흘리며 기도하신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땀에 젖은 설교를 받으시고 청중들의 삶을 변화시키신다.

이렇듯 한 편의 설교는 설교자의 땀 속에서 태어난다. 그 땀은 청중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진정 가치 있는 땀이다. 설교자의 이마에 맺힌 구슬땀이 땅에 떨어질 때 그곳에서 한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달콤한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그러므로 설교자가 말씀의 연구, 세상의 이해, 설교의 전달,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위해 정직한 땀

을 흘리는 것은 말씀에 맡은 자의 사명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시대이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중들은 과거의 것을 더욱 강화하거나 조금 변형된 생활방식으로 살기를 원하기도, 살수도 없다. 그들의 생활방식과 사고체계는 변했다. 모더니즘을 거부하며 그것에서 분리되어 완전히 새로워진 이들에게 여전히 옛 향수에 젖은 설교 커뮤니케이션으로 다가가는 것은 잠시 성령의 역사를 뒤로하고 인간적인 면에서만 본다면 복음을 활동력 없는 신화속의 박제(stuffing)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설교자들은 강단의 회복과 더불어 교회의 회복을 바라보며 청중이 소유하는 설교를 위해 변화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해야 한다.

제 3 장

설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제 1 절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결레인가?, 문화인가? 2013년 4월 22일, 박근혜 대통령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의 만남에서 두 사람의 악수하는 모습이 한국사회의 큰 화제가 되었다. 아무리 성공한 세계적인 기업의 회장이라 하더라도 한 국가의 정상과 만나는 자리에서 한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악수를 했다는 것을 무례한 행동이라고 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은 미국식 문화이므로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했다. 이 사건은 비언어적 행위가 의사소통 과정의 하나의 요인이며, 사회적 상황 속에서 다양한 의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비언어적 행위의 이해와 효과적인 사용방법을 익히는 것이 사회생활의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즉, 의복, 시선, 미소, 자세, 주변의 환경을 살피는 것은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는 것만큼 중요하다.¹⁵⁷⁾

최근 LA 다저스(Dodgers)에 입단한 투수 류현진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2013년 5월 6일 MK스포츠의 보도에 따르면 포수 엘리스(A.J Ellis)가 클러브로 류현진의 엉덩이를 치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 사진만으로도 엘리스가 힘든 경기를 치루고 있는 류현진을 격려하는 것이란 걸 알 수 있다.

이처럼 의사소통에서 비언어적 행위는 어떤 경우에는 언어적 행위보다 더 큰 의미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에서 볼 수 있는 비언어적 행위의 기능을 연구함으로써 설교의 전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구성요소를 밝혀 보려고 한다.

¹⁵⁷⁾ Mark L. Knapp, and Judith A. Hall,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Nonverbal Communication in Human Interaction)*, 최양호, 민인철, 김영기 역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2), 29.

1.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정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단어 없는 커뮤니케이션이다.¹⁵⁸⁾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정의가 학자들의 견해차에 따라 상이하지만 언어를 제외한 커뮤니케이션을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데는 일치를 보고 있다.

버드휘스텔(Birdwhistell, 1970)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비언어적 신호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라고, 버코(Berko, 1981)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연구범위를 몸의 움직임, 외양, 목소리의 특징, 공간과 거리의 사용까지 구체화했고. 도드(Dodd, 1982)는 ‘몸짓이나 시간 또는 공간을 상징으로 하여 의사를 표현하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골드haber(Goldhaber, 1983)는 ‘언어를 제외한 메시지’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했으며, 사모바, 포터와 제인(Samovar, Porter, & Jain, 1981)은 ‘커뮤니케이션 상황 내에서 송신자와 수신자에게 잠재적 메시지 가치를 갖고 있는 인간이나 환경에 의해 야기된, 언어를 제외한 자극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정의했다.¹⁵⁹⁾

따라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란 음성적인 특징, 신체의 움직임, 얼굴의 표정, 시간과 공간의 활용, 주변의 환경 등을 이용하여 언어적 의사전달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의사전달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및 기능

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비언어는 감정을 표현하는데 있어 언어보다 세심하고 정직한 면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 언어로 말하지 않은 숨겨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에서 비언어적 행위의 중요성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¹⁶⁰⁾ 첫째, 비언어적 행위는 상대방이 말하지 않은 숨은 의미, 즉 느낌과 감

158) 최윤희,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1999), 11.

159) 이현경, “비언어 전달행위가 커뮤니케이터 공신력 평가에 미치는 영향,” (Ph.D. diss., 광운대학교 대학원, 2006), 9.

정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친구가 평소의 태도 이상으로 애써 밝고 씩씩한 행동을 한다면 친구는 지금 갑자기 생긴 슬프고 힘든 일을 참아내고 있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비언어적 행위는 무의식적으로 잠재의식을 반영한다. 사람들은 보통 어느 정도는 언어를 통제하긴 하나, 무심결에 비언어적 행위에서 실수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범인의 심문 과정에서 범인이 능숙하게 거짓말을 하더라도 어느새 흘리는 미세한 비언어적 단서에 의해 범행의 증거를 잡을 수 있다. 셋째, 의사소통에서 비언어적 차원은 항상 존재한다. 즉, 침묵을 한다 해도 그것이 곧 의사전달이다.

그러므로 비언어도 언어만큼이나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실은 설교자가 단순히 고정된 자세로 설교 원고에서 눈을 떼지 않고 설교문을 읽어 내려가거나, 비음성적인 특징들을 무시한 채 일정한 음색으로 설교원고를 읽는다면 설교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임을 말해준다.

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기능

비언어는 언어를 해석하는 열쇠이다.¹⁶¹⁾ 비언어적 행동은 언어와 함께 어울려서 청자의 해석을 돕는다. 에크만(Ekman)은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반복, 상반, 보완, 강조, 대체, 규제의 6가지 역할로 체계화하였다.

160) Carley H. Dodd, *문화를 초월하는 역동적 커뮤니케이션 (Dynamics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임현만 역 (서울: 그리심, 2008), 220-221.

161) 최윤희,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22.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기능	의미	예
반복 (repeating)	언어적 메시지를 반복하는 역할	“어서와”라고 말하면서 손짓을 하는 행위
상반 (contradicting)	언어적 메시지와 상반되는 역할	경쟁자의 발전을 축하한다고 말하면서 표정이 굳어 있는 것
보완 (complementing)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태도나 의도를 잘 나타내 주는 역할	강단의 연사가 중요한 대목에서 주먹을 쥐거나 탁자를 치는 행위
강조 (accenting)	언어적 메시지를 강조하는 역할	연인을 만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살며서 포옹을 하는 행위
대체 (substituting)	언어적 메시지를 대신하는 역할	말을 못하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수화, 연인사이의 윙크
규제 (regulating)	커뮤니케이션 흐름을 규제하는 역할	말을 끝나치면서 상대방의 눈을 응시한다든가 말의 끝부분을 낮추는 행위

〈표 5〉 에크만 (Ekman)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기능¹⁶²⁾

게다가 최윤희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앞의 에크만의 기능을 근거로 메시지 생산과 처리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첫 번째 기능이며, 두 번째는 외모와 목소리를 통해 자아 또는 이미지를 표출할 수 있으며, 세 번째는 관계를 표현할 수 있고, 네 번째는 몸, 얼굴, 눈을 통해 정서 상태, 곧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을 나타내고, 다섯 번째는 눈을 크게 뜨기, 눈 깜박거리기, 거짓 웃음, 말 더듬기, 목소리 높이기 등으로 혼합된 메시지를 주어 속이기의 기능을 가질 수 있고, 여섯 번째는 목소리, 응시, 제복 등을 이용하여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¹⁶³⁾

162) P. Ekman, *Communication Through Nonverbal Behavior: A Source of Information about an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Affect, Cognition and Personality*, 178; 이현정, “비언어 전달행위가 커뮤니케이터 공신력 평가에 미치는 영향,” 14에서 재인용.

163) 최윤희,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23-28.

3.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행위 유형

비언어적 행위는 언어를 보게 한다. 유능한 강연자(speaker)들이 대체로 청중들을 공감시키는데 능한 이유는 그들의 의사소통은 눈에 보이는 것 같기 때문이다. 에드워드 홀(Edward T. Hall)은 “인간은 소리 나는 언어를 통하여 말을 하는 것에 추가하여 보내는 소리 없는 언어 속에서 진정한 감정을 소통하고 있다. 그것이 곧 가시적 표현이다.”¹⁶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므로 소리 없는 언어인 비언어적 행위의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주는 환경

환경은 분위기를 조절한다. 커뮤니케이션에서 환경적 요인들이 의사소통을 이끌어가는 직접적인 커뮤니케이터보다는 덜 영향을 미치지만 커뮤니케이션의 목표를 이루는데는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왜냐하면 환경적인 요인들이 인간의 기분과 단어의 선택, 행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¹⁶⁵⁾.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효과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가구나 내부 장식, 조명의 색깔, 온도, 잡음이나 음악 등을 고려하게 된다. 특별한 경우에는 청중을 위해서 청중에게 익숙한 소품이나 향기 등을 이용하여 청중이 마음을 열고 의사소통에 집중하도록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하며, 화자와 청자 사이의 관계성을 고려하여 대화의 거리도 조절하기도 한다.

나. 커뮤니케이터의 외형적 매력

외형적인 매력은 신뢰를 준다. 현대인들은 외모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여성들이 화장을 하고 인공 손톱과 매니큐어를 바르거나 컬러 콘택트렌즈를 착용하고 향수를 뿌리는 것이나, 남성들이 수염을 기르거나 면도를 하고 가발을 쓰는 것은 자신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한 노력이다. 게다가 얼굴이나 몸매를 위해 성

164) Edward T. Hall, *The Silent Language* (Greenwich, CT: Fawcett Publications, 1969), 10; 정장복 외, *설교학 사전* (서울: 예배와설교아카데미, 2004), 652에서 재인용.

165) Mark L. Knapp, and Judith A. Hall,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10.

형수술을 하거나 피부를 벗겨내는 박피수술을 하기도 한다. 미국인들은 매년 100만명 이상이 성형수술을 받는데 이들 중에 10-15퍼센트는 남성이라고 한다.¹⁶⁶⁾ 그것은 내적인 매력도 중요하지만, 외적인 매력이 인간 대 인간의 만남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햇필드와 스프레처(Hatfield & Sprecher, 1986)는 신체적 매력을 지닌 사람들이 성공, 성격, 인기도, 사교성, 성적 매력, 설득력, 행복 등의 평가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높은 평가를 받는다고 밝혔다.¹⁶⁷⁾ 그러므로 설득력에 영향을 주는 커뮤니케이터의 외형적 특성으로는 체격, 체형, 신장, 체중, 머리 모양, 피부, 몸의 냄새와 같은 커뮤니케이터의 신체와 그가 착용하는 옷, 화장, 액세서리, 안경, 가발, 핸드백 같은 인위적인 물품이 있다.

다. 커뮤니케이터의 행위

행위는 언어를 강화한다. 대화하는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몸을 접촉하기도 하고, 팔과 다리의 움직임, 얼굴 표정이나 시선, 그리고 목소리를 다양하게 변화시키며 의사소통 하는 것을 보게 된다.

마찬가지로 커뮤니케이터는 그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팔과 손과 머리를 움직이는 다양한 제스처를 가질 수 있고, 자세의 변화로 쌍방 간의 친밀감이나 대화의 이해력을 표현하며, 신체적 접촉으로 격려나 다정함, 감정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얼굴의 표정으로 의사소통의 풍부한 정보를 표현할 수 있으며, 시선의 응시, 목소리의 높낮이, 세기, 속도, 망설임, 잠시 멈춤(pause)을 통해 언어가 표현하지 못하는 더 깊은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¹⁶⁸⁾

그러므로 들리지 않아도 보이고 느껴지는 언어인 비언어적 행위는 언어와 함께 존재해 왔던 것으로서 새로운 발명이 아닌 다시 찾아내는 발견으로서 커뮤니케이션의 필수요소이다.

166) Mark L. Knapp, and Judith A. Hall,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236.

167) Mark L. Knapp, and Judith A. Hall,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236.

168) Mark L. Knapp, and Judith A. Hall,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305-534.

제 2 절 예수님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예수님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능력 있는 커뮤니케이터이다. 그분은 1세기 청중들뿐만 아니라 21세기 포스트모던 청중들까지도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달인(expert)이다. 예수님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언어와 비언어를 최적화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현대의 설교자들이 예수님처럼 언어와 비언어의 상관성을 인식하고 활용한다면 설교의 열매를 따는데 한발 더 가까이 갈 것이다.

언어와 비언어는 열쇠와 자물쇠의 관계이다. 사람들의 말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하는 사람 사이에서 말과 행동이 함께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된다. 심지어 전화를 하는 사람도 보이지 않는 상대방에게 손짓을 하며 통화하고, 전화를 받는 사람도 역시 고개를 끄덕이거나 이마를 만지는 것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비언어적인 행위는 송신자에게는 메시지를 말로 표현하는데 도움이 되고 수신자에게는 그 메시지를 해석하는데 도움이 된다. 다시 말해 대화를 하고 있는 두 사람 사이에서 음성을 통해 실려 온 메시지는 목소리, 표정, 서 있는 거리, 환경요인 등에 의해 그 메시지가 보완되기도 하며 손실되기도 한다.¹⁶⁹⁾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에는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또는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으로 비언어적 요소가 많이 담겨 있다. 그리고 수신자에게는 전달자가 보여주는 비언어적 요소의 해석이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을 수용하거나 거부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인류학자 버드휘스텔(Birdwhistell)은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언어적 수단이 차지하는 비율은 35퍼센트에 불과하고 65퍼센트 이상이 비언어적 수단”¹⁷⁰⁾이라고 한다. 우리가 실제로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인과 비언어적 행위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이 가능함을 볼 수 있듯이,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언어와 비언어적 요소는 서로 의존한다. 그러므로 커뮤니케이션에서 적극적으로 비언어적 요소를 활용하면 더욱 선명한 메시지의 전달에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설교자는 무대 위에 있는 배우와 같다. 무대 위 배우의 대사는 그의 손끝과 숨소리에 실려 관객에게 전해진다. 그래서 설교자는 청중에게 메시지를 설득하기 위해 그가 가지고 있는 비언어적 기술을 사용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 개

169) 최윤희,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22.

170) 이홍재, *휴먼 커뮤니케이션* (서울: 프리칭아카데미, 2008), 10.

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대의 청중에게 강단의 소리가 외면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비언어적 요소를 가볍게 여기는 설교자의 전달문제에 있다. 메라비안의 연구가 말하는 의사소통에서 93퍼센트가 비언어에 달려있다는 것이나, 버드휘스텔의 35퍼센트만이 언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장은 이제는 설교자들이 말만으로도 설교 전달이 충분하다는 고집을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그럼 설교에서 어떻게 비언어적 행위를 사용해야 할까? 그것을 위해 누구를 모델로 삼을 수 있을까?

기독교 역사상 9회말 투아웃에 승리의 기대를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청중들을 역전 만루홈런으로 그 자리에서 1미터나 뛰어오르게 하는 것 같은 설교자가 있었을까? 그분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언어와 비언어가 상호작용하여 청중의 오감을 깨워 변화를 주는 통쾌한 설교를 하셨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살펴보면서 본고의 주제에 따라 설교의 비언어적 요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한다.

1. 예수님의 커뮤니케이션

예수님은 전인적 감성(sensibility)의 커뮤니케이터로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오관 채널을 이용하여 커뮤니케이션 하셨다. 그의 말과 행동은 청중에게 보고 듣는 채널로, 먹고 마시기는 맛과 냄새의 채널로, 기적과 치유는 접촉의 채널로 메시지가 인식되었다. 청중이 온 몸으로 메시지를 인식하게 될 때 그 메시지는 버려지지 않는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청중이 그 메시지를 귀로 듣지만, 곧 상상의 날개가 퍼지면서 눈앞의 그림으로 그려지고 그후 가슴으로 느껴져 확신이 되면 말씀의 능력은 실재가 되어 청중의 삶을 변화시킨다. 예수님은 음성으로 뿐만 아니라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손을 대기도 하시고, 먹고 마시고, 눈물 흘리고 웃으시는 행동을 통하여 언어와 비언어를 조화시키며 청중들과 커뮤니케이션하셨다. 그러므로 최적화된 예수님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언어와 비언어적 특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 언어적 특징

예수님의 언어적 특징을 살펴보면 마치 소극장의 실험적인 연극 무대와 같다. 소극장의 특징은 관객이 배우의 숨소리를 들으며, 배우와 관객이 함께 참여하는 무대를 만들 수 있다는데 있다. 배우가 표현하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관객을 터치하고 관객의 반응에 따라 대사와 움직임이 달라지는 실험적인 연극을 보고 있는 관객들은 곧 그 무대 속에 빠지게 된다. 사람들은 그림이나 음악, 조형물이나 연극을 감상하면서 단순히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것 그 너머에 있는 의미를 전달받게 된다. 좋은 작품일수록 감상자가 의미를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감동이 몸에 전달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본 사람들 중에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어린이나 어른이나, 여자나 남자나, 지위가 있는 사람이나 평범한 사람이나 모두 그분의 말씀에 반응을 보였다. 말씀을 듣고 삶을 고치고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두려워 예수의 대적자로 돌아서는 이들이 있었다. 예수님의 언어가 청중에게 거부할 수 없는 파장으로 밀려오는 이유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예수님은 청중이 사용하는 일상생활의 언어를 사용하셨다. 곧 예수님은 청중을 위해 철학자¹⁷¹⁾들처럼 어렵지도 않고, 일부 정치가¹⁷²⁾들처럼 위선으로 포장하지도 않으시며 모든 사람들을 설득하고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시장의 언어를 사용하셨다. 그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자리인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곳에서, 동산에서, 집에서, 고기 잡는 배에서, 결혼식장에서 항상 사람들의 마음 한가운데 있었다.¹⁷³⁾ 또한 그

171) “철학”, Online: <http://ko.wikipedia.org/wiki> 철학은 고대 희랍어의 필로소피아 (φιλοσοφία, 지혜에 대한 사랑)에서 유래하였는데 여기서 지혜는 일상생활에서의 실용하는 지식이 아닌 인간 자신과 그것을 둘러싼 세계를 관조하는 지식을 뜻한다. 이를테면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이 포함된다.

172) 이종은, “언어와 정치” 서울: 인간사랑, 2009. Online:

<http://blog.daum.net/watereif69/12876317> 많은 정치가들은 언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이 설정한 정치적 목표와 이 목표에 따르는 것, 혹은 자신이 설정한 바람직한 사회 혹은 정치가 정당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전하기 위하여, 혹은 세뇌하기 위하여 언어를 사용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치가들은 기존의 단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거나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기도 함으로써 다른 세계상을 제시하는 개념체계를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게다가 정치가들은 언어가 상상을 야기하고 감정을 자극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면 정치가들에게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이 아니라 정치적 무기이다.

173) 이홍재, *휴먼 커뮤니케이션*, 71.

의 언어는 자연스러우며 단순하고 명료했기에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평범하든지, 화려하든지 할 것 없이 부모와 자녀가 손을 잡고 그에게 나와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예로, 예수 앞에 모인 모든 이들이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이야기를 이해하고 감동 받거나, 어린아이의 헌신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언어가 누구에게나 쉽고 명확했다는 것이다.¹⁷⁴⁾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길가의 무화과나 무와 같이 생활 속에서 예화의 소재를 사용하여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게다가 그의 언어는 종종 웃음을 주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은 항상 매너 있고, 부드럽고, 항상 인내하시고, 근엄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며, 완고하고 심각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말엔 유머러스한 면이 많다. 등불을 켜서 침대 아래 들 사람이 있겠느냐? 소경이 소경을 인도 한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쉽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준다 등과 같이 상식을 뛰어넘고, 과장되기도 한 표현들은 그의 유머와 위트를 보여주는 친근한 언어이다. 예수님을 유머리스트라 부르는 엘톤 츠르블러드(Elton Trueblood)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였으나, 청중에게 그 진리가 식상하고 진부한 잔소리가 되지 않기 위해 언제나 웃음을 유발하는 역설법(Paradox)을 자주 사용하셨다고 한다.¹⁷⁵⁾

또한 예수님의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방법은 내용의 중요성을 기억하는데 도움을 준다. 예수님은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을 꾸짖으실 때 “화 있을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라는 표현을 반복하고, 산상설교에서는 “복이 있나니”의 표현을 반복했다. 이러한 표현은 반복 학습을 통해 설득 효과를 높인 것이다. 예수님은 설교를 듣는 대상에 따라 질책할 땐 이성적으로 일반인들에겐 감정적 방법으로 설득했음을 알 수 있다.¹⁷⁶⁾ 그리고 예수님은 능숙한 교사처럼 상황과 대상에 따라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훌륭한 질문자이셨다. 로이 B. 주크(Roy B. Zuck)의 연구에 의하면 예수님은 225개의 다른 질문들을 던지셨다고 한다.¹⁷⁷⁾ 우리의 대화가 가정에서나 학교

174) 이창근, *복음서에 나타난 교사로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서울: 엘멘출판사, 1990), 90-91.

175) Elton Trueblood, *그리스도의 유머 (The Humor of Christ)*, 임윤택 역 (서울: CLC, 2006), 69.

176) 김숙현, “성경에 나타난 예수 커뮤니케이션의 특성: 설득 커뮤니케이션과의 비교,” *한세대 학교 교수논총* 17 (2001), 15.

177) Roy B. Zuck, *예수님의 티칭 스타일 (Teaching As Jesus Taught)*, 송원준 역 (서울: 디모데, 2000), 367.

에서나 친구 사이에서나 질문을 통해 이어져가는 가는 것처럼, 질문과 응답은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대화의 방법이다. 질문이라는 방법은 특별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성찰하고 해답을 찾아가도록 도움을 주는 특별한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것처럼, 쉽고 명료하며, 생활 속에서 예화를 사용했으며, 우스운 이야기를 하며, 반복적이고 질문을 주고받는 방법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무리 진수성찬이 눈앞에 있어도 먹어보지 않고는 그 맛을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은 청중들이 맛있고 영양 있는 음식을 직접 맛보고 기뻐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중의 눈높이에 맞는 대중의 언어를 사용하였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하셨다. 예수님의 언어는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데 그 이유는 센스어필(sense appeal)의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센스어필이란 오직 언어로 된 설교를 듣지만 청중이 가지고 있는 오관의 감각기관을 동원하여 메시지를 체험하게 하는 기술이다. 센스어필에 대해 침례신학대학교의 문상기 박사는 강조하기를,

센스어필은 그림, 사진 도안 같은 도형적 이미지, 영상이나 투사 같은 광학적 이미지, 감각자료나 외모 같은 지각적 이미지, 꿈이나 기억이나 관념이나 환상 같은 정신적 이미지, 은유나 직유 같은 언어적 이미지도 포함한다. 따라서 설교와 관련하여 센스어필은 문학적 양식을 포함하여 다양한 통화적 기법을 이용하여 청중으로 하여금 보다 그들의 감각기관을 활용하여 메시지를 체험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78)

그러므로 예수님의 언어적 특징은 은유와 같은 회화적인 표현법으로 상상력을 일으키어 청중들이 모든 감각(sense)으로 메시지를 이해하고 경험하도록 하는 센스어필이다.

성경에는 상상력을 갖게 하는 여러 종류의 수사적 표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은유이다.¹⁷⁹⁾ 은유는 A=B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은유는 청중

178) Michael Rogness, *영상세대를 향해 이렇게 설교하라 (Preaching to TV Generation: The Sermon in the Electronic Age)*, 주승중 번역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4), 96-97.

179) 이봉용,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감동적인 설교를 위한 파토스 연구,” 153.

들이 관점을 새롭게 하도록 도전을 준다. 마이클 지가렐리 (Michael Zigarelli)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은유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예수님은 은유를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해야 하는지에 대한 신선한 관점을 제시해 주셨다. 예수님은 자신을 ‘신한 목자’라고 부르셨다. 그는 우리가 통과해 들어가야 하는 ‘문’이고, 영양을 공급받기 위해 먹어야 하는 ‘생명의 떡’이며, ‘가지’가 붙어 있어야 하는 ‘포도나무’이고, 생명을 유지하고 싶다면 따라야 할 ‘길ियो 진리요 생명’이다.¹⁸⁰⁾

이러한 은유적 표현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선입견이나 오해에 의해 굳어진 사고를 전환하거나 이해를 쉽게 하여 기억을 오래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더욱이 예수님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창조적인 스토리 텔러(story teller)였다. 설교를 할 때 아이들이나 어른들 모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들은 더욱 집중한다. 그리고 그들의 흥미롭게 빛나는 눈동자를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이야기 속의 인물이나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로이 주크 (Roy B. Zuck)는 말하기를,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 뼈와 가죽에 원리와 교훈을 덧입히고 사실과 생각을 실제 혹은 가공의 인물과 상황 속에 주입시키는 일 - 은 그 무엇보다도 견줄 수 없는 뛰어난 의사소통의 수단이다. 추상적인 개념도 다소 흥미를 유지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이야기로 구현시킬 때 투명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압도적인 효과가 있다.¹⁸¹⁾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야기로 가득하다. 학자들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횟수에 대해 다른 의견을 주장한다. 브루스(Bruce)는 33개, 스크로기(Scroggie)는 51개, 릭슨(Rixon)은 63개, 스타인(Stein)은 26개, 보그(Borg)는 30개의 비유적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주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간단한 줄거리 또는 구성을 지닌 짧은 이야기만을 비유로 취급하여 39개의 이야기가 있다고 주장한다.¹⁸²⁾ 주크가 정리한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의 표는 다음과 같다.

180) Michael Zigarelli, *예수님 가방 속 설득 매뉴얼 (Influencing Like Jesus)*, 마영례 역 (서울: 어부의 그물, 2009), 130.

181) Roy B. Zuck, *예수님의 터칭 스타일*, 493.

182) Roy B. Zuck, *예수님의 터칭 스타일*, 497.

1. 두 종류의 집	마 7:24-27 (눅 6:47-49)
2. 생배 조각	마 9:16 (막 2:21; 눅 5:36)
3. 새 부대	마 9:17 (막 2:22; 눅 5:37-39)
4. 무례한 아이들	마 11:16-19 (눅 7:31-35)
5. 씨 뿌리는 자	마 13:5-8 (막 4:3-8; 눅 8:4-8, 11-15)
6. 가라지*	마 13:24-30
7. 겨자씨	마 13:31-32 (막 4:30-32; 눅 13:18-19)
8. 누룩	마 13:33 (눅 13:20-21)
9. 감추인 보화*	마 13:44
10. 극히 값진 진주*	마 13:45-46
11. 그물*	마 13:47-50
12. 집주인*	마 13:52
13. 무자비한 종*	마 18:23-35
14. 포도원 품꾼*	마 20:1-16
15. 두 아들*	마 21:28-32
16. 악한 포도원 소작인	마 21:33-44 (막 12:1-11; 눅 20:9-18)
17. 혼인 잔치*	마 22:1-14
18. 무화과 나무	마 24:32-35 (막 13:28-31; 눅 21:29-33)
19. 지혜로운 종	마 24:45-51 (눅 12:42-48)
20. 열 처녀*	마 25:1-13
21. 달란트*	마 25:14-30
22. 비밀리에 자라는 씨*	막 4:26-29
23. 문지기	막 13:34-37 (눅 12:35-40)
24. 두 명의 빛진 자*	눅 7:41-43
25. 선한 사마리아인*	눅 10:25-37
26. 한밤중의 친구*	눅 11:5-8
27. 어리석은 부자*	눅 12:16-21
28. 지혜로운 종과 어리석은 종*	눅 12:42-48
29.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눅 13:6-9
30. 큰 잔치*	눅 14:15-24
31. 준공 안 된 망대와 싸움 중인 왕*	눅 14:28-33
32. 잃어버린 양	마 18:12-14 (눅 15:3-7)
33. 잃어버린 동전*	눅 15:8-10
34. 탕자*	눅 15:11-32
35. 지혜로운 청지기*	눅 16:1-9
36. 종의 사례*	눅 17:7-10
37. 불의한 재판관*	눅 18:1-8
38. 바리새인과 세리*	눅 18:9-14
39. 열 르나*	눅 19:11-27

〈표 6〉 예수님의 비유들¹⁸³⁾

183) Roy B. Zuck, *예수님의 티칭 스타일*, 498-499. *는 특수자료, 마태 11개, 마가 1개, 누가 15개.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흥미를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예수님의 비유는 간결했다.¹⁸⁴⁾ 예수님의 비유는 평균 여섯 구절 정도였다. 이 사실은 현대의 설교자들이 긴 예화를 피하고 진부한 설명을 과감히 생략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일깨워 준다. 둘째, 예수님의 비유는 당시에, 그 지역에서 잘 알려진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졌다.¹⁸⁵⁾ 돌, 비, 바람, 포도주, 씨, 새, 무화과, 현웃 조각, 달란트, 망대, 성전, 어부, 왕, 어린이, 농부, 신랑, 앓은뱅이, 바리새인, 강도 등의 친숙한 용어를 이용한 이야기는 예수님 말씀에 사실성을 부여하여 사람들은 그분의 이야기를 쉽게 믿을 수 있었다. 셋째, 예수님의 비유는 마음을 졸이는 긴장감이 있다.¹⁸⁶⁾ 청중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궁금함을 가지고 끝까지 경청하게 되었다. 넷째, 예수님의 비유는 놀라운 반전과 감동이 있다.¹⁸⁷⁾ 빛을 탐감 받고, 시간과 관계없이 일꾼이 품삯을 받고, 포도원 소작인들이 주인의 종들과 아들을 죽인 다거나,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이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선행을 베푸는 모습,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로움 때문에 칭찬을 받는 등의 반전은 청중들에게 더욱 흥미를 끌었다.

이렇게 예수님은 청중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대중들에게 친숙한 시장의 언어, 즉 일상생활의 언어를 사용하셨고 비유와 이야기를 통해 감동을 볼 수 있도록 상상력을 일으키는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는 눈에 보이는 설교라 할 수 있다. 현대의 설교자들이 현대 청중들의 듣는 방식을 이해한다면, 전달자의 입장에서 펼치는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며 수용을 강요하는 방법의 설교 전달은 청중들에게 제복과 같이 불편한 것이란 걸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의 설교자들이 예수님에게서 언어적 특징을 배우는 것은 고대 문화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대 문화적이다.

다음은 설득력 있는 예수님의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은 탁월한 언어에만 있는 게 아니라 비언어적 행위에도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184) Roy B. Zuck, *예수님의 티칭 스타일*, 507.

185) Roy B. Zuck, *예수님의 티칭 스타일*, 508.

186) Roy B. Zuck, *예수님의 티칭 스타일*, 509.

187) Roy B. Zuck, *예수님의 티칭 스타일*, 510.

나. 비언어적 특징

예수님은 청중에게 인정받는 인기 있는 설교자였다. 그의 설교를 듣고자 수십 명에서 수만 명¹⁸⁸⁾씩 청중들이 몰려왔다. 메라비안의 ‘7퍼센트 - 38퍼센트 - 55퍼센트의 법칙’을 적용해 보면 예수님의 설교와 비언어적 행위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물론 커뮤니케이션에서 상황과 대상에 따라 비언어적 행위의 영향력은 달라질 수 있지만 93퍼센트에 달하는 시청각의 비언어적 요소가 의사소통에 관계한다는 것과 예수님의 설교에 대한 청중들의 반응을 미루어볼 때 예수님은 언어적 탁월성 못지않게 비언어적인 효과성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예수님의 비언어적 특징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하셨던 행동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예수님은 행동을 통해 청중들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생각의 공간을 준비해 주셨다. 먼저 마태복음 26장 26절¹⁸⁹⁾을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행하셨던 3개의 비언어 행위를 볼 수 있다. 첫째,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드는 행위이다. 이 떡은 예수님이 친히 마지막인 만찬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떡이 아니라 제자들이 준비한 보통의 누룩을 넣지 않은 유월절 음식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평범한 떡을 먼저 가지사 인류의 대속을 위해 찢기실 자신의 몸이라는 상징성¹⁹⁰⁾을 더하였다. 둘째, 예수님은 떡을 축복하셨다. 축복하시고(εὐλογήσας, 울로게사스)라는 단어가 떡을(ἄρτον, 아르톤)이라는 사물의 목적격과 함께 쓰이면 하나님에게 어떤 사물을 기록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거나 사람의 사용을 위해 그것을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¹⁹¹⁾. 즉 예수님은 떡을 들고서 그것을 사람이 취할 때 영적 은혜를 체험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셋째, 떡을 떼어 주셨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유월절 음식이니 자신을 받으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비언어적 행위는 제자들이 그 떡을 받아먹게 되면 먹는 자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전가되는¹⁹²⁾ 축복이 임한

188) 오병이어의 기적 (마 14장, 막 6장, 눅 9장, 요 6장)에서 남자, 여자, 어린아이를 추정한 수치.

189)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190) 제자원 편집, “마태복음 제 21-22장,”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서울: 제자원, 2000), 508.

191) 제자원 편집, “마태복음 제 21-22장,” 508.

192) 제자원 편집, “마태복음 제 21-22장,” 509.

다는 것을 깨닫도록 강조하는 행위였다.

다음 마가복음 4장 37-41절¹⁹³⁾은 예수님이 큰 광풍이 배를 치는데도 편안히 주무시는 행위이다. 예수님께서 배를 삼킬 만큼 큰 광풍이 일고 제자들이 위대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편안히 배 뒷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일부러 주무시는 척하며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나 보려고 하셨을 것이다. 예수님의 주무시는 행위는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그 분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에, 그들에게 예수님은 근본 창조주로서 모든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셨던 것이다¹⁹⁴⁾. 후에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잠잠하라고 명하시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심히 놀라고 두려워하였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행위는 제자들의 두려움과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존재에 대한 신앙의 결여를 강조¹⁹⁵⁾함으로써 다른 이들은 몰라도 제자들만큼은 예수님의 신성 즉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지해야했기에 그들의 무지를 책망하고 확신을 주기 위한 행동이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8장 6-9절¹⁹⁶⁾에서 보는 예수님의 비언어 행위이다.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요구하며 예수님을 시험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즉시 대답해 주지 않고 시간을 지연하며 침묵과 함께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행위는 흥분하고 조급한 무리들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¹⁹⁷⁾을 갖도록 하는 의도적인 행위였다. 그리고 나서 “너희 중

193)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고 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194) 제자원 편집, “마가복음 제 1-9장,”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364.

195) Robert Guelich, *WBC성경주석 마가복음 (상)* (Word Biblical Commentary Mark), 김철역 (서울: 솔로몬, 2001), 444.

196)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197) 제자원 편집, “요한복음 제 7-12장,”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139.

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다. 당시 증인들은 보통 제일 먼저 돌을 던졌다. 하지만 거짓증인은 그들이 잡아온 희생자와 똑같은 벌을 받아야만 했다(신 19:18,19).¹⁹⁸⁾ 그곳에 모여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시는 동안 모두 그 자리를 떠났다. 이렇듯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위를 하시는 동안 말씀에 질림을 받아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언어가 필요한 곳에서 예수님이 비언어 행위를 먼저 하신 이유는 그의 말씀을 들을 공간을 창조하기 위해서였다. 이것은 청중을 위한 예수님의 배려이다.

이러한 근거를 염두에 두고 청중의 눈높이를 맞추며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 상황을 상상해보면 예수님의 몸짓(gesture)을 이해할 수 있다.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마 4:19)라고 할 때 예수님은 아마 그들에게 손짓을 하며 부르셨을 것이다. 보복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오른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도 돌려대라”(마 5:39)라고 하시며 오른뺨, 왼뺨을 번갈아 돌려대는 제스처를 취하셨을 것이다. 예수님의 얼굴 표정도 상상할 수 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마 5:13)라고 하실 때 예수님은 어찌면 짠 소금을 먹은 썩그린 표정을 지으셨을 것 같다. 위선자들의 금식을 경계(마 6:16)하실 때 예수님은 초췌한 얼굴 모습을 지으셨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음성의 높고 낮음, 강하고 약함, 길고 짧음, 침묵, 접촉, 환경 이용 등의 특징을 가졌을 것이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하는 사단을 쫓아내실 때(마 4:1-11), 예수님은 강하고 무섭게 끝을 자르며 말씀하셨을 것이다. “사탄아 썩 물러가거라!”. 팔복(마 5:3-12)을 말씀하시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음성의 잔향이 남아 있는 부드러운 음색이었을 것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마 8:20) 말씀하실 땐 한숨 섞인 끝이 처지는 음성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은 “돌로 쳐야 한다”고(요 8:6) 소리 지르던 사람들 앞에서 땅에 무언가를 쓰시던 예수님은 침묵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또한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실 때 그들에게 손을 대셨다.(마 8:3, 15; 9:25, 29) 그리고 예수님은 주변의 환경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셨다. 제자들에게 하늘의 새와 들의 백합화(6:25-29)를 보여주시며 염려하지 말 것과 길 옆의 무화과나무 한 그루(마 21:19)를 통해 의심하

198) Craig S. Keener, *성경배경주석 신약 (The IVP bible Background Commentary New Testament)*, 정옥배 외 옮김 (서울:IVP, 1998), 328-329.

지 않고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다.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를 축사하시거나(마 14:19), 성전을 깨끗케 하시기 위해 난폭한 행동(마 21:12)까지도 친히 보여주시며 그 말씀의 효과를 극대화하셨다.

그 결과 이러한 입체적 언어로 메시지를 들은 청중에게 자신이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연쇄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효과는 당시에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도 장기적인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예수님은 청중의 눈높이에서 언어와 비언어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그들을 설득하는 청중 지향의 커뮤니케이터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멀티미디어에 익숙해져 메시지를 이해하는 방식이 바뀐 청중들을 설득해야만 하는 현대 설교자들에게 효과적인 설교전달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희소식이다. 이를 위해선 언어적 노력과 동시에 비언어적 요소에도 함께 열정을 쏟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마치 무대에 서 본 경험이 없는 신인배우의 어색함 같을지라도 말이다. 그러므로 설교자들의 태도가 조금만 더 청중들의 눈높이만큼 내려와 그들이 메시지를 볼 수 있도록 언어와 비언어의 전달 방법에 변화를 줄 수 있다면 현대의 교회는 다시 일어날 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

2. 예수님의 말씀에서 본 구체적인 비언어적 특징들

예수님은 청중의 필요성, 즉 수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말과 행동, 몸짓과 표정으로 설득의 효과를 거두셨다. 이홍재 박사는 예수님의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에 대해 말하길, 예수님은 무엇보다 사람의 근성을 파악했고, 상대의 입장을 존중했으며, 복음의 적응성을 위해 사람들이 있는 한가운데 계시며 그들과 쌍방의 대화를 했으며, 상대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다르게 사용했다¹⁹⁹⁾고 한다.

이번 부분에서는 앞의 3장 1절에서 다룬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행위 유형을 예수님의 비언어적 행위에 대입시켜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마크 냅과 주디스 홀(Mark Knapp & Judith Hall)의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에서 제시하는 환경, 대화거리, 제스처, 신체 접촉, 얼굴표정, 시선, 목소리의 7가지 유형을 따르고, 공관복음에서 보

199) 이홍재, *휴먼 커뮤니케이션*, 64-73.

여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 비유, 이적, 수난과 죽음이라는 네 개의 범주로 구분²⁰⁰⁾하여 말씀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예수님의 비언어적 방법을 상상하며 유추해 보고자 한다.

가. 예수님의 가르침

(1) 반석위에 세운 집과 모래위에 세운 집 (마 7:24-27; 눅 6:47-49)

(가) 본문의 내용: 예수님은 청중에게 듣는 것과 행하는 것 모두가 중요함을 가르치며, 직설적으로 강요하지 않으시고 가르침의 순종 여부를 청중 개인에게 맡기신다.

(나) 환경: 당시의 목수는 주로 돌을 다루는 석수에 가까웠다. 예수님은 목수로서의 경험과 그 당시 사람들의 집에 대한 이해를 이용한다.²⁰¹⁾

(다) 대화 거리: 청중들과의 친밀함을 위해 1m 50cm 이내의 거리를 유지한다. 에드워드 홀(Edward T. Hall)은 실제로 친밀한 거리는 신체 접촉부터 45cm, 일시적·개인적 거리는 45cm에서 1m 20cm라 하고, 로버트 소머(Robert Sommer)는 편안한 대화 거리를 30cm에서 90cm라 한다²⁰²⁾.

(라) 제스처: 비와 홍수와 바람과 견고함과 무너짐의 모양을 손의 움직임으로 보여준다.

(마) 얼굴표정: 반석과 견고함은 확신과 기쁨의 표정으로, 모래와 무너짐은 실망과 허탄한 표정으로 표현한다.

(바) 시선: 강요하진 않지만 설득을 위해 청중들을 자주 응시한다. 메라비안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설득을 하려는 사람은 보다 많이 응시한다.²⁰³⁾

(사) 목소리: 보통의 말하는 속도보다 1.5배가 빠르며, 크고 쉽이 없이 전달한다. 큰 음량, 빠른 속도, 쉽이 적은 말하기는 설득을 증가시킨다.²⁰⁴⁾

200) 공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 비유, 이적, 수난과 죽음의 4개 범주에서 임의적으로 5개씩 뽑았다.

201) 이진희, *유대적 배경에서 본 복음서* (서울: 컨콜디아사, 1997), 175.

202) Mark Knapp, and Judith Hall,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199-200.

203) Mark Knapp, and Judith Hall,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478.

(2) 금식 논쟁 (마 9:14-15; 막 2:18-20; 눅 5:33-35)

(가) 본문의 내용: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따지고, 예수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하지 않는다고 응수한다.

(나) 환경: 예수님은 풍성한 결혼만찬을 비유로 말씀하신다. 당시의 혼인잔치는 7일간 계속되며(창 29:27), 풍성한 만찬이 차려진다(요 2:1-11). 그러므로 결혼잔치에서는 금식이 아닌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게 미덕이다.

(다) 대화 거리: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따지러 찾아와 2m 내외의 거리를 두고 대화가 진행된다. 사회적·협의적(일반 업무를 위한) 거리는 1m 20cm에서 3m 60cm이다.²⁰⁵⁾

(라) 제스처: 요한의 제자들은 어깨를 으쓱하며 이해할 수 없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예수는 고개를 짓거나 손가락을 저으며 “아니야”의 의미를 전달한다.

(마) 얼굴표정: 요한의 제자들이 입술을 삐죽이거나 눈썹을 움직이며 “당황스럽다” 또는 “의심스럽다”의 의미를 전달하면, 예수는 안타까운 표정을 짓다가 곧 설득하는 온화한 미소를 짓는다.

(바) 시선: 예수에게 따지는 요한의 제자들의 말에 그들을 애정 어린 눈으로 길게 응시하고²⁰⁶⁾, 동시에 자신감 있는 시선으로 응수한다.

(사) 목소리: 요한의 제자들의 물음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은 큰 소리로 응수하시고²⁰⁷⁾, 잠시 쉬을 갖고 분위기를 바꿔 울림이 있는 저음의 목소리로 온화하게 설명한다.

204) Mark Knapp, and Judith Hall,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525.

205) Mark Knapp, and Judith Hall,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199.

206) Mark Knapp, and Judith Hall,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470.

207) Mark Knapp, and Judith Hall,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509. 큰소리로 말하는 사람은 지배적인 사람으로 인식된다.

(3) 세레 요한의 물음과 예수의 답변 (마 11:16-19; 눅 7:18-35)

(가) 본문의 내용: 예수는 사람들의 무반응과 무관심을 장터의 아이들로 표현하며 세레자 요한도 거절하고 자신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강한 불만²⁰⁸⁾을 표시한다.

(나) 환경: 예수는 피리를 불고 춤을 추는 결혼식과 애곡하는 장례식의 그림으로 이야기한다. 장례를 치르는 가족들은 7일 동안 애도기간을 가졌고, 30일 동안 추도기간(shloshim)을 지낸 후 1년을 기다려 2차 장례를 지냈다²⁰⁹⁾.

(다) 대화 거리: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과 일반적인 거리인 3m 내외의 거리를 둔다. 사람들은 보통 불친절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상호작용거리를 유지하고 또한 화가 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리적 거리를 두게 된다.²¹⁰⁾

(라) 제스처: 의미 전달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집게손가락을 반복해서 위·아래로 움직이며 질책을 표현할 수 있다.²¹¹⁾

(마) 얼굴표정: 거부당하고 오해 받는 것에 불만을 갖고 미간을 찌푸리거나 콧구멍이 넓어지면서 화난 표정을 짓는다.

(바) 시선: 눈에 힘을 주어 상대방을 노려본다.

(사) 목소리: 강도가 세고 음조의 변이가 있는 불만이 표출된 목소리를 낸다. 행복할 때와 화가 났을 때 목소리와 음악 모두 빠르기와 강도가 증가하지만, 화가 났을 때와 공포를 느낄 때에는 강도의 변이가 증가한다.²¹²⁾

208) 이진희, *유대적 배경에서 본 복음서*, 200.

209) “유대절기와 관습”, *세계기독교박물관*, Online: <http://www.segibak.or.kr>

210) Mark Knapp, and Judith Hall,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207-208.

211) Mark Knapp, and Judith Hall,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310.

212) Mark Knapp, and Judith Hall,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517-518.

(4) 보복에 대하여 (마 5:38-42; 눅 6:29-30)

(가) 본문의 내용: 예수님은 동해 보복의 법칙이 아닌 악으로 선을 이길 것을 가르친다.

(나) 환경: 예수님은 출 21: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에 기록되어 동해 보상법으로 지켜지던 히브리인들의 전통을 이야기 한다.

(다) 대화 거리: 예수님은 산상에서 제자들만을 가르치기 위해 친밀한 개인적 거리인 1m 내외의 거리를 유지한다.

(라) 제스처: 양손을 위로하여 움직이며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과 같은 표현으로 정보전달²¹³⁾을 하고, 예수와 제자들 사이엔 서로 긍정의 말이 오고 가고 친밀감과 협조적인 분위기가 생기는 일치성 자세가 생긴다.²¹⁴⁾

(마) 얼굴표정: 예수는 온화한 미소로 가르친다. 미소는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를 완화시킬 수 있다.²¹⁵⁾

(바) 시선: 한 단락을 마칠 때나 개념이 마무리 될 때 청중들을 훑어보며 청중의 이해와 반응을 확인한다. 송신자와 청중이 서로 응시를 교환하므로 감정적 전염²¹⁶⁾이 이루어진다.

(사) 목소리: 제자들의 이해와 태도 변화를 위해 목소리의 음조는 아래로 내리고, 빠르기는 보통보다 1.5배 정도 빠르며, 활동적으로 운율을 준다.²¹⁷⁾

(5) 베드로의 고백 (마 16:13-20; 막 8:27-30; 눅 9:18-21)

(가) 본문의 내용: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의한 예언이 그쳤다고 믿고 있었기에 예언자도 사라졌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한 중에 그들이 예수를 예언자로 이해하였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²¹⁸⁾.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를 그

213) Mark Knapp, and Judith Hall,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320.

214) Mark Knapp, and Judith Hall,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329-330.

215) Mark Knapp, and Judith Hall,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401.

216) Mark Knapp, and Judith Hall,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461.

217) Mark Knapp, and Judith Hall,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522-525.

218) 이진희, *유대적 배경에서 본 복음서*, 223.

리스도(메시아)라고 고백한다.

(나) 환경: 가이사라 밍립보 지방에는 목축의 신인 판(Pan)의 신전이 있고 로마제국의 권력의 흔적이 많다.²¹⁹⁾ 그런 지방에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의 신앙고백과 교회의 권위를 가르침은 더욱 강력한 효력이 있다.

(다) 대화 거리: 1m 50cm 이내의 짧은 거리에서 대화한다. 사람들은 공식적이고 낯선 환경에서는 아는 사람들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고자 하며, 남의 찬성을 이끌어내고자 할 때도 대화 거리를 줄인다.²²⁰⁾

(라) 제스처: 양손을 사용하여 정보를 전달하거나, 제자들에게 손을 내밀며 질문하고 대답을 이끌어내며,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여 확신 있고, 제자를 향해 손바닥을 보여주며 주장을 한다²²¹⁾.

(마) 얼굴표정: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며 입가에서 시작해 눈가에서 자연스러운 미소가 퍼진다.

(바) 시선: 제자들을 훑어보며 그들에게 질문에 대한 대답의 기회를 주고 그들이 대화의 내용을 수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사) 목소리: 느린 저음의 목소리로 호소한다. 낮고 깊은 저음은 남성성과 호소력²²²⁾이 있고, 스미스와 샤퍼(Smith & Shaffer)에 의하면 빠른 말은 메시지가 청자의 기존 태도와 반대되는 입장을 주장할 때는 설득력이 높아지지만 기존 태도와 일치할 때에는 설득력이 감소한다고 한다.²²³⁾

나. 예수님의 비유

(1)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마 13:1-9; 막 4:1-9; 눅 8:4-8)

(가) 본문의 내용: 예수님의 선교 활동이 지금은 실패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큰 수확을 거두어들인다.

219) “판(Pan) 신”, *한국컴퓨터선교회 Online*: <http://webmaster@kcm.co.kr>

220) 최윤희,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116-117

221) Mark Knapp, and Judith Hall,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317-322.

222) Mark Knapp, and Judith Hall,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508.

223) Mark Knapp, and Judith Hall,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526.

(나) 환경: 당시의 농사는 밭을 갈기 전에 농부가 손으로 씨를 흩뿌린다. 팔레스타인의 대부분 토양은 얇고 그 밑은 돌로 되어 있어 수확이 잘 되지 않는다. 평균 수확은 10배 정도이나, 30, 60, 100배의 결실은 꽤 좋은 추수에 속한다.²²⁴⁾

(다) 대화 거리: 배에 타서 물가에 서 있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으므로 3m가 넘는 거리이다. 보통 공공 거리는 3m 60cm에서 가시청(visibility or hearing)한계 거리를 나타낸다.²²⁵⁾

(라) 제스처: 4가지의 땅을 표현하는 부분에서 손가락으로 표시하거나 주먹을 쥐어 강조한다. 구두점(punctuation) 제스처는 담화의 중요한 부분을 강조할 때 사용된다.²²⁶⁾

(마) 시선: 예수님은 청중 가운데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들의 피드백을 관찰하기 위해 용시를 자주한다.

(바) 목소리: 넓은 공간과 대화거리가 멀며 이해력이 다른 무리들이 대상이므로, 크고 빠르며 발음이 정확하고 높은 음조로 선명하게 말한다.

(2) 잃은 양 비유 (마 18:10-14; 눅 15:3-7)

(가) 본문의 내용: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은 기쁨을 강조하며 예수님은 잃어버린 것들(작은 사람들)을 다시 찾기 위해 오셨음을 선포한다.

(나) 환경: 팔레스타인 목자들은 보통 100마리 정도씩의 양을 쳤다. 양과 목자라는 친숙한 언어를 사용한다.²²⁷⁾

(다) 대화 거리: 1m 내외의 친숙한 거리에서 제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한다.

(라) 제스처: 제자들에게 손을 내밀며 그들의 반응을 유도하고, 손가락으로 한 마리의 잃은 양을 강조한다.

224) 이진희, *유대적 배경에서 본 복음서*, 276.

225) Mark Knapp, and Judith Hall,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199.

226) Mark Knapp, and Judith Hall,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318-319

227) 이진희, *유대적 배경에서 본 복음서*, 300

(마) 얼굴표정: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잔잔한 미소를 짓는다.

(바) 시선: 많지 않은 특별한 제자들 모두에게 눈을 마주치며 그들의 이해와 태도의 변화를 촉구한다.

(사) 목소리: 차분하고 낮은 음성과 아흔 아홉과 한 마리를 대조하며 음조의 변화를 준다.

(3) 큰 잔치의 비유 (마 22:1-10; 눅 14:15-24)

(가) 본문의 내용: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나, 원래 그것을 받아들일 것으로 여겨지던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

(나) 환경: 큰 잔치와 잔치초대를 사양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유머러스하게 이용한다. 1세기 유대인들은 보통 하루에 아침과 저녁 두 번의 식사를 하는데, 관례적으로 잔치는 저녁 때에 벌어진다.²²⁸⁾

(다) 대화 거리: 성전 안(마 21:23)에서 2m 내외의 일반적 거리를 유지하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과 대화한다.

(라) 제스처: 경고성의 내용에 대해 청중들의 집중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제스처의 사용이 빈번하다. 크라우스(Krauss)는 스피치 관련 제스처는 의미론적 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청자의 관심 집중, 청자의 이미지와 기억력 활성화 등을 통해 청자의 이해도를 증진시킬 가능성이 높다²²⁹⁾고 한다.

(마) 시선: 강한 응시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며 이야기 한다.

(바) 목소리: 크고 빠른 목소리로 지배적이고 설득력 있게 말한다.

(4) 열 처녀의 비유 (마 25:1-13)

(가) 본문의 내용: 신랑이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가 된 그룹과 준비되지 않은 그룹의 결과를 보여줌으로 제자들에게 준비하고 있을 것을 교훈하며 격려한다.

228) Mark Knapp, and Judith Hall,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300.

229) Mark Knapp, and Judith Hall,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324-325.

(나) 환경: 재림의 주를 맞이할 준비를 결혼 풍속을 통해 비유한다. 예수 당시의 결혼은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고 신랑 집에서 결혼식을 진행한다. 이때 신랑과 신부를 대동하고 가는 사람들은 등불이나 횃불을 들고 가게 된다.²³⁰⁾

(다) 대화 거리: 제자들과 1m 내외의 친밀한 거리를 유지한다.

(라) 제스처: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들과 친밀감을 유지하는 분위기가 되기 위해 제자들의 자세나 손 모양과 일치하려고 한다.

(마) 얼굴표정: 미련한 처녀들을 비유할 때 미소를 짓고 슬기로운 처녀가 혼인 잔치에 들어갈 때 “오케이”를 나타내는 손 모양과 함께 윙크를 한다. 미소는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를 완화시켜주고, 손 모양과 함께하는 윙크는 긍정을 강화한다.²³¹⁾

(바) 시선: 제자들을 격려하는 애정 어린 응시를 길게 한다.

(사) 목소리: 부드러운 음성으로 설득하고, 느리고 약한 소리로 애정을 나타낸다. 슬프거나 애정을 느낄 때에는 빠르기와 강도가 감소한다.²³²⁾

(5) 탕자의 비유 (눅 15:11-32)

(가) 본문의 내용: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들은(15:1-2) 각각 장자와 둘째 아들을 의미하며, 아버지는 그가 생전에 유산을 요구하여 재산을 갖고 집을 나간 아들을 늘 기다리고 있고, 그가 돌아올 때 큰 잔치를 베푸시는 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

(나) 환경: 유대인의 상속에 관한 전통을 이용한다. 아버지의 재산은 그 아버지가 죽기 전까지는 자녀들에게 상속할 수 없는데, 그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버린다는 의미이므로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하는 것이다.

(다) 대화 거리: 청중이 세리들과 죄인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며

230) 이진희, *유대적 배경에서 본 복음서*, 311.

231) Mark Knapp, and Judith Hall,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401.

232) Mark Knapp, and Judith Hall,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518.

로 일반적인 거리인 2m 내외를 유지하며 교훈한다.

(라) 제스처: 세리와 죄인들을 보면서 양팔을 벌리며 아버지의 자비를 표현하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는 양 손바닥을 보이며 아버지의 진심을 말한다.

(마) 얼굴표정: 세리와 죄인들에게 온화한 미소로 희망을 갖게 하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자연스러운 미소로 신뢰를 준다.

(바) 시선: 세리와 죄인들에게 3초 이내의 응시를 자주 함으로 감정이 전염되게 한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서로 친숙하지 않으므로 상호응시는 잘 일어나지 않아도 많은 양의 응시를 보여줌으로 신뢰감과 정직함과 호감을 전달한다.²³³⁾

(사) 목소리: 이야기 속에 나오는 배경이 구분되도록 음색을 바꾸고, 씬을 통해 장면이 바뀌는 곳에서 긴장감과 기대감을 유발한다.

다. 예수님의 이적

(1) 나병환자 치유 (마 8:1-4; 막 1:40-45; 눅 5:12-16)

(가) 본문의 내용: 예수 당시 나병은 치유의 희망이 없는 죽음의 병이었다. 그러나 마태는 이 이적을 마태복음의 첫 번째 이적으로 소개함으로 예수의 권능이 어떠함을 보여준다.²³⁴⁾ 또한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나병의 치유라는 이적을 통해 마태복음의 독자층인 유대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잘 알고 있고 가장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와 구원자로 믿고 있는 모세와 예수를 비교하여 예수를 모세보다 더 큰 분, 모세보다 더 위대한 분이라고 증거하려고 한다.²³⁵⁾

(나) 환경: 나병은 모든 악성 피부병을 말하는 것이었으며²³⁶⁾, 나병환자는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져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 살아야 했고 그들을 접촉하는

233) Mark Knapp, and Judith Hall,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476.

234) 이진희, *유대적 배경에서 본 복음서*, 369.

235) 김득중, *복음서의 해석과 설교* (서울: 성서연구사, 1999), 351.

236) *뉴인터프리터 스테디 바이블 표준새번역*, 개정판 (Nashville: Abingdon Press, 2008), 1720.

것은 금기였다(레 13:1-45). 또한 나병환자가 나음을 입은 경우는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깨끗해졌음을 확인받아야만 사회생활로 복귀가 가능했다(레 14:1-32).

(다) 대화 거리: 환자를 접촉할 수 있는 45cm 이내의 친밀한 거리이다.

(라) 제스처: 환자에게 고개를 저으며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한다.

(마) 신체접촉: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몸에 댄다. 예수는 말씀만으로 충분히 이적을 일으킬 수 있지만, 접촉을 통해 환자에게 심리적인 효과를 준다. 올더(Older)는 접촉이 주는 심리적인 요인에 대해, 환자는 건강 호전에 대한 강한 필요성을 느끼고, 치유자의 힘에 대해 매우 깊은 신뢰를 갖게 되며, 격려를 받고, 믿음이 강화되며, 환자와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감정이 절정²³⁷⁾에 달하게 된다고 한다.

(바) 얼굴표정: 미소를 통하여 환자에게 치유의 희망이 없다는 부정적인 해석을 완화시킨다.

(사) 시선: 환자를 응시하며 확신을 주고, 동공을 확장하여 긍정적²³⁸⁾인 메시지를 전해준다.

(아) 목소리: 울림이 있고, 단조롭지 않고, 비음이 섞이지 않은 저음인 목소리로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하여 환자가 온화함을 느끼도록 한다²³⁹⁾.

(2) 가나안 여자의 딸 치유 (마 15:21-28; 막 7:24-30)

(가) 본문의 내용: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사는 가나안 여자의 딸을 치유함으로써 이방인에 대해 갖고 있던 문화적, 인종적,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종교적 장벽과 편견에 도전한다.²⁴⁰⁾

(나) 환경: 가나안 여자라는 이방인은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의 특권에서 제외

237) Mark Knapp, and Judith Hall,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372.

238) Mark Knapp, and Judith Hall,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480.

239) Mark Knapp, and Judith Hall,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511.

240) *뉴인터프리터 스토디 바이블 표준새번역*, 개정판, 1738.

되어 있다고 믿었으며,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에 비교²⁴¹⁾하곤 했다.

(다) 대화 거리: 여인이 예수에게 무릎을 꿇고 간청하는 것으로 1m 이내의 개인적인 거리를 유지한다.

(라) 제스처: 간청하는 여인에게 대답하지 않고 거절의 답을 할 때에는 여인에게서 뒤를 돌아서 있다가, 여인을 향해 돌아서며 대답을 하고 여인의 눈높이에 맞춰 한쪽 무릎을 땅에 대며 앉아 치유를 선포한다.

(마) 얼굴표정: 예수가 말한 개는 일반적으로 이방인을 지칭하는 야생 들개가 아니라 애완용 강아지²⁴²⁾를 의미한다. 이는 악의적인 농담은 아니지만 유대인의 이방인에 대한 시선을 인정하는 풍자적인 어조이다.²⁴³⁾ 예수의 풍자적 어조를 간파하고 대범하게 개가 되기로 응수하는 자기 검비의 긍정적 여인을 보며 예수는 유쾌한 웃음을 짓는다.²⁴⁴⁾

(바) 시선: 예수와 여인은 위트를 나눌 만큼 서로에게 확신이 있으므로, 서로를 응시하며 대화한다.

(사) 목소리: 예수는 여인의 청을 거절할 때는 냉담한 목소리로, 여인의 청을 들어줄 때는 유쾌한 목소리로 말하여 여인의 간청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유쾌한 목소리와 냉담한 목소리의 결합으로 환자의 문제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관여를 나타내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이다.²⁴⁵⁾

(3) 소경의 치유 (마 20:29-34; 막 10:46-52; 눅 18:35-43)

(가) 본문의 내용: 예수가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두 거지 소경을 만나 그들을 고침으로써 예수는 유대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 취급을 당하는 하류인생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왕임을 보여준다.²⁴⁶⁾

(나) 환경: 거지 소경을 통하여 비록 율법은 이스라엘 가운데 가난한 자를 배

241) 이진희, *유대적 배경에서 본 복음서*, 380.

242) *마태복음*, 호크마 주석, 197.

243) 차정식, *묵시의 하늘과 지혜의 땅*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148.

244) 차정식, *묵시의 하늘과 지혜의 땅*, 148.

245) Mark Knapp, and Judith Hall,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519.

246) Max Anders, and Stuart K. Weber, *Maid Idea*로 푸는 *마태복음 (Holman New Testament Commentary Matthew)*, 김창동 역 (서울: 디모데, 2003), 453.

려하고 있지만, 실제론 거지들과 관계를 맺으면 자신이 부정하게 될까봐 이들과 관계를 맺으려 한 자들은 없음²⁴⁷⁾을 들추어낸다.

(다) 대화 거리: 소경들을 접촉하는 45cm 이내의 친밀한 거리를 유지한다.

(라) 제스처: 가던 길을 멈추고 뒤로 돌아서며 소경들을 향해 다가가 그들 앞에 쫓그려 앉아 대화한다.

(마) 신체접촉: 소경의 눈에 손을 댄다.

(바) 얼굴표정: 소경들을 바라볼 때 34절의 '민망히 여기다(스플랭크니조마이)'의 표현은 '내장이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란 뜻이다.²⁴⁸⁾ 예수는 형용할 수 없는 슬픔과 동정심을 갖춘 얼굴로 그들을 바라본다.

(사) 시선: 소경이라 예수의 얼굴을 보고 있지 못하지만, 예수는 가없는 마음으로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그들의 눈에 손을 댄다.

(아) 목소리: 자상하면서도 단호하게 그들의 소원을 물으므로, 그들은 확신과 기대를 갖고 소원을 아릴 수 있다.

(4) 풍랑을 잔잔케 함 (마 8:23-27; 막 4:35-41; 눅 :22-25)

(가) 본문의 내용: 예수가 귀신에게 명할 때 꾸짖는 것처럼, 바람과 바다를 꾸짖자 잔잔해 지는 것을 통해 악의 세력들이 예수에게 굴복함을 보여준다.²⁴⁹⁾

(나) 환경: 당시 바다는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세력을 위협하는 힘으로 오랫동안 이해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출애굽(출 14-15장)의 홍해 건넌 것과 바빌론에서의 해방(사 43:1-2) 같이 바다를 지배하기를(시 69:1-3, 30-36)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같이 하신다.²⁵⁰⁾

(다) 대화 거리: 배 안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므로 45cm의 접촉 가능한 거리에 있는 이들도 있고 3m 이내의 일반적인 거리 안에 있는 이도 있다.

(라) 제스처: 모세가 홍해에서 한 것처럼, 권능의 오른손을 바다 위에 펴고(출

247) Max Anders, and Stuart K. Weber, *Maid Idea*로 푸는 마태복음, 453.

248) 차정식, *목사의 하늘과 지혜의 땅*, 171.

249) 이진희, *유대적 배경에서 본 복음서*, 386.

250) *뉴인턴프린터 스타디 바이블 표준새번역*, 개정판, 1722.

14-15장) 바람과 바다에게 명령한다.

(마) 얼굴표정: 입술을 다물고 무표정하게 위엄과 권능을 나타내는 얼굴로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다.

(바) 시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애정을 갖고 응시함으로 안도감을 갖게 하고, 바람과 바다를 위협적으로 응시함으로 자연을 지배한다.

(사) 목소리: 큰 소리로 제자들과 바람과 바다를 꾸짖지만, 제자들은 예수의 지배적인 큰 소리에 오히려 자신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안정감과 기대감을 갖게 된다.

(5) 오병이어의 기적 (마 14:13-21; 막 6:30-44; 눅 9:10-17, 요 6:1-14)

(가) 본문의 내용: 예수는 급식이적을 통해 세상의 왕인 헤롯은 낭비가 넘치는 연회를 하지만, 예수는 병 고침과 사람들을 먹이는 활동을 통해 풍부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룩된다는 것을 보여준다.²⁵¹⁾

(나) 환경: 세상은 신들이 황제를 통하여 먹을 것을 제공한다고 선전하지만, 예수는 작은 빵과 물고기를 이용해 실제로 굶주린 군중을 먹이는 이적을 베푼다. 빈 들에서 급식이적을 행함으로써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출 16장)를 먹이며, 엘리사가 베푼 이적(왕하 4:42-44)을 상기시킨다.²⁵²⁾

(다) 대화 거리: 빈 들에서 제자들은 예수께 가까이 있었으나, 5천에서 2만 명에 이르는 무리들은 넓게 퍼져 있다.

(라) 제스처: 모든 이들이 예수의 행동을 볼 수 있도록 빵과 물고기를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해 축복기도를 한다.

(마) 신체접촉: 아프고 배고픈 군중들을 긍휼히 여기며 손을 대며 치유하고 격려한다.

(바) 얼굴표정: 긍휼과 사랑이 가득한 마음이 온화한 미소에 비춰진다.

(사) 시선: 한 사람씩 응시하기도 하며 군중들을 훑어보기도 하여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251) 뉴인터프리터 스테디 바이블 표준새번역, 개정판, 1736.

252) 뉴인터프리터 스테디 바이블 표준새번역, 개정판, 1736.

(아) 목소리: 보통 빠르기와 보통 세기의 음성으로 그들을 궁핍히 여기며 사랑하고 있음을 표현한다. 보통 슬프거나 애정을 느낄 때에는 빠르기와 강도가 감소한다.²⁵³⁾

라.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

(1) 성전을 정화 (마 21:12-13; 막 11:15-19; 눅 19:45-48; 요 2:13-22)

(가) 본문의 내용: 예수는 성전에서 부당한 이득과 거래가 취해지는 잘못된 체제를 비판하고 상과 의자를 둘러앉는 행위를 통해 현재의 성전이 무너질 것임을 상징한다.²⁵⁴⁾

(나) 환경: 성전세를 내기 위해 존재했던 환전상과 유월절 희생제물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붐비는 혼란한 성전 뜰에서 예수는 상징적인 행동을 한다.

(다) 대화 거리: 예수는 성전 뜰의 3m 내외의 일반적인 거리 안에서 사람들을 내쫓고 환전상의 상과 희생제물을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앞으며 군중들의 시선을 끈 뒤 성경을 인용하며 외친다.

(라) 제스처: 담대하게 검지손가락을 펴며 하늘을 가리켜 '내 집'을 강조하고, 다시 군중을 향해 포인팅하며 '너희'를 지적한다.

(마) 신체접촉: 사람들을 잡아끌어 내쫓고, 상과 의자를 둘러앉는 접촉을 한다.

(바) 얼굴표정: 의도적으로 화가 나고 슬픈 표정을 지어 군중들의 감정을 자극한다.

(사) 시선: 군중들을 노려보는 것처럼 응시를 길게 하여 긴장감 있게 분위기를 압도한다. 또한 구속사역의 계획에 따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자극할 필요가 있음으로 길게 응시한다. 어떤 사람에게 적대적이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에게 불안감을 주기 위해 응시를 사용할 수 있다.²⁵⁵⁾

(아) 목소리: 크고 빠른 목소리로 군중들에 대한 지배력을 높인다.

253) Mark Knapp, and Judith Hall,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518.

254) 이진희, *유대적 배경에서 본 복음서*, 393.

255) Mark Knapp, and Judith Hall,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471.

(2) 무화과나무 저주 (마 21:18-22; 막 11:12-14, 20-24)

(가) 본문의 내용: 이 사건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언과 연관이 있으며,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암시적인 사건이다.²⁵⁶⁾

(나) 환경: 무화과는 1년에 두 종류의 열매를 맺는다. 3월말에 시작해서 4,5월에 걸쳐 열매를 맺는 것을 바아쿠르(baakoor)라고 하는데, 이는 맛은 있으나 상품의 가치는 없어 누구나 따먹을 수 있는 것이고, 앞서기가 풍성하게 자라 8월에 본격적으로 열매를 맺는 키르무스(kirmoos)가 있다.²⁵⁷⁾ 본문의 무화과는 전자에 해당한다. 또한 '산더러 바다에 빠져라'라고 하는 표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산을 옮긴다고 하는 말은 불가능한 일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상투적인 말이다.²⁵⁸⁾

(다) 대화 거리: 제자들과 함께 1m 내외의 친밀한 거리 안에 있다.

(라) 제스처: 무화과 나무를 검지손가락으로 가리켜 저주한다. 그리고 뒤를 돌아서며 제자들을 본다.

(마) 얼굴표정: 실망스런 표정과 엄한 얼굴로 나무를 저주한다.

(바) 시선: 제자들을 하나씩 응시하며 그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준다. 보통 청자들은 자신을 응시하는 발화자를 보다 설득력 있고, 유식하며, 정직하고, 진실성이 있으며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판단한다.²⁵⁹⁾

(사) 목소리: 또박또박하며 낮은 소리로 권위를 나타낸다.

(3) 예수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 (마 26:6-13; 막 14:3-9; 눅 7:36-50; 요 12:1-8)

(가) 본문의 내용: 한 여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다가 죽을 것을 알고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 이

256) 이진희, *유대적 배경에서 본 복음서*, 396.

257) 이진희, *유대적 배경에서 본 복음서*, 395.

258) 이진희, *유대적 배경에서 본 복음서*, 397.

259) Mark Knapp, and Judith Hall,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478.

여인의 행위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의 행위와 비교된다.²⁶⁰⁾

(나) 환경: 본문의 향유는 막 14:3에 의하면 ‘나드’향이었다. 이것은 매우 귀하고 비싸서 과 같은 고귀하신 분에게 바쳐지는 것이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향유 옥합의 가격이 300 데나리온이라 하는데, 이는 일반 노동자 한 사람이 일 년 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과 맞먹는다.²⁶¹⁾ 또한 식사 도중에 그 잔치의 가장 귀한 예빈에게 향유를 부음으로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유대의 전통적 관습이었다(시 23:5).²⁶²⁾ 향유라는 후각적 경험을 통해 이 사건을 후각을 상기하며 기억하게 한다.

(다) 대화 거리: 한 식탁의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으로서 여인과 제자들과 가까운 거리 내에서 대화한다.

(라) 제스처: 여인의 행위를 보고 화를 내며 헛된 낭비를 했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의 손사래를 치며 여인의 행동을 칭찬한다.

(마) 신체접촉: 한 식탁위에 있는 제자들과는 물론 여인과의 예수의 머리와 발에 기름을 붓는 행위동안 자연스러운 접촉이 있다.

(바) 얼굴표정: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여인의 행위에 대한 고마움의 미소를 짓는다.

(사) 시선: 제자들을 응시하며 여인의 행위의 의미를 전하고 여인을 바라보며 그 행위를 인정하고 축복한다.

(아) 목소리: 큰 음량과 빠른 속도로 제자들을 설득하고 속도와 음색에 변화를 주어 이해와 기억을 증진시킨다.²⁶³⁾

260) 뉴인터프리터 스토리 바이블 표준새번역, 개정판, 1762.

261) 마태복음, 호크마 주석, 323.

262) 마태복음, 호크마 주석, 323.

263) Mark Knapp, and Judith Hall,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524. 울버트 (Woolbert)는 속도, 강도, 음조, 음색 등의 변화조건은 변화되지 않은 조건에서 보다 더 청중의 기억력을 증진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4) 마지막 만찬 (마 26:26-30; 막 14:22-26; 눅 22:15-20; 요 13:21-30; 고전 11:23-25)

(가) 본문의 내용: 예수는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최후의 만찬으로 행하며, 자신의 죽음에 관해 설명한다. '잔'은 곧 그의 '피'며, '피'는 생명을 주고(레 17:14), 노예생활에서 해방(출 12:12-13)시키며, 하나님의 신실(출 24:8)하시다는 것을 잔을 상기시킨다.²⁶⁴⁾

(나) 환경: 제자들은 유월절 만찬을 위해 다락방을 예약해 놓았고, 예수는 제자들과 유월절 관례대로 포도주를 마신다. 하지만 유월절 식사의 포도주는 구약성서적인 것은 아니고, 신구약 중간기 문헌인 희년서(Jubilees)에 언급되어 있다.²⁶⁵⁾

(다) 대화 거리: 다락방 안에서 한 상에서 함께 식사하는 가까운 거리를 유지한다.

(라) 제스처: 빵을 들고 축사하고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마) 신체접촉: 가까운 거리 내에서 식사를 하며 몸이 닿고 음식 그릇 속에서 손이 닿기도 한다. 특히 먹고 마시는 체험은 최후의 만찬을 더욱 의미 있게 기억하도록 한다.

(바) 얼굴표정: 유월절 식사는 출애굽의 구원을 상기하는 식사이므로 시종 밝은 얼굴로 식사한다.

(사) 시선: 예수는 12명의 제자 모두에게 애정 깊은 시선을 준다.

(아) 목소리: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호소력 있게 말한다.

(5) 예수께서 돌아가심 (마 27:45-50; 막 15:33-41; 눅 23:44-49; 요 19:28-30)

(가) 본문의 내용: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시고 돌아가시다.

(나) 환경: 낮 열두시부터 예수가 운명하신 오후 세시까지 계속 어둠이 온 땅

264) 뉴인터프리터 스테디 바이블 표준새번역, 개정판, 1763.

265) 이진희, 유대적 배경에서 본 복음서, 409.

을 덮었는데 이것을 초자연적인 현상이다. 구약 예언서에도 해와 달과 별들이 그 빛을 잃는다는 표현들이 많다(욥 2:10, 31; 3:4; 4:15; 사 13:10; 렘 13:16; 암 8:9).²⁶⁶⁾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시편 22:1의 기도와 같다.

(다) 대화 거리: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있고, 군중들은 3m 60cm의 가시청 거리를 유지한다.

(라) 얼굴표정: 극심한 육체의 고통으로 인상을 쓰지만 눈을 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대속의 제물로서의 겸손함을 나타낸다.

(마) 시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인류 죄악을 위해 마련해 두신 진노와 심판의 잔을 마신다는 메시지를 보여준다.²⁶⁷⁾

(바) 목소리: 마지막으로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절규하며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충만한 대가를 자신의 온몸으로 친히 치르고 계신 예수의 뜨거운 사랑을 보여준다.²⁶⁸⁾

이상의 20개의 본문과 그곳에서 추정된 비언어적 요소들은 어디까지나 성경 본문과 당시의 유대적 배경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요소를 바탕으로 하되 본 연구자의 상상력으로 유추한 것임을 밝힌다. 그러나 비록 설교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의 비언어적 행위를 상상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할 순 없지만, 성경의 내용을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언어적 행위를 상상해 보는 것은 효과적인 설교전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그러므로 설교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당시의 환경과 예수님과 청중사이의 대화거리, 예수님의 제스처, 신체적 접촉, 얼굴표정, 시선, 그리고 목소리의 특징을 충분히 상상한 후에 그 내용에 맞는 비언어적 요소들을 가미한다면 청중들은 그 설교를 눈으로 보며 그들의 마음에 그림을 그릴 것이다.

266) 이진희, *유대적 배경에서 본 복음서*, 424.

267) *마태복음*, 호크마 주석, 360

268) *마태복음*, 호크마 주석, 360.

제 3 절 설교자들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설교의 목적은 청중의 변화이다. 효과적인 설교는 청중의 전 인격에 이야기되어 그 감동이 생각, 의지 그리고 감정으로 느껴진다.²⁶⁹⁾ 설교가 감동과 지적 동의를 넘어 의지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청중은 변화를 시작한다. 그러기에 설교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청중을 위한 것이다. 설교의 소유가 청중에게 있는 것이라면 설교를 청중이 듣도록 전달하는 것은 설교자의 당연한 의무이다. 그러나 청중이 듣도록 전달하는 것은 개념이 아니라 실천적인 일이다. 그것은 곧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 본 연구자는 설교자의 비언어적 행위가 효과적인 설교전달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현재 미국과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7인의 설교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비언어적인 특징을 살펴보고, 설교자들이 활용하고 개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1. 현대 설교자 7인의 비언어적 특징

다음에 언급하는 7인의 설교자들의 선택은 현대인의 변화된 특성을 잘 이해하는데 기준을 두었다. 현대인은 수직적인 의사소통에서 탈피하여 본인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설교자를 선호하고, 온라인상에서도 계속 교체하면서 직·간접적으로 라이프 코칭(life coaching)을 받길 원하며, 이성적인 사고방식보다는 감동과 위로 속에서 확실한 비전을 보여주는 설교자를 원한다. 그러한 면에서 다음에 등장하는 7인의 설교자들은 마치 물과 같은 사람들이다. 물이 무색이며 모든 것에 수용되며 막힘 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들은 청중의 색에 맞추느라 자기 색깔을 고집하지 않고, 청중의 수용을 위해 비언어적 행위를 많이 사용하고 현대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복음이라는 본성은 변함이 없으며 더욱이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확실히 선포하며 청중들을 시원케 하는 새로운 설교자들이다.

269) John Ortberg 외 15명, *위대한 설교 (Great Preaching: Practical Advice from Powerful Preachers)*, 박경철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5), 232.

가. 맥스 루케이도 (Max Lucado)

그는 백발의 지혜자 같은 신뢰감과 안정감이 풍기는 설교자이다. 그는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약 1만 명이 출석하는 오크힐스교회(Oak Hills Church, San Antonio, Texas)의 담임목사이다. 또한 크리스티애니티투데이(Christianity Today) 잡지에서 선정한 2005년의 미국의 목사(America's Pastor)이며, 리더스 다이제스트(Reader's Digest)가 선정한 미국의 가장 뛰어난 설교자(The Best Preacher in America)이다.

다음은 2013년 5월 12일 어머니의 날(Mother's Day)에 28분간 했던 "For This Child I Prayed (삼상 1:27)"라는 설교에서 본 그의 비언어적 특징이다.

그는 "Happy Mother's Day!"로 축하하며 유머와 위트 있게 mother's day에 관한 짧은 에피소드로 시작한다. 그러나 독립된 인사말로 그치지 않고 본문의 주인공 한나(Hanna)와 연결한다. 한나와 사무엘과 관련된 본문을 주해할 때 그것은 고대의 역사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대에 이해하기 쉬운 예와 함께 주해를 한다.

대형 화면에서는 필요할 때마다 설교에서 인용하는 본문과 설교의 대지를 띄우고 설교자의 모습도 전체, 상반신 또는 얼굴 중심으로 변화를 주어 보여주므로 설교자의 인자하고 미소 있는 얼굴이 더욱 강조된다.

그는 설교할 때 강대상 옆으로 나오지만 강대상 주변에 머물러 있으므로 큰 움직임은 없다. 그러나 짧은 머리, 안경, 이어 마이크 (ear microphone) 그리고 넥타이 없이 재킷만 입은 모습은 청중에게 자유로움과 편안한 느낌을 준다.

그는 보통 말할 땐 두 손을 맞잡은 자세를 취하고 가끔씩 천천히 두 손을 이용하기도 한다. 설교의 서론에선 안경을 쓰고 시작하지만 본론에 들어가선 오랫동안 안경을 벗은 채로 설교한다. 한 손을 주머니에 넣기도 하고 한 손으론 벗은 안경을 잡고 말하는 모습에서 연륜을 느낄 수 있다.

그는 인자한 얼굴에 자주 미소를 짓는다. 가끔씩 짓는 입이 옆으로 크게 벌어지는 큰 미소는 마치 청중 각자에게 미소를 짓는 것처럼 느껴지며, 주로 정면을 주시하나 좌, 우로 작은 동작으로 고개를 돌리기도 한다.

그의 목소리는 보통의 속도이며, 중요한 대지를 말할 땐 천천히 또박또박 반복하

여 청중의 기억과 집중을 돕는다. 설교도중 잠시 멈춤(pause)이 있을 때 동시에 입가에 미소를 짓는데 그때 설교를 음미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결론에선 주인공 한나의 고통이 현대에 사는 우리의 고통임을 인식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를 주심을 낮고 울림이 있는 목소리로 가까이서 말하듯 선포한다. 이어서 한나가 고통 중에서 기도하지만 그녀에게 평화가 임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도록 잔잔한 반주와 남녀 듀엣의 노래가 있고, 그후 다시 한 번 반주에 맞춰 설교의 내용을 상기시켜준다.

그의 설교는 쉽고 대지가 빠르게 전개되며, 사람들이 공감하는 죄와 고통과 연약함을 드러내며 그의 외형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부드러운 목소리, 인자한 얼굴 그리고 편안한 미소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희망을 선포하므로 청중이 복음을 가슴에 담아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된다.

나. 티 디 제이크 (T. D. Jake)

그는 사자의 소리로 청중의 감성과 경험을 깨우는 열정의 설교자이다. 그는 어렸을 때 말더듬이였지만, 1979년에 목회를 시작하여 지금은 30,000명의 교인으로 텍사스주 달라스(Dallas, Texas)에서 가장 큰 흑인 교회 포터즈하우스(Potter's House)의 담임목사이다.

다음은 2013년 4월 7일에 1시간 동안 했던 “The Grand Finale”(눅 24:44-53)이란 설교에서 본 그의 비언어적 특징이다.

그는 먼저 자신이 본문을 읽되 음성의 높낮이와 세기 그리고 목소리의 변화를 통해 드라마틱(dramatic)하게 읽음으로 청중을 본문으로 들어가게 한다. 교회당의 조명은 전반적으로 밝게 유지하고 설교자와 무대는 방송의 효과를 위해 더욱 밝게 한다. 그는 흑인 특유의 리듬감과 함께 온 몸을 사용하며 강단의 끝과 끝을 움직이며 때로는 강단의 뒤에 있는 청중을 위해 뒤를 돌아서기도 한다. 강단의 계단을 따라 앞으로 나오기도 하며 청중들과의 개인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가끔씩 청중들에게 말을 따라하도록 하여 청중 모두를 설교에서 빠져 나가지 못하게 한다.

그의 외형은 주머니 수건(handkerchief)을 꽂은 흰색의 양복에 넥타이, 안경 그리

고 큰 금반지를 꺼서 화려하고 이어 마이크를 차서 자유롭다. 또한 큰 움직임으로 박수를 자주 치고 주먹으로 손바닥을 침으로 강한 에너지를 전달한다.

그의 얼굴은 웃음도 많고 장난기도 보이며 때로는 역센 얼굴로 다양한 표정을 짓고, 앞뒤 좌우의 모든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며 때로는 한곳을 응시하며 청중들과 교감한다. 그리고 온통 땀을 흘리며, 속삭이기도, 소리치기도, 부르짖기도, 노래하기도, 춤을 추기도 하며 무대 위의 모노드라마 배우같이 열정적으로 설교한다. 특히 그의 말하기는 빠르게 말하고 잠깐 멈추고 다시 말하는 패턴이다. 때로는 쉬지 않고 한 숨에 빠르게, 동시에 소리를 높이고 손바닥을 한 번씩 치며 말할 때는 청중들의 물입이 고조에 달한다.

그는 결론 부분에서는 음악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선포한다. 감성을 터치하는 음악과 설교자의 반복되는 외침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열정적인 그의 손과 걸음의 움직임은 청중들이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나 선포되는 복음을 가슴에 담도록 한다.

그는 확신에 찬 복음의 열정과 리듬감이 풍부한 목소리와 움직임으로 청중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오게 하여 거인과 같은 인생의 문제를 용기 있게 맞서 싸우게 한다.

다. 주드 윌하이트 (Jud Wilhite)

그는 도시를 밝히는 촛불 같은 설교자이다. 그는 도박과 향락의 도시인 라스베이가스(Las Vegas, Nevada)에서 2만 명이 출석하는 센트럴크리스찬처치(Central Christian Church)의 담임목사이다. 그 교회는 오프라인의 교회와 주일에 교회를 나올 수 없는 이들을 위한 온라인 교회로 구성되며 도시의 특성답게 락 음악과 하이테크(hi-tech)와 문화(culture)가 결합된 하이텍컬(hitechture)을 지향하는 교회이다.

다음은 2013년 5월 12일 어머니의 날(Mother's Day)에 시편 139편의 본문으로 31분 동안 설교했던 그의 비언어적 특징이다.

그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어머니의 날을 맞아 모든 어머니와 할머니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친다. 그리고 어머니가 해주시는 일들을 청중들과 질문과 대답으로 주고받

으며 생활의 사사로운 것까지도 나누는 친밀감으로 청중들을 설교 속으로 끌어들이
다. 그는 90초 안에 청중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짧은 서론 후에 빠르게 본론으로
진입한다.

그는 설교강단을 실용적으로 사용한다. 강대상은 없는 대신 평평하고 작은 테이블이
있어 그 위에 성경책, 물병 그리고 설교 원고가 올려져있다. 대형화면에 성경 본
문과 설교 대지를 띄우고, 설교에 필요한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여 청중들의 이해를
도와준다. 조명은 청중석은 약간 어둡고 설교자는 환하게 비추어 청중들의 집중력과
설교방송의 효과를 고려한다.

그는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쓰고 남방과 조끼를 입고 이어 마이크를 착용하고 주
머니에 손을 넣기도 하며 강단 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실생활의 언어와 모든 이
들에게 익숙한 이미지를 사용하며 유머로 웃음을 자아내므로 청중들과의 감정적인 거
리가 가깝게 느껴진다.

그는 양손을 자유롭게 움직이며 몸으로 상황을 묘사하는 등 몸의 움직임이 크다.
그는 자주 'You'라고 하며 청중들을 향해 검지로 지향하고, '하늘'과 '하나님'은 손을
위로 향하며 '공동체' 또는 '우리'를 말할 땐 검지를 펴고 허리 높이에서 크게 원을 돌
리며 제스처를 취한다.

그는 미소를 머금고 말을 하며, 웃는 얼굴로 고개를 크게 돌리며 모든 청중들을
응시한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는 굵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속도와 세기와 높낮이에
변화를 주며 반복을 자주 하면서 실제 대화하는 것 같이 설교한다.

그는 목소리와 제스처의 활용 그리고 유머와 어렵지 않은 생활의 예화와 이미지
의 사용으로 청중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그러나 청중들의 상상력을 뒷받침하는 데
는 그의 뛰어난 설교의 구성이 있다.

그는 설교 안의 소주제를 말한 뒤 그것을 생활의 이야기로 풀어준다. 그 다음 성
경의 본문을 보여주고 주해를 시작한다. 그리고 같은 내용의 다른 본문을 제시하므로
성경을 떠나지 않는다. 그 다음은 또 생활에서의 이야기와 유머러스한 이야기로 청중
의 이해를 사로잡고 진지한 내용의 의미를 전달한 후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증거하여
청중이 예수 안에서 감동을 누리도록 한다.

그는 단지 라스베가스(Las Vegas)에 걸맞는 기술과 문화와 쇼맨십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이테크(hitechture)이라는 도구를 이용하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이요 살 길임을 진지하게 전한다. 한마디로 그는 거대하고 차가운 네온사인 앞에 전략적으로 작지만 따뜻한 촛불을 밝히는 설교자이다.

라. 마크 드리스콜 (Mark Driscoll)

그는 도구에 능숙한 가슴 뜨거운 설교자이다. 그는 40대 초반으로 매주 13,000명이 모이는 시애틀(Seattle, Washington)의 마스힐(Mars Hill) 교회의 담임목사이다. 그는 2010년의 프리칭(Preaching Magazine)잡지에서 선정한 지난 25년간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 25인 중의 한 명으로 선정되었고, 아이튠즈(Itunes)의 종교와 영성(Religion & Spirituality) 차트에서는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설교자이다.

다음은 2013년 1월 20일에 1시간 5분간 했던 “Who Do You Think You Are?” 시리즈 중 두 번째인 “I Am in Christ” 설교에서 본 비언어적 특징이다.

그의 설교는 시리즈의 주제 동영상으로 시작한다. 그는 학부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한 목사답게 비디오카메라를 효과적으로 이용한다. 카메라의 위치나 각도에 많은 변화를 주고 촬영하며, TV 모니터를 가까이 두고 설교하므로 청중은 설교자와 보조 자막을 시선의 분산 없이 한 번에 볼 수 있다. 작은 강대상과 TV 모니터를 같은 색으로 일치시키고, 다섯 걸음 이내의 거리를 두고 배치했다. 이것은 설교자의 동선과 카메라의 위치를 고려한 것이며, 많은 카메라에서 잡은 다양한 화면을 빠르게 전환함으로써 짧은 청중들의 감각을 따라가고 있다. 조명 또한 오직 설교자와 무대에만 집중하여 설교방송의 효과와 청중들의 집중력을 돕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인 보완덕분에 설교자가 청중에게 실제로 가까이 갈 순 없지만 카메라의 근접촬영의 효과로 청중들과 설교자가 가까이 있는 것 같다.

그의 외형은 짧은 머리에 흰색 남방, 청바지, 캐주얼 재킷으로 깨끗하고 간소한 이미지를 나타내고, 이어 마이크로 설교의 자유로움을 보여준다.

그의 손의 특징은 두 가지를 비교하는 말을 할 때 한손씩 이용하며 말하고, 청중을 지향하는 손짓을 할 땐 검지로 지시하지 않고 손을 약간 오므린 채로 손바닥이 보이도록 손 전체로 지향한다. 또한 바지 주머니에 한손을 잠깐씩 넣기도 하며 몇 걸음

씩 움직이는 것은 자연스럽게 편안한 모습으로 비춰진다.

그의 얼굴엔 미소가 있고 그의 눈은 주로 정면을 주시하나 특정한 사람을 응시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고 있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빠른 속도이며 약간 탁한 음색이라서 목소리만으로는 집중력이 떨어진다. 하지만 목소리의 단점을 카메라 촬영과 화면전화의 효과와 양손의 제스처로 극복한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안의 은혜를 말할 때는 말하는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목소리가 커지며 동시에 두 손의 행동도 커진다. 이러한 목소리와 손의 움직임은 언어의 내용을 더욱 강조해주는 효과가 있다.

그가 예수 안에서 갖는 희망과 비전을 큰 소리로 선포할 때 청중은 그의 진정성을 느끼며 확신과 감동을 갖게 된다. 그 역시 하이테크와 문화를 능숙하게 이용하지만 그의 가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열정의 설교자이다.

마. 앤디 스탠리 (Andy Stanley)

그는 청중을 변화의 샘플로 이끌어 가는 목자와 같은 설교자이다. 그는 조지아 (Alpharetta, Georgia)에서 매주 24,000명이 넘게 모이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노스포인트커뮤니티교회 (North Point Community Church)의 담임목사이다. 그는 2007년에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인 13위에 이름이 올랐으며, 2010년에는 현존하는 미국의 최고의 설교자 10위에 선정되었다.

다음은 2013년 4월 7일에 39분간 했던 'Follow' 시리즈 중 첫 번째 'Jesus Say' (마 9:9-13)라는 설교에서 본 그의 비언어적 특징이다.

그는 시리즈 설교의 주제 영상으로 설교를 시작한다. 무대에는 강대상은 없고 의자와 TV 모니터를 배치하여 자연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며, 모니터를 이용하여 설교의 내용을 문장의 형태로 요약해 준다. 조명은 강단에 집중되어 있고 짧은 머리에 긴 소매를 접은 남방과 청바지가 활동적이고 편안함을 보여 주며, 이어 마이크를 착용하고 강단을 이리저리 다니며 청중들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한다.

그는 팔의 제스처를 계속해서 사용하며, 특히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인용할 때 청중을 향해 검지손가락으로 지향하며 청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소유하게 한다.

그는 항상 미소를 띠고 있으며 청중을 설득할 때 눈을 크게 뜨며 말하고 시선은 좌우, 정면, 가깝고 먼 거리를 번갈아 보며 응시한다. 또한 목소리는 매우 빠른 속도로 말하며 의성어도 많이 사용하여 표현의 생생함을 느끼게 한다. 그러다 가끔 속삭이는 소리로 말하며 청중들의 집중력을 극대화한다.

그의 설교는 빠른 속도와 여백 없는 연결, 반복되는 표현과 의성어의 사용 그리고 유머러스한 말과 TV 모니터를 활용하는 것이 전문 강사(speaker)의 강연 같다. 그러나 그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예수 중심의 설교이다. 그는 청중들의 갈등을 꼬집어내어 그 갈등의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선포하며 모든 청중이 설교 안의 주인공이 되도록 적용과 비전을 자세하게 말한다.

그는 갈등 많은 인생에서 목말라 하는 청중들을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께 인도하며 나아가는 목자와 같은 설교자이다.

바. 김승욱²⁷⁰⁾

그는 오직 본문에 충실한 겸손한 강해 설교자이다. 그는 11살에 도미하여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1.5세로서 약 1만5천명이 출석하는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할렐루야교회의 담임목사이다.

다음은 2013년 5월 5일에 47분간 했던 ‘주 말씀 향하여’ (요 11:7-16)라는 설교에서 본 비언어적 특징이다.

그는 단정한 머리와 짙은 색의 양복, 핑크빛의 넥타이와 손목시계를 찬 신사의 이미지에 편 마이크를 가슴에 달고 원고 없이 넓은 강단을 좌우로 다니며 설교한다. 아직 이러한 모습은 한국교회의 청중들에겐 익숙지 않지만 반듯한 그의 외형과는 다르게 반전에 가까운 자유로운 그의 설교 스타일은 청중의 마음에 호기심과 기대감을 갖게 한다.

원고에서 자유로운 그의 모습을 대하며 파격적인 설교의 내용을 은근히 기대했지만 그는 지체 없이 본문의 주해로 들어간다. 설교의 90퍼센트 이상을 본문의 강해에 할애하지만 그는 자칫 지루할 수 있는 성경의 내용을 세밀하게 묘사된 이야기에

270) 그는 미국 이민자 1.5세로서 한국교회에 청빙되었으며, 그의 비언어적 행위는 십대부터 30여 년간 받아온 자연스러운 문화적 영향이다.

신기 때문에 청중은 텍스트가 쓰인 고대 안에(in ancient times) 머물러 모든 상황을 눈으로 보게 된다.

그는 강단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청중들을 응시하기도 하지만 혼자 위를 보거나 바닥을 내려다보기도 하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실제로 가까이서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그의 양손은 자유로우므로 두 손 또는 검지를 이용한 제스처를 많이 쓴다. 두 부류를 대조할 땐 한 손씩 사용하며 대조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말할 때는 양손의 검지를 청중에게 향하여 '당신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메시지를 강화한다. 설득할 때는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손을 만들어 설교자의 간절함을 표현하고 '천군천사'는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예배와 찬양'은 두 손을 아래에서 위로 들어올리며, '주의 백성'은 양손을 청중을 향해 펴 보이는 행동을 보여줌으로 청중들이 함께 설교를 소유하게 한다.

그의 얼굴에는 항상 온화한 미소가 있고, 낮고 굵은 목소리는 설득력을 더한다. 그러다 높고 강한 목소리를 내어 강조할 땐 설교자의 확신과 청중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다.

그는 긴 주해가 끝나면 바로 적용으로 들어간다. 그때 강단 앞으로 한걸음 나와 두 손을 깎지 끼고 차분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부드럽게 호소하는데 그 모습에서 성도를 격려하고 아끼는 진정성을 볼 수 있다.

그는 부드럽지만 카리스마 있고 겸손하지만 확신에 찬 오직 성경으로만 말하는 고집스러운 장인(artisan) 같은 설교자이다.

사. 김병삼²⁷¹⁾

그는 디테일(detail)의 복음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유쾌한 설교자이다. 그는 뛰어난 동시대적 감수성으로 현대예배를 이끌어가고 있으며 매주일 5-6천명이 모이는 분당 만나교회의 담임목사이다.

다음은 2013년 5월 12일에 40분간 했던 '천국 가는 길 (진실하라)' (마 5:17-20)이라는 설교에서 본 비언어적 특징이다.

271) 그는 "예배의 문제는 신학적 문제이기 전에 문화이해의 문제"라고 전제하며 뛰어난 현대 문화의 감수성을 예배에 적용하는데 능하다.

그는 현대 문화와 청중에 대한 감수성이 뛰어나므로 설교를 시작하며 밝은 음정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청중들을 축복하여 그들의 마음에 따뜻함과 친근함을 준다. 그의 말투와 외형은 유쾌하고 장난스럽기까지 하지만 그 내용은 정치적인 이슈를 예로 들어 설교의 주제대로 '진실하지 못한 문제'를 지적하며 진지하게 설교의 결론을 먼저 꺼내 놓는 정면승부를 한다.

그는 짙은 색의 양복, 흰색의 와이셔츠, 붉은 계열의 넥타이와 색상을 맞춘 주머니 수건(handkerchief), 그리고 반지와 손목시계로 단정한 멋을 낸다. 그리고 이어 마이크는 자연스러운 설교의 전달을 돕는다.

현대문화 수용에 관대한 그는 청중들의 이해를 위해서라면 말하지 않아도 느끼게 하는 주제에 맞는 소품들을 자주 사용한다. 뿐만 아니라 두 손의 제스처를 많이 사용한다. 유대인의 '정결예법'을 말할 때 두 손을 씻는 행동을 보여준다든지 진지하게 주장을 할 때에는 손을 강하게 흔든다든지 청중에게 강조할 땐 검지를 그들에게 지향한다. 그렇게 강하게 말하다가도 분위기를 바꿀 땐 두 손을 모으며 소리를 낮춤으로ダイナミック한 설교를 만든다.

유쾌함이 묻어있는 그의 얼굴엔 항상 미소가 있지만 미간을 찌푸리며 심각한 표정도 짓는다. 그리고 그는 유머의 사용과 책 속에서 얻은 이야기를 통해 진지한 내용을 재미있게 살려내고 때로는 청중에게 질문을 직접 하기도 하며, 시선을 좌우의 청중에게 돌려가며 응시하고 어떤 사람에겐 눈을 번쩍이며 말하므로 청중의 집중력을 붙들어 놓는다.

그는 결론을 맺으면서 강단에서 한 걸음 걸어 나온다. 그때는 설교의 클라이맥스로서 박수를 치기도 하고 팔짱을 끼며 말의 속도도 빨라진다. 이러한 모습에서 청중들은 설교자의 마지막 간곡한 권면을 보며 진정성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설교의 주제와 맞는 찬송을 부르며 청중들의 감동을 고조시킨다.

그는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임을 믿는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앞에 보여주려고 현대의 문화로 세상에 노크하는 소통의 설교자이다.

이 시대엔 유명한 설교자들은 많이 있지만 유능한 설교자는 그리 많지 않다. 설교자의 유능함이란 설교의 목적대로 청중의 변화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자가 살펴본 7명의 설교자들은 이미 현대의 청중들과 의사소통하기 위

해 설교전달의 패러다임을 변화하였고, 기독교의 위기 속에서도 탁월한 영향력을 끼쳐 청중들의 변화를 돕고 있다. 현대의 다감각²⁷²⁾적인 미디어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이제 그것에 익숙해져 단 한가지만으로는 의사소통에 집중할 수 없다. 오늘날의 현실은 현대인들은 움직임이 없거나, 색깔, 음성과 시각효과, 그리고 음악이 부족한 따분한 강의와도 같은 설교에 오랫동안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²⁷³⁾ 그러므로 유능한 설교자들은 청중을 지향하여 비언어적 행위를 더욱 사용함으로써 명확하게 전달하며 청중들의 다감각적인 인식능력에 영향을 끼치는 자들이다.

2. 비언어적 행위가 청중에게 미치는 영향

청중의 변화를 이끄는 설교는 먼저 청중에게 인식된다. 이 작용을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은 청중에게 느껴지는 설교자의 공신력(credibility)²⁷⁴⁾이다. 아무리 깊은 주해와 탁월한 전달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청중이 설교자에게 진정성을 느낄 수 없어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설교자의 행위는 그저 빈 외침에 지나지 않는다.

공신력이란 청중이 전달자에게서 전문성과 신뢰성을 지각하는 것이다.²⁷⁵⁾ 그리고 전문성은 전달자의 교육, 경험 및 연령, 지위, 사회적 배경 등에 의해 구성되고 신뢰성은 전달자의 성격, 외양, 표현 방법 및 의도에 의해 좌우된다.²⁷⁶⁾ 그런데 공신력의 평가는 청중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에 설교자는 그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설교 속에 녹여 보여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설교전달을 위한 설교자의 비언어적 행위는 설교자의 공신력을 높여주는 한 방법이 된다.

공신력 평가를 위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행위 연구 중에서 메라비안과 윌리엄스 (Mehrabian & Williams, 1969)는 공신력에 영향을 미치는 비언어적인 특징으로

272) John Ortberg 외 15명, *위대한 설교*, 262

273) John Ortberg 외 15명, *위대한 설교*, 265.

274) 이현경, “비언어 전달행위가 커뮤니케이터 공신력 평가에 미치는 영향,” 37. 공신력이란 특정한 주제에 관계없이 커뮤니케이션 효과에 있어서 커뮤니케이터의 메시지를 수용하는 정적인 영향, 혹은 메시지를 거부하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커뮤니케이터 속성의 종합 (set)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속성은 커뮤니케이터 자신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수용자들의 지각과 판단에 의하여 평가되는 것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275) 이현경, “비언어 전달행위가 커뮤니케이터 공신력 평가에 미치는 영향,” 33. 공신력이란 개념은 1951년 호블랜드 (Hovland)를 주류로 하는 예일 (Yale)학파에 의해 발전되었다.

276) 이현경, “비언어 전달행위가 커뮤니케이터 공신력 평가에 미치는 영향,” 39.

발성, 발음, 음질, 속도, 휴지, 억양, 신체적 매력, 자세와 몸가짐, 시선처리, 응시행위, 표정들이 설득효과와 관련이 높다고 주장했다.²⁷⁷⁾ 국내에서도 뉴스앵커의 공신력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전달행위가 많이 연구되어 왔는데, 그 구성요인으로 신체언어(얼굴표정, 제스처, 자세, 시선 및 응시행위 등), 유사언어(말의 속도, 띄어 읽기, 억양, 음높이, 목소리 크기, 발음, 음색 등), 신체적 외양(체격, 인상, 의상 및 헤어스타일)등을 꼽고 있다.²⁷⁸⁾

이를 근거로 앞에서 보았던 7인 설교자들의 공신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언어적 특징과 청중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비언어적 행위	특징	청중에게 미치는 영향
환경의 이용	설교자 조명	설교자에게 집중하기 좋다
	설교자 옆 TV 모니터에 자막 띄움	설교자와 대형화면 사이에서 시선이 분산되지 않는다
	설교 주제에 맞는 동영상	설교 주제를 인식하게 된다.
	설교 주제와 맞는 소품	소품을 보며 설교의 이해가 쉽다.
	작은 강대상이나 테이블	강단의 위압감이나 권위에서 벗어나 설교자에게만 집중하기 쉽다.
대화거리	청중들이 있는 곳을 향해 강단에서 자연스럽게 돌아다님	청중들과 가까워 지므로 청중은 설교자와 개인적인 거리에 있다고 느낀다.
외모	짧은 머리와 안경	지적으로 보인다.
	넥타이와 주머니 손수건	감각있게 보인다.
	양복, 손목시계	단정하고 정확해 보인다.
	남방, 조끼, 청바지	편안하고 친근해 보인다.
	악세사리나 반지	너무 화려한 것은 시선을 빼앗거나 위화감을 조성한다.

277) 이현경, “비언어 전달행위가 커뮤니케이터 공신력 평가에 미치는 영향,” 54.

278) 이현경, “비언어 전달행위가 커뮤니케이터 공신력 평가에 미치는 영향,” 61.

제스처	손과 몸의 움직임	설교의 표현이 더욱 생생해져 내용을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청중을 향해 손가락 지시	청중은 자신에게 설교를 적용시킨다.
자세	주머니에 손을 넣음	미국과 한국의 문화차이가 있으나 한국의 정서로서는 잠깐의 행위는 자연스러운 행위로 이해할 수 있으나 습관처럼 손을 넣으면 청중의 집중에 방해가 되거나 장시간 넣고 있으면 거만한 태도로 오해하게 된다.
	두 손을 각지 끼거나 앞으로 두 손을 모음	설교자의 겸손함 또는 진지함을 느끼게 한다.
얼굴표정	미소	설교자가 청중에게 애정을 갖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눈을 크게 뜬	강조와 설득, 또는 놀람을 느낀다.
	눈을 작게 뜬	문제를 지적하거나 비웃고 있음을 느낀다.
	무표정하고 입을 굳게 다문	분노나 노여움을 느낀다.
	코를 찡그리거나 아래 입술을 위로 올림	혐오스러움을 느낀다.
	미간이 찌푸려짐	심각함을 느낀다.
시선	응시함	감정이 전달되거나 설교자의 정직성과 자신감을 느낀다.
목소리	낮고 깊은 저음	부드러운 호소력을 느낀다.
	숨소리	활기, 또는 긴장감을 느낀다. 그러나 너무 잦으면 천박함을 느낀다.
	빠르고 큰 소리	열정을 느끼거나 지배당함을 느낀다.

	세기, 높낮이, 빠르기의 변화	설교자가 생기있고 외향적이라고 느껴진다. 설교에 다이내믹이 생겨 집중력이 생긴다.
	휴지 (pause)	설교의 멈춤과 함께 청중은 생각을 한다. 이를 통해 깊은 이해와 통찰 및 적용을 하게 된다.
	반복	적당한 반복은 내용이 명쾌해지나 반복이 너무 잦으면 지루함을 느낀다.

〈표 7〉 현대 설교자들 7인의 비언어적 특징이 청중에게 미치는 영향

그러므로 7인의 설교자들의 설교가 청중들에게 다감각적으로 인식되는 설교로 수용되고 그들을 설득하여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원인은 청중들이 그들에게 공신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그 공신력은 그들의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 4 장

감성적 설교전달을 위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방법 및 적용

제 1 절 설교전달을 위한 비언어적 행위

설교 전달에서 비언어적 행위는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계지영 교수는 “설교자는 그의 메시지가 청중들에게 잘 전달됨으로써 설교의 사건(oral event)이 일어나고, 설교가 완성되는지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가지고 좋은 말씀의 전달자(communicator)가 되어야 한다”²⁷⁹⁾고 한다. 설교의 사건이 일어나고 설교가 완성되는 것이 무엇인가? 청중의 변화이다. 그러므로 청중의 변화는 설교를 통해 일어난다. 그래서 설교자에게는 설득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설교자들의 설득력에는 개인차가 있다. 그 차이는 위에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²⁸⁰⁾에서 생기기도 하지만 개인의 성격, 학업, 경험 등에서 빚어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설득력은 각고의 노력으로 지금보다 더 능력 있게 만들 수 있다. 역사에서 한 시대를 이끌었던 각 분야의 리더들은 대부분 타고난 설득력을 가진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약점과 한계를 극복한 사람들이었다.

단신이었던 나폴레옹은 체구를 크게 보이도록 하는 연출법을 통해 위엄을 만들었고, 허스키한 목소리와 사투리를 고민하던 링컨은 핵심을 찌르는 간결한 말로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냈다. 처칠은 허잡은 소리와 말더듬을 극복하고 분위기를 압도하는 명연설로 국민의 마음을 움직였고,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미국 국민의 정의감을 자극하는 구절을 인용하는 방법을 통해 백인우월주의라는 장벽을 넘어 미국사회에서 흑인의 발언권을 고양시켰다. 대처는 여성 특유의 화사함을 부각시키는 이미지 메이킹과, 통계수치나 역사적 사실 등을 인용하여 설득력을 높이는 전략을 구사하여 남성 중심

279) 계지영, *현대설교학개론*, 195.

280) 고린도전서 12:8

의 영국 의회에서 성차별을 극복하고 수상이 되었다.²⁸¹⁾

이렇듯 비언어로 언어를 보완할 수 있고 비언어의 약점은 또 다른 비언어의 강점으로 극복할 수 있으므로 비언어의 적절한 사용은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현대의 많은 교회와 설교자들이 과거보다는 많이 비언어적 요소를 활용하고 있다. 그것은 한국교회의 강단을 위해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청중 지향의 패러다임에서 비롯된 비언어적 행위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설교자들이 설교자의 입장이 아닌 청중의 입장에서 시각의 변화를 준다면 지금 당장 쉽게 개발할 수 있는 비언어적 행위가 많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설교전달을 위한 비언어적 행위의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설교전달에 있어 비언어적 행위의 실제

현대의 강단이 제단(altar)으로서의 의미보다는 실용적인 무대(stage)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며 현대적인 예배와 설교에 대한 각 교단과 개 교회와 목회자들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 이러한 이유로 새로운 예배와 설교 전달의 변화는 호불호(好不好)의 논쟁 속에서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설교자들이 현대 교회의 위기를 인식하고, 오늘의 청중들은 들리는 설교, 소유하는 설교 또는 삶의 변화를 이끄는 역동적인 설교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설교자 자신 또한 설득력 있는 설교를 하기 원한다면 다음에서 제시하는 비언어적 방법들을 활용해 볼 것을 권한다.

가. 환경의 이용

(1) 조명

설교자와 무대를 집중하고 청중석을 약간 어둡게 함으로 청중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

281) James C. Humes, *링컨처럼 서서 처칠처럼 말하라 (Speak Like Churchill Stand Like Lincoln)*, 이채진 역 (서울: 시아, 2003), 10-11.

(2) TV 모니터

설교 중 자막을 이용할 때, 대형화면 위에 자막이 올라오면 청중은 설교자와 화면 사이에서 시선이 분산된다. 그러나 설교자 옆에 TV 모니터를 놓은 상태에서 모니터에 자막이 올라오고, 동시에 한 화면으로 설교자와 TV 모니터를 잡으면 청중들은 시선을 분산시키지 않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3) 작은 강대상이나 테이블

현대의 청중들은 권위보다는 친밀감을 원한다. 그러므로 작고 실용적인 것을 사용하면 시야의 답답함과 심적인 권위감에서 벗어나 설교자에게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4) 이어 마이크

양손이 자유로워지므로 손의 움직임으로 메시지의 의미를 보완할 수 있다.

(5) 개인용 모바일 기기의 이용

설교 중 청중들이 설교자의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개인용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문자로 전송하면 대형 스크린에 뜨도록 하여 청중이 설교에 참여하도록 한다. 이때 설교자는 청중의 반응을 보며 설교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고 다른 청중들은 타인의 생각과 느낌을 보며 자신과 비교할 수 있다.

나. 대화거리

(1) 강단위에서의 움직임

설교자 개인과 청중들의 정서를 고려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설교자가 강단 위에서 청중이 있는 곳을 향해 좌우와 앞으로 걸어가면서 상체를 앞으로 움직이며 설교할 때 청중은 심리적으로 설교자와 더 가까운 거리 안에 있다고 느낄 수 있다.

(2) 비디오 카메라 효과

설교자를 잡는 카메라의 촬영 각도와 원거리, 근거리의 변화를 주어 청중이 느끼는 심리적인 거리 변화에 효과를 줄 수 있다.

다. 외모

(1) 두발

두발은 개성에 따라 변화를 줄 수 있으나 보통 짧은 머리가 청중에게 단정함을 주어 호감을 줄 수 있다.

(2) 의복 및 액세서리

설교자가 예복을 착용하지 않는다면 설교자는 자신이 입고 있는 의복에 대해 색깔의 조화, 검소성 및 원만함에 이르기까지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이 좋다. 복장에 대한 제일의 원칙은 복장이 설교자의 메시지보다 그 자신에게 주의를 끌도록 한다면 그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다.²⁸²⁾ 그러므로 청중의 정서에 따라 양복이나 캐주얼 차림 모두 가능하나 단정함과 자신감으로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고려하는 것이 좋다.

282) 정장복 외, 설교학 사전, 654.

라. 제스처

설교자의 모든 신체동작은 의미를 지닌다. 그의 손짓, 몸짓 또는 손가락 지시와 같은 제스처는 설교에서 말로 하지 않은 뜻을 더욱 보강한다. 그래서 설교자의 노련한 몸짓과 서투른 몸짓은 설교를 돕든지 방해한다.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 주먹, 손바닥 등을 사용하거나 몸으로 사물이나 상황을 흉내 내는 것은 청중이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이러한 제스처는 설교의 초반보다는 청중이 설교 속에 젖어들 때부터 서서히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²⁸³⁾

마. 자세

설교자가 잠시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강대상을 잡고 의지할 수 있으나 그러한 자세가 청중들에게 거만하게 비춰지거나 또는 너무 뻣뻣하게 고정된 채로 서있어 답답하게 보이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청중들은 설교자의 겸손하면서도 확신에 찬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끼므로 결론의 강조와 권면의 부분에서 두 손을 모으거나 포갠 자세의 겸손함과 팔과 다리를 약간 벌린 긍정적²⁸⁴⁾인 진지함을 보여줄 수 있다.

바. 미소

설교자의 인자한 미소는 청중에게 친밀감을 갖게 하고 설교자의 애정을 느끼게 하므로 청중이 설교를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도록 돕는다.

283) 정장복 외, *설교학 사전*, 655.

284) 이현경, “비언어 전달행위가 커뮤니케이터 공신력 평가에 미치는 영향,” 59. 1976년 카터와 포드의 대통령 후보자 토론에서 카터는 1차 토론에서 패한 뒤 2차 토론에서는 응시, 힘찬 제스처, 팔과 다리를 벌린 긍정적 자세, 큰 목소리로 비언어적 행위를 바꾼 결과 승리했다.

사. 청중을 응시

설교자의 응시의 방향(direction)과 양(amount)은 대체로 설교자의 관심과 자의식 및 감정을 나타낸다. 그래서 보통 눈 맞춤의 시간이 적을 때는 상대방이 나에게 무관심하거나 수줍어함을 의미하며 그 시간이 길 때는 높은 관심과 자신감을 갖는 것으로 생각한다.²⁸⁵⁾ 청중은 설교자의 응시를 받을 때 설교자의 감정을 전달받고 그의 설교의 정직성과 자신감을 느끼게 되므로 적당한 응시는 효과가 있다.

아. 목소리

설교자의 목소리는 다른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보다도 청중들에게 공신력을 높여주는 영향력이 있는 요소이다. 목소리만으로도 인물의 성, 나이, 성격, 직업, 출신지, 감정상태, 지위나 권력, 사회 계층 등을 파악할 수 있다.²⁸⁶⁾ 이현경이 인용한 데이빗츠(Davitz)의 음성적 요소와 감정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크기	높낮이	속도	리듬
애정	부드러움	낮음	느림	규칙적
분노	시끄러움	높음	빠름	불규칙적
따분함	비교적 낮음	비교적 낮음	비교적 느림	-
기쁨	시끄러움	높음	빠름	규칙적
슬픔	부드러움	낮음	느림	불규칙 혹은 중단
만족	보통	보통	보통	규칙적
조급함	보통	보통 혹은 비교적 높음	비교적 빠름	-
즐거움	비교적 높음	비교적 높음	비교적 빠름	규칙적

〈표 8〉 감정상태에 따른 목소리의 특징²⁸⁷⁾

285) 이현경, “비언어 전달행위가 커뮤니케이터 공신력 평가에 미치는 영향,” 67.

286) 이현경, “비언어 전달행위가 커뮤니케이터 공신력 평가에 미치는 영향,” 90.

287) J. Davits, *The Communication of Emotional Meaning* (New York: McGraw-Hill,

그러므로 설교자가 목소리의 특징을 이해하고 크기와 높낮이, 속도와 리듬에 변화를 주는 것은 청중이 설교자의 의도를 이해하며 설교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게다가 대인 커뮤니케이션보다는 미디어를 매개로 한 커뮤니케이션이나 연설, 설교와 같은 대중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보통 속도보다 1.5배 빠르게 말할 때 가장 설득력이 있다.²⁸⁸⁾ 또한 말이 나뉘는 부분에서 잠시 멈춤(pause)을 두는 것은 듣는 이의 주의를 끌고 메시지 이해와 전달을 쉽게 할 수 있다.²⁸⁹⁾ 그래서 휴지(pause)는 “사려 깊은 침묵”²⁹⁰⁾이다. 그리고 목소리의 크기는 메시지의 정확한 전달과 청중의 집중에 영향을 주며 높낮이의 변화는 청중에게 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므로 청중을 졸리게 하거나 지루하게 만드는 단조로운 소리(mono tone)을 조심해야 한다. 특히 설교자 자신에게도 부담이 안 되고 청중에게도 편안한 음높이를 찾아야 하는데, 설교자에게 맞는 음높이는 일반적으로 설교자가 가장 자연스럽게 낼 수 있는 저음으로부터 약 3도 정도 위(one-third of an octave)가 자신의 음높이²⁹¹⁾임으로 이것을 기준삼아 설교자는 부담 없이 설교하고 청중은 편안하게 들으며, 높낮이의 변화로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이렇게 몇 가지 비언어적 행위의 변화로도 설교는 새로운 맛을 내게 된다. 설교의 내용이 음식의 주재료라면, 설교의 비언어적 행위는 음식의 맛을 내는 양념과 조리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음식의 맛이 없다면 재료 또한 소용없게 된다. 그러므로 현대의 설교자는 재료이나 양념과 조리법이나를 따지는 이원론적 사고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음식을 먹는 청중의 입장에 서서 한 음식의 완성으로서의 통합적인 사고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1964); E. Baird, *The Dynamic of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New York: Harper and Row, 1977), 49; 이현경, “비언어 전달행위가 커뮤니케이터 공신력 평가에 미치는 영향,” 91에서 재인용.

288) 이현경, “비언어 전달행위가 커뮤니케이터 공신력 평가에 미치는 영향,” 98.

289) 이충섭, “음성언어와 신체언어의 전달방안-원활한 토의형 학습을 위해서,” *국어교육분과* 3:1, 13; 이현경, “비언어 전달행위가 커뮤니케이터 공신력 평가에 미치는 영향,” 101에서 재인용. 휴지 (pause)는 말의 30-40퍼센트를 차지하며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단어나 구절을 계획하는 경우 침묵의 휴지 (unfilled pauses 혹은 silent pauses)가 있고 복잡한 문장을 이야기할 때 ‘음’, ‘아’, ‘어’와 같은 소리를 내는 휴지 (filled pauses)가 있다.

290) 정장복 외, *설교학 사전*, 626. 주승중은 목소리를 통한 구두 커뮤니케이션의 네가지 요소는 소리의 높이, 말의 강조, 말의 속도, 휴지기라고 한다.

291) 정장복 외, *설교학 사전*, 624.

제 2 절 비언어적 행위를 활용한 설교

다음은 설교자가 이용할 수 있는 비언어적 행위를 첨가한 본 연구자의 설교문이다. 이 설교의 구조는 도입 - 전개 - 결과 - 결론 - 적용 - 비전의 구조이다. 도입에서는 인생의 갈등을 가볍게 제기하고, 전개에서는 본문 안에서 볼 수 있는 고대의 갈등과 현대를 사는 청중들의 생활에서 겪고 있는 갈등을 심화적으로 보여주며, 결과에서는 갈등을 해결하시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본문의 주해와 실생활의 예로 증거한 후, 결론에서는 결과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근거로 우리 인생에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다. 그리고 적용에선 청중들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비전에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의 변화되는 모습을 선포한다. 이러한 구조를 따라가면서 비언어적 행위를 묘사하는 부분에서는 편의상 비언어를 #으로 표기하고 1, 2, 3의 번호를 붙여 순서대로 작성하고자 한다.

- 제목 : 풍랑 안에서 누리는 평화
- 주제 : 두려워하는 제자 곁에 계시는 예수님
- 목표 : 두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
- 본문 : 마 14장 22-33절
- 준비물 : 영화 '퍼펙트 스톰'의 거대한 파도 장면 클립, 오케스트라 연주음악 '내 평생에 가는 길', 무대조명, 대형 선풍기, 바람에 날리는 큰 천, 강단 위 TV 모니터, 찬양곡 '주 품에'

(# 1 :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오케스트라 반주음악과 영화 '퍼펙트 스톰'의 거대한 파도위에서 싸우는 배 한척이 나오는 부분의 동영상을 믹스하여 2분간 상영, 정면의 대형화면 이용)

도입 - 두려움

(# 2 : 동영상은 끝나고 찬송가 반주음악은 약하게 깔려 있는 동안 정면의 청중들을 응시하며 설교의 첫 문장을 천천히 낮은 목소리로 말함)

인생의 두려움은 나의 신발과도 같습니다.

(# 3 : 첫 문장이 끝나면 음악이 끝나고 낮은 신발 이미지를 정면 대형화면에 올림)

(# 4 : 양손을 내보이며 말함) 두려움이란 녀석은 늘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따라 다니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 5 : 한 손을 청중을 향하며 물음) 아침에 일어나서 잠 자기 전까지, 아니 잠을 자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두려움이란 녀석이 여러분의 마음의 집에 들락날락 하지 않습니까?

(# 6 : 청중들의 문자전송, '지금 갖고 있는 당신의 걱정은 무엇인가요?'의 질문에 참여하도록 함, 그후 몇 가지를 소개한다.)

저에게 있는 오래된 두려움중 하나는 칠면조의 두려움입니다. (# 7 : 무서운 칠면조 이미지 정면 대형화면에 올림, 미소 지움) 어릴 적, 3살 정도일겁니다. 혼자 마당에서 놀고 있는 저에게 영화 아바타에서나 볼 것 같은 형형색색의 얼굴을 가진 칠면조가 달려들었지요. 어린 제 눈에는 그 칠면조가 집채만 하게 보였었지요. (# 8 : 눈을 크게 뜬 채로 양손을 크게 벌리며 말함) 그때 슈퍼맨처럼 등장한 아버지의 작대기가 사건을 해결해 주었지요. 그러나 그 날 놀란 뒤로는 칠면조가 지금까지 혐오스럽습니다. 그래서 칠면조 고기를 맛있게 먹지 못하지요. 칠면조 때문에 저는 미국생활 부적응자로 2년 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 9 : 입을 옆으로 크게 벌리며 미소 짓고, PAUSE 후 성도를 응시하며 다음문장 말함)

(# 10 :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말함. 모든 청중들이 두려움을 인식하도록 청중들을 응시함)

사실 우리는 많은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 재해를 두려워하고요, 동물을 두려워하기도 하지요. 아무리 작다해도 벌레를 끄적이 여기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요, 사람을 무서워하는 이들도 있지요. 이웃을 경계하기도 하고요. 낯선 이들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지요.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까지도 두려워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게다가 TV에서 보도되는 갖가지 공포의 소식들은 우리를 더욱 두려움에 빠뜨립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 11 : 청중을 향해 한 손을 내밀) 숨습니까? 도망잡니까? 당당히 맞서 싸웁니까? 아니면 도움의 손길을 구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두려움에 떠는 이들이 등장합니다. (# 12 : 약간 빠른 작은 목소리로 다급한 분위기 잡음, 서서히 '퍼펙트 스톱'의 긴장되는 부분의 음악을 넣는데 들릴 듯 말 듯한 음량으로 함) 그들은 칠후 같은 어둠이 내린 깊은 밤, 극심한 풍랑 속에서 작은 배 하나에 몸을 의지한 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두려움을 극복했을까요?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우리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

(# 13 : 설교자 옆의 TV 모니터에 표준새번역 버전의 본문을 한절씩 띄움, 설교자는 드라마틱하게 낭독, 낭독이 끝나면 음악은 FADE OUT)

전개

1. 본문속의 문제 - 제자들의 두려움

고단했던 하루를 보내고 저녁이 되어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배에 들어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하루 종일 하셨던 예수님도 지쳐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는 사람만 피곤한가요? 듣는 것도 얼마나 피곤합니까? (# 14 : 위트 있는 말투, 미소 지음) 제자들도 하루 종일 예수님의 집회에 참석했고, 저녁에는 남자만 오천 명이라 하니 대략 2만 명의 남녀노소의 사람들에게 식사를 서빙하느라 지치고 지쳤을 것입니다.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을 기다리던 제자들은 그만 배안에서 곧 잠이 들었지요. 그런데 그 사이 바람이 배를 육지에서 수리나 멀리 보냈습니다. 요한복음에선 10여리라고 하더군요. 배는 밤사이 4-5km나 떠나간 것이지요. 제자들은 얼마나 고단했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갈릴리 풍량이 갑자기 몰아쳤어요.

(# 15 : 강한 폭풍우 음향 효과, 무대 옆에 미리 숨겨 두었던 대형 선풍기에서 강한 바람이 나옴, 설교자의 옷과 머리카락이 흔들리고, 종이가 날아가도록 함, 앞에 앉은 청중들은 바람을 느끼도록 해야 함) (# 16 : 폭풍우 소리 효과를 약하게 지속시킴) 잔잔한 갈릴리 호수에 갑자기 강한 풍량이 이는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 17 : 손의 제스처 사용) 하나는, 눈 덮인 헬몬산의 찬 공기가 골짜기를 타고 내려와서 갈릴리의 더운 공기와 만날 때 돌풍이 일어나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중해에서부터 불어오던 바람이 갈릴리 상공을 지나다 아주 드물지만 급강하 하여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 예측하지 못한 거친 풍량이 일어나지요.

갈릴리에는 이런 돌풍이 갑자기 불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대부분은 어부였습니 다. 그들은 갈릴리의 갑작스런 풍량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풍량 속에서 배를 다루는 일에 익숙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풍량은 보통 이상이었나 봅니다. 제자들은 풍량과 싸우다 몹시 지치고, 어찌 할 바를 모르고 멘탈이 붕괴되기에 이르렀습 니다. (# 18 : 효과음 FADE OUT).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 19 : 청중에게 손가락으로 지향하는 제스처) 만약 놀이동산의 바이킹이나 롤러코스터 정도라면, 겁은 나도 안전하게 멈춘다는 믿음이라 도 있겠지요. 하지만 한밤중의 돌풍을 맞은 배안에선 생명구원의 믿음이 과연 있었을 까요? (# 20 : 고개를 젖는 제스처)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 21 : 목소리를 약하게 하고 몸을 움츠리는 제스처) 그들이 돌풍과 몇 시부터 싸웠는지 모르겠지만,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면서도 최선을 다해 싸웠을거예요. 그러다보니 어느새 밤 4경, 새벽 3-6시 사이가 되었지요. 그들은 지칠 대로 지쳤을 거예요.

(# 22 : 빠르고 큰 목소리로)

그런데 이번엔 더 강력한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 23 : #15 보다 더 큰 소리 를 내고, 무대 위의 조명은 강하고 약하게 반복, 선풍기로 강한 바람을 재연함) 유명 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바람과 물과 싸우느라 무시무시한 시간을 지내고 있었지요. 그 런데 물위로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눈엔 그들을 잡으러 온 저승사 자 같았을 거예요. “아악~”, “이번엔 또 뭐야!!” (# 24 : 소리를 지르며 머리를 움켜잡 음)

2. 현실의 문제 - 우리의 두려움

(# 25 : PAUSE 후 자연스런 목소리로 자연스럽게 설명)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에 새로운 감옥이 세워졌습니다. 수 백 년 동안 많은 죄수들을 수용해 온 낡은 감옥 대신 현대식 시설의 감옥이 세워졌지요. 새 감옥으로 옮겨진 죄수들의 하루 일과는 옛 건물로 와서 전기 장치와 가스관을 떼어 내는 작업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감옥 벽을 헐어내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을 다시 보니 육중한 쇠문마다 커다란 자물쇠가 채워져 있고, 쇠창살의 두께가 5센티미터가 되었어요. 보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럴 수가... (# 26 : 잠시 망설임의 PAUSE) 감옥의 벽은 겨우 종이와 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었어요. (# 27 : 가슴을 울리며 눈을 크게 뜨며) 죄수들은 모두 경악을 했죠.

왜요? (# 28 : 가슴을 내리고 차분하게 설명하는 목소리로) 수감되어 있는 동안 한 번만이라도 벽을 세계 건어찼더라면 충분히 탈옥이 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수들은 단 한명도 없었지요. 왜냐하면 감옥 안에 갇히면서 두려움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탈출은 꿈도 꾸지 못했던 거지요.

(# 29 : 좌우의 청중들을 천천히 응시하며, 두 손으로 설교자 자신을 가리키며)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두려움의 포로 같습니다. 처음에 두려운 일을 만나서는 간신히 참으며 살아보는데, 거기에 또 겹치는 두려움이 나타나면, 그 다음엔 유령을 본 것같이 그 두려움이 더욱 커지게 되요.

(# 30 : 강단 위를 조금씩 걸어가 멈추고 두 손을 모으고 청중을 응시하며 말함, 문장이 시작될 때 이 패턴을 몇 번 반복함)

- 우리 민족은 특별히 두려운 일을 많이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 일제 식민지의 박해를 겪었습니다. 일본의 민족말살정책 아래서 뺏기고 끌려가고 맞고 죽어야만 하는 두려움을 겪었습니다.
- 해방돼서 숨도 고르기 전에 전쟁의 고통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는 두려움, 가족과 헤어지는 두려움, 가족의 생사를 알 길 없는 두려움, 수많은 전쟁고아들의 두려움을 겪었습니다.
- 사람도, 시설도, 땅도 남은 게 없는 폐허가 된 땅에서 살아가는 게 죽을 만큼 힘이

들었습니다.

· ‘잘 살아보자’고 모두들 허리띠 졸라매면서 달려갔지만 독재정권 아래서 숨죽여야만 했습니다.

· 그래도 경제적으로 좀 나아지나 했더니 IMF 금융위기를 맞았습니다.

·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의 내면의 인성이 파괴되어 가면서 사회 곳곳에 더 많은 악이 생겨나 그 피해를 나도 모르는 사이 우리 모두가 겪고 있습니다.

· 그리고 쉽지 않은 이민생활의 고통이 우리 모두를 마치 출렁이는 파도위에서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종이배를 타고 있는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모든 두려움의 경험들이, 내 안에서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 31 : ‘우리’는 양손을 설교자 자신의 가슴에 대고, ‘내 안에서’는 양손을 청중을 향해 펴는 제스처) 그래서 소망을 갖기보단, 희망을 확신하기 보단 매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끼니가 되고 있습니다. (# 32 : 고개를 저으며, 청중에게 손을 펴는 제스처) (# 33 : 강단을 조금 걸어가서 멈춘후 청중을 응시하는 패턴으로 자연스럽게 설명함)

· 나의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남들보다 뒤떨어질까? 걱정합니다.

· 어려운 경기 속에서 비즈니스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흉흉한 강도의 소식을 들으며, 우리 집은 안전한가? 우리 일터는 안전한가? 근심합니다.

· 캘리포니아에 쓰나미가 올까, 토네이도가 올까, 큰 지진이 날까 염려하게 됩니다.

· 전쟁이 일어나면 어찌지? 테러가 일어나면 어찌지? 걱정입니다.

· 요즘은 한술 더 떠서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베리칩과 관계한 음모론에 마음이 뻗겨 말세를 걱정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꿈은 소박해요. 정말이지 매일매일, 매순간 찾아오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 편하게 살아가고 싶은 게 우리의 꿈 아닌가요? (# 34 : 중앙으로 돌아와 미소를 지으며 양손을 청중을 향하며 말함)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내가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야’가 아니라, 나의 웃음이 평안의 웃음이 되고, 나의 노래가 즐거움의 노래가 되고, 나의 자녀에겐 무한 신뢰와 애정을 주고, 나의 비즈니스로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행복한 고민을 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의심 없이, 경계심 없이 대할 수 있고, 매일 평화의 식탁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박한 꿈을 희망할 순 없는 걸까요? (# 35 : 기도하는 손 제스처)

결과 -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예수님 (임마누엘)

(# 36 : PAUSE 후 양손을 청중에게 펴 보이는 제스처)

자, 다시 풍량이 이는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 봅시다. (# 37 : 생각해 보는 제스처로 V모양으로 손가락을 턱에 갖다 대며 강단 위를 조금 걸어가며 말함) 제자들의 두려움이 최고조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소리칠 수밖에 없었죠.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서 피곤에 지쳤잖아요. 그러니 생각도 판단도 흐려졌겠지요. (# 38 : 설교자 자신을 가리키며) 저라도 그 밤에 물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본다면, 비명을 질렀을 거예요. (# 39 : 청중을 가리키며) 여러분이라면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알아보았을까요? (# 40 : PAUSE)

그러나 비명을 지르던 그들이 곧 평안을 찾았습니다. (# 41 : 청중을 응시하되 방향을 바꾸며 물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죽을 것만 같은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었을까요? (# 42 : 양 손가락으로 청중을 지향하며) 그 해답을 여러분은 알고 계시죠? 그들 곁에 예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 43 : ‘예수님’이라고 할 때 두 손을 맞잡음)

두려워 떠는 그들 곁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두려워하는 그들 곁에 계셨습니다. (# 44 : ‘그들 곁에’ 라고 할 때 양손을 청중을 가리킴)

그렇다면, 두려워하는 제자들 곁에서 우리 주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 45 : ‘우리 주님’이라고 할 때 양손을 넓게 벌림)

(# 46 : 검지손가락을 세우며 첫 번째 명제를 말함)

먼저,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셨습니다. (# 47 : 무대 위 TV 모니터에 자막 올림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신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은 두려움이 많은 우리들에게 항상 같은 말씀을 주시지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 48 : 정면 대형 화면에 물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미지 올림)

“앗, 유령이다. 으악!”하고 떠는 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들을 꾸짖는 말이었을까요? (# 49 : 고개를 저으며)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 오십시오. (# 50 : 양 손을 청중을 향해 벌린 채로 말함) 그 두려움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고, 죄가 아닙니다. 설사 여러분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두려워하는 우리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 51 : ‘아니다’라는 말을 할 때 고개를 저음, 이미지는 OUT).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존재만으로도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 52 : 두 손을 각지 끼고 청중을 응시하며 낮고 느린 음성으로 말함)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평안해 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 53 : 청중을 향해 한발 앞으로 나오며) 두려울 때 우리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따뜻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은 주님께 가서 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 54 : 주먹을 불끈 쥐며) (# 55 : 2번의 손가락 표시와 함께 두 번째 명제를 말함)

제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안심하고 있을 때 그 다음, 예수님은 믿음의 다음 단계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 56 : TV 모니터에 자막 올림 “예수님은 우리를 믿음의 다음 단계로 이끄신다”)

베드로는 물위를 걸어오는 이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니 그분이 예수님임을 알게 됩니다. 이제 좀 안정을 찾고 나니, 예수님께에서 표적을 보고 싶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 요구하는 표적은 거절하셨지만, 베드로에게는 보여주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아도 작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에, 그의 믿음의 다음 단계로의 진보를 위해 표적을 보여주시며 부르십니다. (# 57 : 정면 대형화면에 베드로가 물위를 걷는 이미지 올림)

베드로는 요구합니다. “주님 저더러 물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래, 이리로 오너라.” 그리고 베드로도, 물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베드로가 물위를 걷습니다. (# 58 : 이미지 OUT)

(# 58 : 청중 응시하고 청중을 향해 손을 펴)

우리의 믿음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한없는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찬송과 기도가 저절로 나올 때가 있지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와 자신감이 생기지요. 그렇게 좋을 때, 가장 좋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음단계로 이끄십니다. (# 60 : '다음 단계'에서 앞으로 한 걸음을 크게 옮겨 감) (# 61 : 청중을 응시하며 양 손 검지로 청중을 향하며) 그러나 이때는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죠. 중요한 것을 놓는 순종, 값비싼 것을 포기하는 순종, 미래의 보험과도 같은 것들을 손에서 놓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물질과 명예와 자녀와 자존심을 내려놓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 62 : 마지막 문장에서선 양 손을 크게 벌리며 고개를 약간 숙이는 제스처 사용)

(# 63 : 한 문장에 한 곳씩 응시하며 말하고 문장 앞에서 망설임의 PAUSE)

- 하버드의 박사학위, 스탠포드의 박사학위를 포기하면 그럼 난 뭐가 되는거죠?
- 이 직장을 포기하면 빚은 어떻게 갚고, 아이들 학비는 어떻게 대라구요?
- 이 돈 없으면 당장 굶을 텐데요?
- 우리 애가 서울대, 연, 고대 못가면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해요?
- 제가 먼저 용서하랴구요? 그런겐 못해요. 내가 당한 걸 몰라서 그런 소릴 하시는거죠?

(# 64 : 정면의 청중을 응시하며 손을 모으고 낮은 음성으로 시작함)

우리는 순종을 원하시는 주님의 요구 앞에서 출렁이는 물결의 두려움에 또 다시 망설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주님은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가 “이리로 오너라“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출렁이는 물결 위를 밟았을 때, ‘그대 주님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구나’라고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역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표적을 보여주시어 우리를 확신 가운데 한 단계 더 성숙하도록 이끄십니다. (# 65 : ‘표적’이라 할 때 하늘로 손을 들고, ‘한 단계 더’ 라 할 때 앞을 향해 손을 뻗침)

(# 66 : 빠르고 강한 어조로 손을 강하게 흔들며 자신감 넘치게 말함)

- 내가 기도할 때 단혔던 남편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경험해 보셨지요? 그러면 우리

는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갈등 속에서 먼저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이 더 큰 것으로 갚아 주시는 것을 경험해 보셨지요?

· 담대하게 선포했더니,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해 보셨지요?

· 힘들게 원수를 용서하고자 하니, 원수가 먼저 내게 찾아오는 것을 경험해 보셨지요?

· 주님이 주시는 마음 앞에 순종하였더니, 그 다음엔 주님이 순전히 일하시는 것을 보며, 우리의 믿음이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지 않던가요?

그렇지요. 우리가 힘들어도 순종의 작은 발걸음을 내디뎠는데, (# 67 : 겹지로 발을 지향함) 나중에 보니 그것은 곧 믿음을 한 계단 더 이끌어 주신 주님의 섭리였습니다.

(# 68 : 겹지로 앞을 지향함)

(# 69 : 세 번째 손가락 표시와 함께 세 번째 명제를 말함)

임마누엘의 주님이 하시는 일 세 번째는요, 우리가 또 넘어질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 70 : TV 모니터에 자막 올림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예수님은 제자를 만들어 가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물위를 걷던 베드로는 잠시 후에 잊었던 현실을 보고 마음이 다시 뻗깁니다. 물 아래를 보자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광경, 즉 풍량이 일고 파도가 치는 바다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보다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때 베드로는 다시 폭풍우를 주님보다 더 무서워했고 그로 인해 주님을 보지 못하자 다시 성난 물속으로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 71 : 정면 대형화면에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미지 올림)

(# 72 : 정면을 응시하며 점점 높고 빠른 소리로 설득력을 더함, 동시에 적절한 손동작 사용)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믿음의 성숙함을 가진 이들도 다시 옛 사람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다시 성난 현실을 보며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이 있기까지 이러한 일을 얼마나 많이 반복하며 살아 왔나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심어주신 믿음이 작동하도록 성령으

로 이끄십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가 두려움의 물속에서 허우적대며 말합니다. “주님 살려 주십시오”. 주님은 베드로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의 입술로 다시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이끄십니다. ‘저에겐 가능성이 없으니 주님이 저를 살려 주십시오’ 두려움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더 이상 무슨 고백이 필요하겠습니까? (# 73 : 이미지 OUT)

(# 74 : 하늘을 보며 기도하는 손, 다시 청중 응시, ‘주님이 가장 듣고, 가장 사랑하시는’에서 검지를 뺌)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 짧고 단순한 외침이야말로, 주님이 가장 듣고 싶어하시는, 그리고 가장 사랑하시는 음악과도 같은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제 도저히 자신을 의지할 수 없는 마지막 순간에 다다라 주님밖에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 75 : 이야기의 전환을 위해 PAUSE)

성령의 이끄심으로 굳어지기 없이, 미사어구 없이, 솔직 담백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며, 자기의 삶을 맡기게 되자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의 문제는 그의 믿음이 의심에게 자리를 내주었다는 것이지요. (# 76 : 차분한 어조로 설명하지만, ‘그의 문제’라고 할 때 청중을 향해 고개를 젓는 제스처)

(# 77 : PAUSE 후 이야기 전환, 목소리에 변화를 주어 조금 높게 띄움)

하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고 배에 오르니, 바람이 완전히 그쳤습니다. 그리고 배안에 있던 제자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 78 : 강하고 빠르게 고조된 목소리로) 드디어 그들은 성난 파도의 두려움 속에 빠졌을지라도, 성령의 조명과 인도하심을 통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기 전까지 많은 의심이 생겼었지만, 이제는 한 점의 의심도 없이 예수님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 79 : 말의 속도를 조금 늦추면서 또박또박 강조함) 그제야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위로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방향을 확실히 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론 - 두려움을 이겨내는 두 가지 방법

(# 80 : 강대상 앞으로 한 발짝 청중들에게 가깝게 나옴, 정면을 응시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 81 : 두 손을 깎지 끼며 간곡한 권면의 모습을 보여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우리 삶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과거의 고통, 현실의 불만족함, 미래의 불안들이 한데 섞여 두려움이라는 감옥으로 우리가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만났을 때 두려움을 이겨내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 82 : TV 모니터에 자막 올림 “두려움을 이겨내는 두 가지 방법”)

(# 83 : 첫 번째 손가락 표시)

그 하나는, 두려움 속에서도 나의 옆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84 : TV 모니터에 자막 올림 “첫째, 내 옆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

(# 85 : 미소를 띠고 청중을 깊게 응시하며, 자연스러운 목소리와 속도, 정확한 발음으로 강조)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향해서 항상 하시고 계신 말씀,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말라”라는 말씀을 정신 차리고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눈을 떠보면 정말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 86 : 눈을 동그랗게 뜨고 웃으며 말함) 그러므로 눈을 흐릿하게 뜨지 마시고, 귀를 활짝 열어 그분의 음성과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 87 : 손가락으로 두 번째 표시)

또 하나는,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 88 : TV 모니터에 자막 올림 “둘째, 처음으로 돌아가기”)

(# 89 : 두 손을 모으고 미소를 띠고 청중을 깊게 응시하며 약간 빠른 속도로 설교자의 진정성과 자신감을 보여줌)

우리 모두는 주님을 만난 뒤에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또 실패와 절망과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성령의 회복시키심의 은혜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주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였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열정은 우리를 다시 구원의 감격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순수함과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더 깊은 영적 세계의 방을 열게 될 것이고, 그곳에 들어가 주님과 더 깊은 사귀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주님은 나를 더욱 단순하고 정직한 제자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살아있는 경험은 우리를 더욱 확신에 거하게 할 것이며 깊은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 90 : 내용의 전개상 빠르게 적용으로 나아가야 함)

적용

(# 91 :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목소리를 높여 선포함)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물러서지 마시고, 숨지 마십시오.
- 두려움은 현실 가운데 얼마든지 있는 당연한 것임을 인정하십시오.
- 그리고 현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 92 : 한 손을 하늘을 향해 곧게 뻗) 그분의 위로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 그러나 또 찾아오는 두려움에 직면한다면, 그뎨 마음을 지킵시다. (# 93 : 주먹 다짐)
- 두려움을 예수보다 더 크게 보면, 그것은 예수님이 책망하실 의심입니다.
- 그럼으로 그뎨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오직 주의 도움만을 기다립시다.
- (# 92 : 청중을 응시하며 검지로 여러 곳을 지시하며 또박또박 말함) 오직 주님만을 바라는 것, (# 94 : 두 손을 청중을 향해 펴며) 그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가 바로 제자입니다.

비전

(# 95 : 피아노 반주 '주 품에'가 약하게 깔림)

(# 96 : 청중 문자 참여, '오늘 설교를 듣고 난 여러분의 느낌'을 전송하고 화면을 봄)

(# 97 : 응시와 미소, 청중에게 손을 펴며 천천히 낮은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

예수님은 인생의 배에 여러분과 함께 타고 계십니다. 그 배가 순탄하게 항해할 때든지, 풍랑 속에서 흔들리 때든지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그 배에 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운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며 화평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반복되는 죄로 인해 좌절하지 마십시오. 신앙에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시험에 넘어졌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욱 여러분의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의지할 때, 여러분은 그 모든 인생의 풍랑을 이겨낼 것입니다.

그 풍랑 속에서 뒹굴며 넘어졌다 일어섰다가 반복하는 동안 여러분은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주님과 더욱 친밀한 사귄으로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풍랑 속에서 훈련된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서는 주의 나라를 위해, 주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 주님의 제자로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훈련시키시어 더 귀하게 사용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 98 : 하늘을 향해 박수를 칩)

(# 99 : '주 품에' 찬송을 함께 부름)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요약

포스트모더니즘은 이 시대의 정신이다. 이 시대는 커뮤니케이션의 변화라는 도전을 맞고 있다. 변화의 거센 도전은 설교의 전달방법에도 변화의 필요성이 있음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본 논문은 포스트모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모색하되 설교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포스트모더니즘과 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하고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비언어적 행위가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예수님과 현대 설교자 7인의 비언어적 특징을 분석하여 감성적인 설교전달을 위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제안하며 본 논문을 전개하였다. 이를 통해 설교자는 청중지향의 패러다임을 갖고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통해 청중이 오감으로 소유하는 감성적인 설교전달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본고를 대략 살펴보면, 포스트모더니즘은 인간의 이성과 과학기술이 가져다주는 유토피아를 기대하는 모더니즘에 반동하여 나타난 사상으로 인간의 성공신화를 거부하는 비관주의, 자아중심이 아닌 통전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추구, 관계의 공동체성, 상대적 진리의 다원주의, 객관적인 중심을 거부, 그리고 거대담론이 아닌 소수자의 이야기를 수용하고자 하는 의식을 갖고 있으며 문화적으로는 가치의 다면성과 혼합적인 예술성을 격려하고 느낌과 이미지를 선호하는 감각적인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커뮤니케이션은 전달자 중심의 일방적인 의사전달에서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으로 변화되어야 할 도전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커뮤니케이션은 수용자 즉 청중중심으로 인식을 변화하고 청중의 설득을 위해 간단한 설명, 이야기, 은유, 그리고 이미지를

사용하며 내용을 반복해주어 명확한 전달을 해야 하고 비언어적 행위를 사용해야 한다.

한편 포스트모더니즘은 설교전달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청중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오관으로 메시지를 인식하는 능력을 감성이라고 하는 정의에 따라 감성적인 설교전달을 위해선 설교자의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하는데, 먼저 전달방법이 변해야 한다는 전달 인식의 변화와 강단의 권위를 내려놓고 청중의 요구에 부응하는 청중지향의 설교를 해야 한다는 것과 이를 위해선 성서의 주해, 세상의 이해, 전달방법의 연구와 연습, 그리고 기도의 땀을 흘려야만 한다는 땀 흘리는 커뮤니케이터라는 3가지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 한다.

특히 본고의 감성적인 설교 전달 방법은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에 기반을 두고 있다. 먼저 비언어적 행위 유형을 크게 환경의 이용, 커뮤니케이터의 외형적 매력, 커뮤니케이터의 행위로 분류하고 예수님의 비언어적 특징과 현대 설교자 7인의 비언어적 특징에서 청중의 공신력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비언어적 행위의 유형을 커뮤니케이션 환경, 전달자와 청중의 대화거리, 전달자의 외형적 매력, 제스처, 자세, 얼굴표정, 시선, 목소리의 8가지로 분석했다. 이후 설교전달을 위한 비언어적 행위의 실제적인 방법을 8가지의 부분에서 제안했다. 첫째로 환경을 이용할 때는 설교자에게 집중을 위해 무대 조명을 사용하고, 설교자 옆의 TV 모니터 활용으로 청중의 시선 분산을 막을 수 있으며, 친밀감을 위해 작은 강대상이나 테이블을 이용, 그리고 자유로운 제스처를 위해 이어 마이크를 착용하고 청중의 설교 참여를 위해 문자전송 시스템을 이용한다. 둘째로 대화거리의 조절을 위해선 설교자의 무대 위에서의 움직임과 카메라의 기술적인 조작으로 가능하며, 셋째로 설교자의 외모로서는 청중에게 단정함과 호감을 주기 위해 짧은 머리를 유지하고 신뢰를 주기 위해 의복을 단정하고 검소하게 할 것과 과도한 액세서리의 부착을 피할 것, 넷째로 제스처로서는 설교의 중반에 들어서면서 양손의 움직임 및 적절한 손가락 지시를 하여 청중이 메시지를 소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섯째로는 두 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서서 긍정적인 진지함을 보여주거나 두 손을 모으거나 포갠으로 겸손한 모습과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다. 여섯째로는 얼굴의 미소를 통해 설교자의 청중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고, 일곱째로는 응시를 통해 설교자의 감정과 정직성과 자신감을 전달할 수 있다. 그리고 여덟째로는 목소리의 크

기, 높낮이, 속도, 리듬, 잠시 멈춤으로 설교의 다이내믹을 만들어 청중을 몰입시킬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가지의 비언어적 행위를 첨가한 설교문을 제시하였다.

제 2 절 제언

포스트모더니즘은 커뮤니케이션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인의 율법주의적인 전통과 조화될 수 없듯이 현대의 청중들에게 들려지는 설교를 새 술이라고 한다면 역시 설교의 전달방법도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 작금의 한국교회 강단의 위기는 새 술과 헌 부대라는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 없는 만고의 진리이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은 변해야 한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설교자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설교자의 영원한 고민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청중이 소유하는 설교를 할까에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설교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무엇을 전할 것인가?'라는 내용 연구가 많았다. 그러나 내용만으로도 청중에게 소유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전할 것인가?'라는 전달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본고를 통해 설교 전달의 비언어적 행위 방법을 연구하였다.

이제 오감으로 소유하는 감성적인 설교전달을 위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쓰여진 본 논문에서 얻은 결론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설교자는 이 시대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설교자가 이 시대의 청중들과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는 포스트모더니즘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완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설교자 중심의 일방적 선포가 아닌 청중이 소유할 수 있도록 내용과 전달에 변화를 주는 청중 지향의 설교로 인식을 변화할 때 비로소 효과적인 설교 전달이 시작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둘째, 설교자는 이 시대엔 반기독교적 의식이 생겨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진리의 절대성을 부인한다는 것은 곧 유일신을 거부하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 진리의 다원성을 인정하지 않고 유일신을 고집하는 기독교는 아집과 독선의 중

교로 비치게 된다. 그러므로 세상의 진리이해 방식을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진리의 강요가 아니라 진리를 경험하도록 하는데 있다. 오히려 느낌을 중요시하는 감각적인 세대가 진리를 경험하기만 한다면 이보다 효과적인 전도도 없을 것이다.

셋째, 비언어적 행위는 감성적인 설교 전달의 핵심이다. 감성이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오관을 통한 인식능력이다. 그러므로 느낌과 이미지에 익숙하고 체험을 선호하는 현대인들이 진리를 오관의 인식능력 즉, 감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선 언어를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는 비언어적 행위를 사용함으로 가능하다. 비언어적 행위가 매개가 되어 청중의 오관에 복음이 경험된다면 그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에 사로잡혀 삶이 변하게 될 것이다.

넷째, 현대의 청중은 설교자가 믿음직스럽다고 느껴질 때 귀를 기울인다. 메시지를 수용하는 것은 청중인데, 청중은 설교자에게 공신력을 가질 때에만 메시지를 수용한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청중의 공신력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달방법을 개발해야 하는데, 설교자의 비언어적 행위가 청중의 공신력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섯째, 그러므로 설교자가 환경의 이용, 대화 거리, 외형적 매력, 제스처, 자세, 얼굴표정, 시선, 그리고 목소리라는 비언어적 행위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청중이 소유하는 감성적인 설교 전달을 할 수 있다.

이 시대의 설교자들이여! 과연 영향력을 잃고 있는 강단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변화된 시대와 진지하지 못한 청중이 문제인가? 아니다. 그것은 변화된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설교자들의 무지함 때문이고, 청중과 같은 곳을 바라보지 못하는 고고한 시선의 차이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설교자들이 계속해서 청중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허공에다 말하는 것(고전 13:9)이라고 성경은 말씀한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청중에게 어필(appeal)할 수 있는 비언어적 행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시대와 세대를 이해한 설교자의 인품과 실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 한국교회의 강단에서 청중을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새로운 방법으로, 그들의 눈높이에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설교자와 청중이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으며 건강한 교회, 사회를 치유하는 교회, 그리고 조국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 교회가 이 땅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끝으로 본 논문은 전적으로 앞서 연구한 수많은 선배들과 학자들의 업적에 의지해서 얻은 미미한 결과물에 불과함을 밝힌다. 앞서 행하신 분들의 수고가 아니었다면 어떤 소득도 얻을 수 없었음을 인식하며 감사함을 전한다. 본 연구자는 설교전달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방대한 자료들이 있어도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족한 학문적 소양과 시간의 부족함을 통감하고, 예수님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에서 비언어적 사용의 역사적 근거를 풍성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연구의 한계를 인정하며 부끄럽게 본고를 마무리 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이 본 연구자의 새로운 설교 여정에 출발점이 될 수 있고, 비언어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하여 앞으로 목회의 여러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단초를 얻었다는 것에 위로를 얻는다. 또한 비록 기초단계의 미미한 연구이지만 본 논문을 통해 조심스럽게 바라는 것은 설교 전달의 문제를 인식하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갖지 못했던 설교자들에게 현대 청중들의 특징과 그들에게 수용될 수 있는 효과적인 설교전달방법을 제안했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자한다.

참고 문헌

1. 국문 서적

- 계지영. *현대설교학개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 김득중. *복음서의 해석과 설교*. 서울: 성서연구사, 1999.
- 김만식. *기독교커뮤니케이션학*. 서울: 배다니, 1999.
-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 2003.
- _____. *구원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 2001.
- 김우룡, 장소원.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파주: 나남출판, 2005.
- 김운용. *설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5.
- _____. *새롭게 설교하기*. 서울: 예배와설교아카데미, 2007.
- _____.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설교*.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7.
- 김은철. *가슴 시원한 설교*. 서울: 콤파출판사, 2010.
- 김정현. *설득커뮤니케이션의 이해와 활용*.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 노영상. *미래교회와 미래신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9.
- 신국원.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0.
- 신상언. *대중문화 최후의 유혹*. 서울: 낮은 울타리, 1993.
- 신승환.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성찰*. 경기: 살림, 2003.
- 이문균. *포스트모더니즘과 기독교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 이연길. *이야기 설교학*. 서울: 콤파출판사, 2004.
- 이진희. *유대적 배경에서 본 복음서*. 서울: 킨콜디아사, 1997.
- 이창근. *복음서에 나타난 교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인천: 엘멘출판사, 1990.
- 이학준. *한국교회 패러다임을 바꿔야 산다*.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1.
- 이홍재. *휴먼 커뮤니케이션*. 서울: 프리칭아카데미, 2008.
- 임동욱. *설득커뮤니케이션의 이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
- 정병관. *복음혁명을 주도하는 크리스천 커뮤니케이션*.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9.
- 정장복. *한국교회의 설교학 개론*. 서울: 예배와설교아카데미, 2001.

- 정장복 외. *설교학 사전*. 서울: 예배와설교아카데미, 2004.
- 제자원 편.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서울: 제자원, 2000.
- 차배근. *커뮤니케이션학개론 (상)*. 서울: 세영사, 1976.
- _____. *커뮤니케이션학개론 (하)*. 서울: 세영사, 1976.
- 차배근 외. *설득커뮤니케이션개론*. 파주: 나남출판사, 2005.
- 차정식. *목사의 하늘과 지혜의 땅*.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 최갑중. *예수님의 비유연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 최윤희. *비언어커뮤니케이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1999.

2. 번역 서적

- Anders, Max, and Stuart K Weber. *Maid Idea로 푸는 마태복음 (Holman New Testament Commentary Matthew)*. 김창동 역. 서울: 디모테, 2003.
- Brunner, Emil., and Karl Barth. *자연신학 (Natural Theology)*. 김동건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7.
- Cambell, Charles. *프리칭 예수 (Preaching Jesus)*. 이승진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1.
- Chapell, Bryan.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Christ Centered Preaching)*. 김기제 역. 서울: 은성, 1999.
- Cole, Neil. *오가닉 처치 (Organic Church)*. 정성목 역. 경기: 가나북스, 2010.
- Craddock, Fred B. *권위 없는 자처럼 (As One without Authority)*. 김운용 역. 서울: 예배와 설교아카데미, 2003.
- Dodd, Carley H. *문화를 초월하는 역동적 커뮤니케이션 (Dynamics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임헌만 역. 서울: 그리심, 2008.
- Frost, Michael., and Alan Hirsch. *새로운 교회가 온다 (The Shaping of Things to Come)*. 지성근 역. 서울: IVP, 2003
- Gibbs, Eddie., and Ryan K. Bolger. *이머징 교회 (Emerging Churches)*. 김도훈 역. 서울: 쿰란출판사, 2005.
- Grenz, Stanley J.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 포스트모던 시대와 기독교의 복음 (A*

- Primer on Postmodernism*). 김운용 역.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10.
- Grethlein, Christian. *매체사회에서 나타난 복음의 커뮤니케이션 (Kommunikation Des Evangeliums in Der Mediengesellschaft)*. 김상구 역. 서울: CLC, 2008.
- Group. *오감체험예배 (Engaging Worship)*. 김용환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 Guelich, Robert. *WBC 성경주석 마가복음 (34 상) (Word Biblical Commentary Vol. 34A Mark 1-8:26)*. 김철 역. 서울: 솔로몬, 2001.
- Humes, James C. *링컨처럼 서서 처칠처럼 말하라 (Speak like Churchill Stand like Lincoln)*. 이채진 역. 서울: 시아, 2003.
- Johnston, Graham. *포스트모던 시대의 설교전략 (Preaching to a Postmodern World)*. 최종수 역.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2006.
- Keener, Craig S. *성경배경주석 신약 (The IVP Bible Background Commentary New Testament)*. 정옥배 외 옮김. 서울: IVP, 1998.
- Kistemaker, Simon J. *예수님의 비유 (The Parables of Jesus)*. 김근수, 최갑중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2.
- Knapp, Mark L., and Judith A. Hall.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Nonverbal Communication in Human Interaction)*. 최양호, 민인철, 김영기 역.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2.
- Kraft, Charles H. *복음과 커뮤니케이션 (Jesus, God's Model for Christian Communication)*. 김동화 역. 서울: IVP, 1991.
- _____. *기독교 커뮤니케이션론 (Communication Theory for Christian Witness)*.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1.
- Miller, Calvin. *칭중을 사로잡는 설교자 (The Empowered Communicator)*. 최예자 역. 서울: 프리셋트, 2006.
- Mouw, Richard J. *무례한 기독교: 다원주의 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시민교양 (Uncommon Decency: Christian Civility in an Uncivil World)*. 홍병룡 역. 서울: IVP, 2004.
- Meyers, Robin R. *설득력 있는 설교의 비밀 (With Ears to Hear: Preaching as*

- Self-Persuasion*). 이호형 역. 서울: 쿠파출판사, 1999.
- Ortberg, John 외. *위대한 설교 (Great Preaching: Practical Advice from Powerful Preachers)*. 박경철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5.
- Pennington, Chester, and Myron Chartier. *말씀의 커뮤니케이션 (God Has a Communication Problem)*, 정장복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 Pieterse, Hendrik J. C. *청중과 소통하는 설교 (Communicative Preaching)*. 정창균 역. 서울: 합신대학원출판부, 2009.
- Reid, Clyde. *설교의 위기 (The Empty Pulpit)*. 정장복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 Rogness, Michael. *영상세대를 향해 이렇게 설교하라 (Preaching to TV Generation: The Sermon in the Electronic Age)*. 주승중 편역.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4.
- Robinson, Haddon W. *강해설교 (Biblical Preaching)*. 박영호 역. 서울: CLC, 2007.
- _____. *성경적인 설교 (Biblical Sermons)*. 김동완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2.
- Rovinson, Haddon W., and Craig B. Larson. *성경적인 설교준비와 전달 (The Art and Craft of Biblical Preaching)*. 주승중 외. 서울: 두란노서원, 2006.
- Smith, Steven W. *나는 죽고 성도를 살리는 설교자 (Under the Title Dying to Preach: Embracing the Cross in the Pulpit)*. 김대혁 역. 서울: 베다니출판사, 2011.
- Spurgeon, Charles H.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Lectures to My Students)*. 이종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2.
- Sweet, Leonard I. *미래교회 성공 키워드 A to Z (A is for Abductive)*. 김영래 역. 서울: 땅에 쓰신 글씨, 2007.
- _____.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Postmodern Pilgrims)*. 김영래 역, 서울: 좋은씨앗, 2002.
- _____.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The Gospel According to Starbucks)*. 이지혜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 Stott, John R. W. *설교자란 무엇인가 (Preacher's Portrait)*. 채경락 역. 서울: IVP,

2010.

Trueblood, Elton. *그리스도의 유머 (The Humor of Christ)*. 임윤택 역. 서울: CLC, 2006.

Wiersbe, Warren W. *이미지에 담긴 설교 (Preaching and Teaching with Imagination)*. 이장우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7.

_____. *상상이 담긴 설교 (Preaching and Teaching with Imagination)*. 이장우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7.

Wilson, Paul S. *네 페이지 설교 (The Four Pages of The Sermon)*. 주승중 역. 서울: 예배와설교아카데미, 2010.

Zigarelli, Michael. *예수님 가방 속 설득 매뉴얼: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기 위한 15가지 원리 (Influencing like Jesus: 15 Biblical Principles of Persuasion)*. 마영래 역. 서울: 어부의 그물, 2009.

Zuck, Roy B. *예수님의 티칭 스타일 (Teaching As Jesus Taught)*. 송원준 역. 서울: 디모데, 2000.

3. 외국 서적

Connor, Steven. *Postmodernist Culture: An Introduction to Theories of the Contemporary*. 2nd Ed. Oxford, UK: Blackwell, 1997.

Engel, James F. *Getting Your Message Across*. Bloomingdale, IL: Media Associates International, Inc. 1989.

Harvey, David.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Cambridge, MA: Basil Blackwell, 1990.

Heidegger, Martin. *Being and Time*. Translated by John Macquarrie & Edward Robinson. New York: Harper & Row, 1962.

Hoffeld, David. *Delivery Matters*. Brooklyn Park, MN: Hoffeld Group, 2011.

Jensen, Richard. *Thinking in Story*. Lima, OH: C.S.S, 1993.

Pagitt, Doug. *Preaching in the Inventive Age*. Minneapolis, MN: Sparkhouse Press, 2011.

Viggo, Sogard. *Media in Church and Mission: Communication the Gospel.*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1993.

Vita of
Geun Ho Lee

Present Position:

Associate Pastor of Wonmidong Presbyterian Church

Personal Data:

Birthdate: 12.23.1973

Marital Status: Married

Home Address: 19-19, 164 Wonmiro, Wonmigu, Bucheonsi,
Kyunggido, South Korea, 420-838

Phones: 010-4583-4785

Denomination: Presbyterian

Ordained: 10.23.2007

Education:

B. A. Seowon University, 02.23.1999.

M. Div. Hanil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02.15.2005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06.14.2014

Personal Experience:

07.28.2013~Present	Associate Pastor of Wonmidong Presbyterian Church
09.14.2008~12.12.2010	Associate Pator of Bundang Nambu Church
07.22.2007~09.07.2008	Associate Pastor of Oryudong Presbyterian church
11.19.2006~07.15.2007	Associate Pastor of Seobu Jeil Church

01.01.2004~11.12.2006	Associate Pastor of Hosanna Church
01.05.2003~12.30.2003	Youth Pastor of Dongil Church.